



2025 KMAA Reloaded Exhibition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아트협회
Korea Media Art Association

2025 KMAA-Reloaded Exhibition

Reloaded

Since the founding of the Korea Media Art Association (KMAA) in 2020, we have experienced countless social and historical transformations.

We endured a pandemic era in which we could hardly see one another's faces; we witnessed extreme political polarization within Korean society, the wars between Russia and Ukraine and between Iran and Israel, martial law and citizens' resistance, the impeachment and dismissal of a president, regime change through elections, and even ongoing trials for insurrection—all unfolding in a continuous state of turmoil.

At the same time, the global rise of K-culture, Trump's "MAGA" movement, the rapidly shifting world order, and the astonishing and unpredictable evolution of AI have ushered us into an entirely new era.

As in Zhuangzi's Butterfly Dream, where Zhuangzi wonders, "Was it I who dreamed of being a butterfly, or is it the butterfly dreaming of being me?", the past few years have blurred the boundaries between reality and illusion. Things that once did not exist have suddenly appeared, shaking our values, while pain and hope coexist in an age of uncertainty.

The saying "Ten years can transform a landscape" no longer holds true. Today, we might well ask, "Can the world not change several times in a single day?"

We are reminded of the words of Morpheus to Neo in The Matrix: "This is the world that you know. You've been living in a dream." "What is the Matrix? Control."

Such rapid transformations in the world demand that art reexamine its values and confront new realities.

This is why Algorithm, the theme of the 2024 KMAA exhibition, remains relevant today: we continue to live under the control of algorithms, shaped and governed by them. Although both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scenes seem to have opened Pandora's box, within that very chaos lies the possibility of discovering hope.

In that sense, this year's KMAA exhibition adopts the title Reloaded, inspired by The Matrix Reloaded.

"Reloaded" signifies recharging, restarting, and reactivation; it embodies our determination to awaken the dormant senses of art and to explore new possibilities for creation amid the turbulence of our times.

October 29, 2025

KIM, ChangKyum / Chairman, Korea Media Art Association

2025 KMAA-Reloaded전

Reloaded

한국미디어아트협회(KMAA)가 창립된 2020년 이후, 우리는 사회적·시대적으로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서로의 얼굴조차 보기 어려웠던 팬데믹의 시대를 견뎌야 했고, 한국 사회의 극심한 진영 대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이스라엘 전쟁, 계엄령과 시민들의 저항,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그리고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 진행 중인 내란 재판 등 혼란의 연속 속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K-문화의 세계적 약진, 트럼프의 'MAGA', 급변하는 세계 질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AI의 놀라운 진화까지, 우리는 이미 완전히 새로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장자(莊子)의 호접지몽(胡蝶之夢)에서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노닐다가 깨어나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인가, 아니면 나비가 나를 꿈꾼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듯, 우리가 지나온 지난 수년은 실재와 비실재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돌연히 나타나 가치관을 흔들고, 고통과 희망이 뒤섞여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속담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세상은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영화 매트릭스 속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이것이 자네가 알던 세상이야. 자네는 꿈속에 살았었네.", "매트릭스는 뭔가? 통제야."라고 말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급격한 세상의 변화는 예술이 새롭게 마주해야 할 가치의 재검증을 요구합니다.

2024년 KMAA전의 주제였던 Algorithm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알고리즘에 지배되고, 그 속에 통제되어 살아갑니다. 국제, 국내사회의 혼란으로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하지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KMAA전은 영화 매트릭스 2-리로드(The Matrix Reloaded)의 제목을 차용하여 "Reloaded"를 주제로 합니다.

'Reloaded'는 재장전, 재시작, 재활성화를 의미하며, 이는 멈춰 있던 예술의 감각을 다시 일깨우고, 혼돈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아트협회 이사장 김창겸



강 석 태 Kang, Seok Tae

Re:read_ 어린 왕자를 다시 읽기 위한 드로잉.

중학생 시절 동경의 대상이었던 어린 왕자는 위로를 주는 친구이자, 살아오며 마주했던 어두운 터널에서 나를 버티게 해 준 빛이 되었다. 드로잉의 형태로 재생산된 이야기들은 어른이 되어버린 작가에게 어린 왕자를 다시 복기시키는 매체가 되기도 한다.

파랑새에게 도움을 청했다 54.5×39cm, 종이에 드로잉, 2019



내 친구 여우 54.5×39cm, 종이에 드로잉, 2024



나의 별 54.5×39cm, 종이에 드로잉, 2024



해피엔딩 54.5×39cm, 종이에 드로잉, 2024

강석태는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서 영감을 받아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닮고 싶은 존재인 '별소년'을 모티브로 작업을 해오고 있다. 작품 속 별소년은 어른이 된 작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어린 왕자가 만나는 풍경과 이야기를 통해 감성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며, 어린이들과 다양한 미술 프로젝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작품활동으로 20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전에 참가하였으며,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 등에도 참여하였다. 저서로는 「어린 왕자에게 말을 걸다」, 「나무에 문화꽃이 피었습니다」등이 있으며, 현재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해진×이창희 Kang, Hae Jin×Lee, Chang Hee

작품명: 〈Reload, turntable〉

“멈춰 있는 공간에 흐르는 시간은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다른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열쇠이다”

복합문화예술공간 문화비축기지 T4에서 첫선을 보인 〈wave ; 파동〉은 일렉트릭 바이올리니스트 강해진과 프로젝션 맵핑 아티스트 이창희의 협업으로 탄생한 융합형 퍼포먼스 프로젝트입니다. 두 작가는 기존의 공연장이 아닌, 과거 기름 탱크로 사용되던 독특한 공간을 무대로 삼아 음악과 빛, 공간이 교차하는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공연은 스테이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바닥에 배치된 빈백(bean bag) 자체가 전시된 미적 오브제로서 기능하게 하였습니다. 어둠 속 벽면에 투영된 빛, 침묵을 깨고 공간을 채우는 음률 등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전시와 공연의 성공적인 융합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LP판을 재활용한 〈Reload, turntable〉은 〈wave ; 파동〉의 후속작입니다. 이 작품은 현실과 디지털의 경계, 현시대에 대한 성찰, 레트로 문화 현상 등을 모티브로 삼아, ‘Reload’와 ‘turntable’이라는 치환된 개념 속에서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감각적 경험과 다층적인 해석을 선사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wave ; 파동〉융합형 퍼포먼스 공연 1/ 문화비축기지 T4



〈wave ; 파동〉융합형 퍼포먼스 공연 2/ 문화비축기지 T4



〈wave ; 파동〉융합형 퍼포먼스 공연 3/ 문화비축기지 T4

강해진은 전시, 퍼포먼스, 공연, 음반 제작 등 다양한 예술 영역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미학을 구축해왔다. 그는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고 장르 간 융합을 실천하는 ‘Convergence Art(컨버전스 아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음악과 공간, 시각 예술이 교차하는 새로운 감각의 지평을 모색하고 있다.

이창희는 프로젝션 맵핑과 3D 애니메이션 등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활약해온 전문가로,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융·복합 미디어 프로젝트를 통해 창작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며, 시각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공 은 택 Kong, Eun Taek

‘DNA라는 보이지 않는 정보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생명으로 발현되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생명의 기원이나 진화 같은 거대한 문제를 탐구하기보다, 그 구체적인 매커니즘, DNA가 RNA로 전사되고 단백질로 번역되는 ‘센트럴 도그마(central dogma)’의 비가역적 흐름에 주목했다. 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은 디지털 코드와 닮아 있다. 0과 1로부터 이미지와 세계가 생성되지만, 다시 완전히 환원될 수는 없다. 그 불가역성 속에서 인간과 세계는 완전히 데이터로 환원될 수 있는가를 질문한다. 작업은 인간 미토콘드리아 DNA의 COX1 구간을 선택해 이를 소리로 번역한 소니피케이션(sonification) 실험이다. 생명의 데이터, DNA를 환원되는 코드로 바라보는 동시에, 그 코드가 감각적으로 변환될 때 드러나는 불가해한 차원을 마주하고 싶었다. 데이터는 언제나 명확해 보이지만, 그것을 다시 감각의 영역으로 옮겨놓을 때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남는다. 우리는 생명을 어디까지 정보로 환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환원이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감각과 사유를 경험하게 되는가?



교차점 영상 설치: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알루미늄 프로파일, 거울 필름, 가변설치, 영상: 5분, 오브제: 각 20×5×200cm, 2023



Homo sapiens mitochondrial DNA-COX1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6분, 2025



인공 태양 아래에서 영상 설치: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스테인리스, 거울 필름, 가변설치, 영상: 5분, 오브제: 50×50×20cm, 2025

공은택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며 전환되는 순간에 주목한다. 빛이 경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는 매개체임을 탐구하며, 물질과 정신을 넘어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빛의 본질과 현상을 연구한다. 개인전《SYZYGy》(2025, 청년베프)를 기점으로, 우주적 질서와 배열, 정렬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작업에 등장하였으며, 거시적 세계인 인공 태양, 인공 달, 쌍둥이 지구, 미시적 세계인 세포, DNA와 같은 상징적 매개를 통해 감각의 전환과 현실/허구의 중첩을 미디어 설치 작업으로 전개해 왔다. 성신여자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곽인상 Kwak, In Sang

이 작품은 AI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전환을 시각적으로 탐구하는 깊이 있는 예술적 시도입니다. 해골과 파티클 빛의 대비는 단순한 시각 효과를 넘어, 인간의 신체적 유한성과 사유의 디지털 무한성이라는 두 개의 대립항을 상징합니다.

해골 두상은 소멸과 물질적 한계를 의미하는 전통적인 바니타스(Vanitas)의 미학을 담고 있습니다. AI가 지식을 지배하는 시대에 유한한 육체로서의 인간은 점차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그 중요성이 탈각되는 현실을 은유합니다. 반면, 이 죽은 신체의 두개골에서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파티클 빛은 지식, 정보, 사유의 확장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 빛이 AI의 학습 패턴을 시각화했다는 점에서, 이는 인간의 정신이 물리적 신체라는 감옥을 벗어나 순수한 데이터와 패턴의 형태로 변환되어 영속적인 확장을 모색하는 디지털 의식(Digital Consciousness)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출은 이원론에 대한 AI 시대의 새로운 답변을 제시합니다. 즉, 인간의 지성이 더 이상 신체에 구속되지 않고 탈각(Disembodiment)되어 AI라는 매개체를 통해 생성되고 초월되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보여줍니다. 빛이 머리카락처럼 흔들리는 것은 이 사유의 확장이 유기적인 듯하면서도 비유기적인, 정보 단위(Data Particles)로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의 생명 또는 존재 방식임을 미학적으로 구현합니다. 어둡고 정적인 해골과 밝고 운동적인 파티클의 충돌은 죽음과 영속성의 미학적 긴장감을 조성하며, 관객에게 포스트휴먼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론적 위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곽인상은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디자인컨버전스학부 교수이자 엑스와이지 디자인 스튜디오(XYZ Design Studio)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 에콜 데 보자르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그는,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문가로서 AI, 데이터 기반, 증강현실, 인터랙티브 설치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예술 작품을 국내외에서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인터랙션디자인, 디지털 미디어아트 등 융합형 창의교육을 실천하며, 실제 디자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스튜디오 대표로서 실무와 학제 간 융합을 선도한다. 그의 연구와 창작 활동은 현대 예술·디자인계에 새로운 영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의식 Digital Consciousness 192×108cm, 영상 4:30, No Sound, 2025

김길웅 Kim, Gil Woong

하늘을 나는 꿈은 비단 아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순수한 비행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파일럿의 꿈을 꾸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반영된 작가의 작품을 보는 이들을 동심의 세계로 이끈다. 마치 버려진 코카콜라 캔이 꾸는 꿈을 훑쳐보는 듯한 그의 작품 속에 녹아있는 시적인 감성을 엿볼 수 있다.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홀로, 때로는 타인과 함께 마주하게 되는 그 찰나의 정점을 포착해 작품에 담아냈다. 자연 친화적 접근과 소비문화의 대표 아이콘의 재탄생, 과학기술과 예술의 만남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며 절묘한 균형을 실현한다.

작업 전반에 내재된 철학 속에는 천 마리의 학을 접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동양적 감성과 어린 시절 소년이 학을 접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비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했다.



Redwing 50(h)×20×200cm, 혼합재료, 2025



I Wanna Be A Star 100×100cm, 혼합재료, 2024

2025 <유목한다는것-한불조형예술협회> 화인페이퍼갤러리, 서울 / 2024 <사이버불링전> 아트노이드 178, 갤러리선, 서울 / 2023 <KFFA 불혹·유혹> 금보성아트센터, 서울 / 2012 <ARTBANK 공모제-서양화 부문> 국립현대미술관 / 2009 아트페어 브뤼셀

2008 개인전 제1회 <ART JINGLE CONTEMPORARY> 프랑스 파리 SLICK, 08 프랑스 파리 / <Aliens X ON:OFF> OMS Gallery Open Center, 미국 뉴욕 / <제53회 살롱드 몽후쥬 아트컨템퍼리> 몽후쥬 시청사, 프랑스 몽후쥬 / 2007 <P-N 2007 EXHIBITION> THE SPACE WORLD GALLERY, 미국 뉴욕 / <한국-시노 교류15주년 기념 컨템퍼리> 씨아푸 박물관, 베이징 중국

김미라 Kim, Mira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철원 노동당사 <모을동빛: 걷히는 구름, 비추는 평화>는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기반으로 미디어아트를 통해 그 의미를 더하고자 기획하였다. 과거와 미래의 교차점이라 할 수 있는 노동당사 건물을 캔버스로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의 이야기를 담은 시그니처 미디어파사드를 포함한 총 29개의 ICT 기반의 미디어아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모을동빛>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노동당사 전시장면, 2025



<모을동빛>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노동당사 전시장면, 2025

김미라는 역사와 미술사를 전공, 영상예술학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30여년 간 300여 회의 다양한 국내외 전시를 기획해왔다. 미디어아트 관련 주요 프로젝트로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를 최초 기획했으며 (2009),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의 예술감독(2019), 제주현대미술관 김보희 실감콘텐츠 예술감독(2023),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익산미륵사지 사업총괄 (2024),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기념 한국미술전시 예술감독(2025), 광복80주년 기념 서울시 기념사업 예술감독(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철원 노동당사 총감독 (2025) 등을 진행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과 환경부,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인천시 등 여러 지자체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범수 Kim, Bum Su

나의 작품 속에는 다양한 역사와 배경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정지된 상태에서 영화 필름으로 존재한다. 35mm, 16mm, 8mm 영화필름 속 각각 집약된 기억들은 영화와는 다른 차원의 시공간을 통하여 새로운 미적 언어로 확장된다. 이렇게 나와의 긴밀한 교감을 거쳐 조형적으로 재구성된 미적 언어는 색다른 경험이자, 또 다른 영역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 일련의 과정과 행위로, 또 다른 나 자신의 숨겨진 감성을 찾으려 한다.



Hidden emotion 45×45×10cm, movie film, acrylc box, LED, 2019

Contact 가변설치, 영화필름, 아크릴, 레진, 2024



Beyond description 210×120×10cm, movie film, acrylc box, LED, 2021



김범수는 1991년 홍익대학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와 1998년 뉴욕의 (SVA) School of Visual Arts대학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으로 MFA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영화필름을 소재로 미디어 설치, 서사적 입체와 평면 작업을 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외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20회의 개인전과 250여 회의 단체전을 하였으며, 다수의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현재 작업실은 파주에 있다.

김보슬 Kim, Bo Sul

〈Spirit in Nature〉는 모든 생명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동양적 세계관에서 출발하여, 자연의 본질을 새롭게 해석하고 잊혀진 영혼이 다시 깨어나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멈춰 있던 기억과 에너지를 불러내어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려는 이 작업은, 자연과 인간,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재생의 서사를 제시한다.

기후 변화로 인해 물이 범람하며 재창조된 가상의 시공간 속에서, 자연 만물의 역사와 기록, 기억을 품은 ‘생명 저장고’가 발견되어 열리고, 인간과 비인간, 동양과 서양의 영혼이 혼성된 생명체들이 부활한다. 잊혀진 존재들은 다시 호흡하며, 사라진 영혼들은 재장전된 빛으로 되살아난다.

모션캡처, 인공지능, 엔진 기반 3D 애니메이션 등 기술 매체가 결합된 미디어파사드 형식의 작품으로, 건축물의 표면과 신체의 움직임, 수평과 수직, 정적과 동적의 요소들이 충돌하며 초자연적 기도와 염원을 시각화한다.〈Spirit in Nature〉는 공간에 새로운 장소성과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며, 미래의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명의 근원에 대한 사색의 시간을 제안한다.



Spirit in Nature 디지털 애니메이션, 7분, 2024

김보슬은 홍익대학교 동양화과와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CalArts)에서 실험 애니메이션과 Integrated Media를 전공하였으며, 현재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아트 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녀는 동양의 전일주의적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 생명체 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탐구하며, 현실과 가상, 미디어와 퍼포먼스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적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의 작업은 기후 위기와 해수면 상승 등 환경 변화의 조건에 과학적 상상력을 더해 사변적 가상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동양의 신화와 철학에서 영감을 얻어 미래 생명체와 환경의 관계를 재조명하며, 인공지능, 모션 캡처, XR, 텔레프레젠테이션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관객에게 몰입적인 미디어 경험을 선사한다.

대표작으로 《Spirit in Nature》,《Hyper Connection》,《Hybrid Nature》,《Invisible Touch》,《Vital Signs》등이 있으며, 기후 변화와 생태적 상상력을 결합한 독창적 세계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프라하 쿼드레날레(PQ, 체코, 2011), 뉴욕 타임스퀘어(2022), 몬트리올 S.A.T.(2023), 뉴욕 Space776 갤러리(2024) 등 국제 무대를 비롯해 파라다이스아트랩, 아트센터 나비, 울산시립미술관, DDP 등 국내외 우수 기관에서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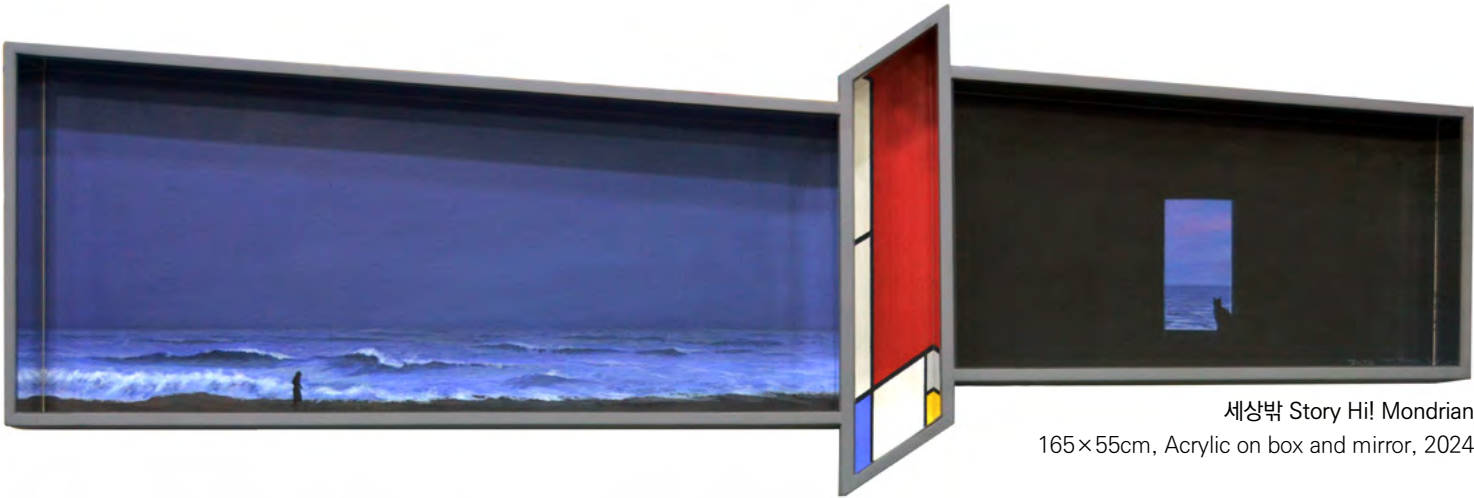
김성근 Kim, Sung Keun

나의 작품은 철학이기 보다는 감성에 가깝다. 표현에 있어서도 기하학적이거나 낯설은 형상보다는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 각 개체의 재배치와 그리 복잡하지 않은 구도를 통해 이야기 하고 싶은 바를 표현한다.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과 미처 말로 다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편안한 상태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개별적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보편적이기도 하다. 내 그림도 그런 보편적인 표현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길 바라는 것 같다. 대부분의 작품은 나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작품에 담는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느끼는 일상의 느낌과 사회적 이슈 등이 자연스럽게 작품을 통해 표현된다. 결국 나의 작품은 나의 또다른 일기장과 같다.

몽게구름을 아버지. 어머니라는 글씨로 살짝 숨은 그림처럼 배치하여 나의 그리움을 표현하고,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를 통해 세월호의 슬픔을 공감하고 싶었고 의자, 모자, 우산 등을 통해 삶의 고단함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평면작업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직각적인 감정의 교류에 대한 갈증을 근래 입체적인 작품을 시도하면서 표현적 방법으로 감정의 전달이라는 측면으로도 좀 더 확장 시키고자 하였다.



세상밖 Story Hi! Mondrian
165×55cm, Acrylic on box and mirror, 2024



세상밖 Story
100×25cm, Acrylic on box and mirror, 2023



세상밖 Story 226×101cm, Acrylic on box and mirror, 2024

김성근은 세종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개인전 15회(서울, 요코하마)와 2012~2017년 화랑미술제, KIAF, 홍콩 아트페어, 싱가포르 아트페어 참가했다. 기획초대전 및 단체전 200여회 출품.

김 정 애 Kim, Jung Ai

나는 매번 전화를 걸면 들리던 그 인사를 아직 기억한다.

“사랑하는 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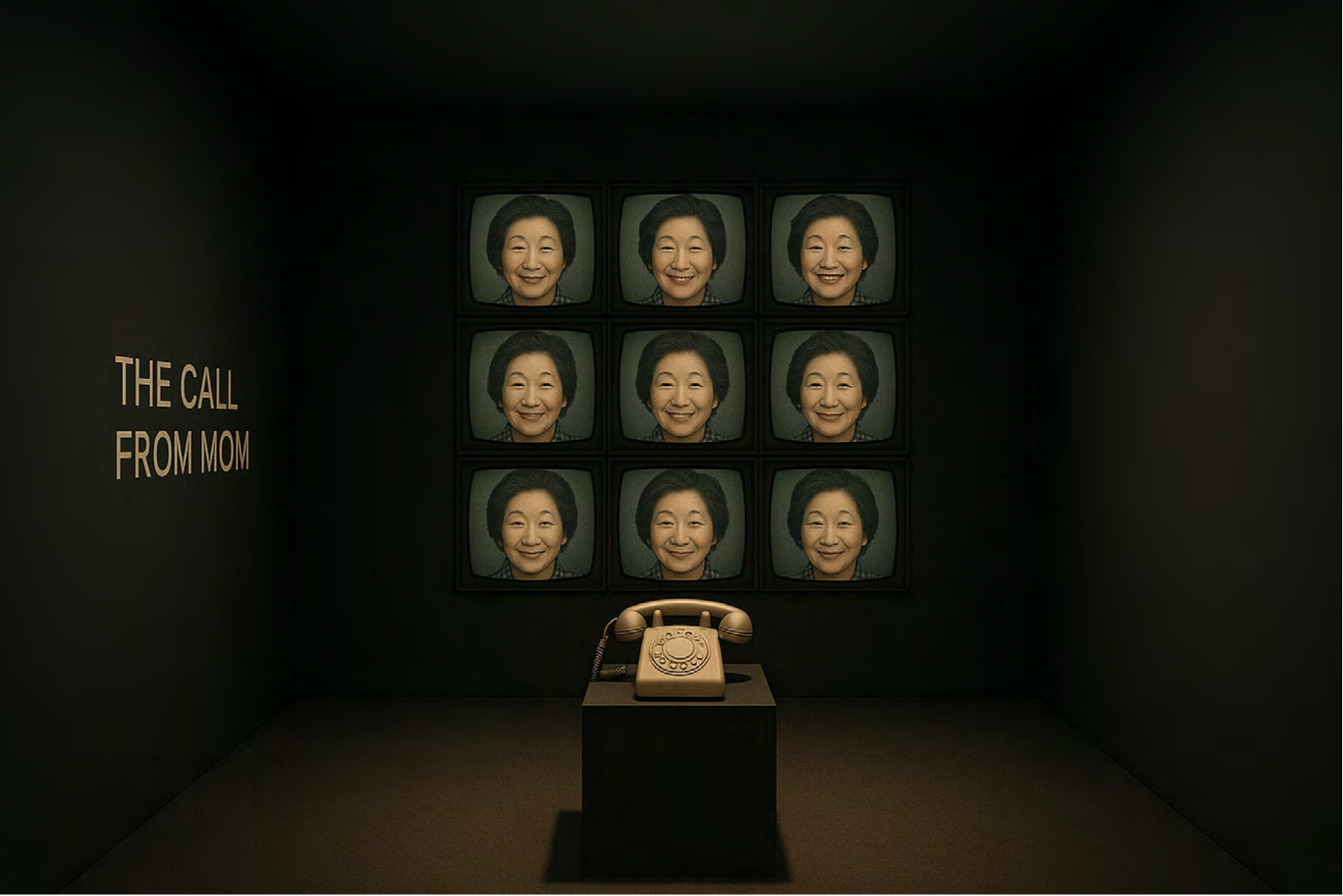
그 한마디가 내 하루의 시작이었다.

이제 그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오래된 전화기 너머에서 여전히 나를 부른다.

화면 속 엄마는 웃고 있다. 멈춘 영상이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움직인다.

〈엄마에게서 온 전화〉는 ‘시간이 멈춘 기계들’을 통해 여전히 이어지는 사랑의 주파수를 복원하는 시도 이다.

엄마에게서 온 전화-The Call from Mom 1920×1080, 영상 5분, 2025



엄마에게서 온 전화 — The Call from Mom 가변, 복합매체, 2025
공동작업 : 김정애, 최규성, 윤봉현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 석사
2024 〈인천자동차 40년 기획전 전시 영상 제작〉 인천도시역사관 / 2023 〈2023년 특별전 ‘흙과 불의 조화, 토기’ 전시 영상 제작〉 검단선사박물관 / 2021 〈OBS시청자참여프로그램 ‘꿈꾸는 U’〉 대상, OBS경인TV / 2020 〈특별전 어해도 CG 체험 영상 제작〉 송암미술관 / 2019 〈이음 석임 그리고 삶-특별전 전시 영상 제작〉 인천시립박물관 / 2019 〈2019 올해의 문화인상〉 인천서구문화원

김창겸 KIM, Changkyum

무-제 60×20×22cm, 이태리 대리석, 1997

아래 작업은 국내, 국외의 유명, 무명의 작가의 작품을 적당히 표절, 차용, 인용 등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창작에 들어가는 정신적 노동력과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모녀상은 비판의식을 자극하지 않는 친숙한 소재이고 빨리 제작하기 위해 디테일한 부분은 생략했다. 이는 소위 돌 공장의 ‘단가’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일당 12만원 받고 만들었으며, 제작 기간이 3일을 넘 기게 되면 손해로 팔 수밖에 없으므로 2일만에 만들었다. “너무 정성을 들이면 예술이 안돼요, 단가가 안 맞아요.” 돌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사장으로부터 이런 훈시를 수 차례 들은바 있다. 이 돌 작품은 4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작업들은 돌 공장을 찾아오는 조각가들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마무리는 이것처럼 해 주세요” 작가들은 이렇게 손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공적인 Meta-Sculpture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대리석으로 Meta-Sculpture 하기 & Metà-Sculpture 사진 텍스트 편지 영상 설치, 가변크기, 2001 / 전시 전경

대리석으로 Meta-Sculpture 하기 & Metà-Sculpture

작가 스스로 작업에 필요한 테크닉을 배울 필요가 없다. 돌 작업은 특히 공구 사용이 위험하고 작업과정 이 거추장스럽고 힘들므로 석공에게 시키면 된다. 석공이 해야할 작품을 지시함에 있어서 모형을 잘 만 들거나 도면을 충실히 그린다는 것은 불필요하다. 대충 스티로폼이나 종이 점토로 만들어도 되며 굳이 완성할 필요도 없이 반쪽만 만들어와도 충분하며 드로잉이나 스케치만 해도 상관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작가의 치열한 정신세계를 석공에게 어떻게 이해시키느냐 이고 일상 언어로 설명했 을 때 석공은 예술의 Meta-phor를 틀림없이 망각하므로 Meta-언어로 치열한 작가정신을 그대로 드 러내어 보여 주어야 한다. 이는 전방위 미술의 뒤상이 모나리자의 콧수염을 다른 사람에게 그리게 한 실 험 같이 후방위 미술의 Meta-Sculpture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성모상으로 Meta-Sculpture를 할 경우 “십자가가 편하게 휴식을 취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동시에 우아한 몸짓이 없을 경우 석공은 작가의 세계를 충실히 옮길 수 없다. 석공은 작가의 메시지를 관객에게 충실히 전해야 한다. 작가와의 교감을 석공이 충실히 이행했을 때 작가는 “내 생각을 똑같이 표현했네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석공은 Metà-Sculpture를 완성하게 된다. 작품에 사인을 할 경우에도 직접하기보다 써서 FAX로 보내면 석공이 알아서하므로 이를 권장한다.

※ Meta - 그리스어 기원의 이동, 변화, 초월을 나타내는 접두사.
Metà - 이태리어로 반, 1/2의 뜻을 가진다.

김창겸은 1980년 학번으로 회화로 시작하여, 이태리 까라라에서 석조 조각을 전공으로 배우고, 잠시 석공을 직 업으로 여기다가, 비디오 작가, 미디어 작가를 거쳐, 영상장비업자, 기획자, 예술 행정가 등의 실무를 실행하였 다. 작가로서 시작은 석공 시절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변신과 시작을 위해, 다시 뒤돌아보기 위해, 이번 전시에 는 1999년 석공 시절의 작품을 전시하기로 했다.

김창수 Kim, Chang Su

〈서랍장〉은 오랜 시간 사람들의 생활을 지켜보며 소리를 품어온 서랍장을 인터랙티브 오브제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서랍장은 공간의 기억을 담은 존재로, 인간이 장소를 기억하듯 일상의 소리를 저장한다. 관객이 서랍을 여는 순간, 과거의 소리들이 되살아나며 시간의 층위가 교차한다. 서랍 속에는 전통 악기, 골목의 소리, 다듬이 소리 같은 생활의 흔적이 숨어 있다. 이 소리들은 기억의 층위를 이루며 과거의 정서를 현재로 소환한다. 서랍장은 개인의 추억을 넘어 보편적 향수의 매개체가 된다. 오래된 가구의 질감과 존재감은 소리를 통해 다시 드러난다. 관객은 서랍을 여닫는 행위를 통해 서랍장이 기억한 시간을 체험한다. 일상의 사물이 어떻게 기억을 품는지를 감각적으로 깨닫게 된다. 결국 이 작품은 ‘소리를 통해 시간과 기억을 여는 경험’을 제안한다.

〈IMMERSE VOICE〉몰입감 높은 풀 서라운드 이머시브 사운드를 오케스트라 기반으로 듣기만 하는 형태에서 더 나아가 가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실시간 음향 오디오 비주얼 미디어 아트를 포함하여 다원적인 예술 형태로 선보인다. ‘듣는 음악’을 ‘보는 경험’으로 전환시켜, 음악의 소리가 색깔과 형태로 시각화되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관객에게 독특하고 혁신적인 예술 경험을 제공한다.



서랍장 98×84×40cm, 혼합재료, 2025



〈IMMERSE VOICE〉가변 크기 복합 매체 공연, 2024
공동작업 : 김창수, 소수정, 강예진, 드림스케이프, 코원필오케스트라

김창수는 서로 다른 감각을 잇는 인터랙션을 탐구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연구자이다. 그는 신체 감각과 디지털 표현을 연결하는 감각적 상호작용을 구축하며, 관객이 참여 속에서 경험을 생성하도록 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텃밭에서 만난 동반자들〉에서 일상 오브젝트를 인터랙티브 매개체로 확장했고, 공연 〈IMMERSE VOICE〉에서는 실시간 움직임과 음악, 이미지가 교차하는 인터랙티브 무대를 구성했으며, 최근 공연 〈Inner Voice : 공명감각〉에서는 가상의 소리 오브젝트의 이동을 통해 관객이 공간적 청각 경험을 체험하도록 설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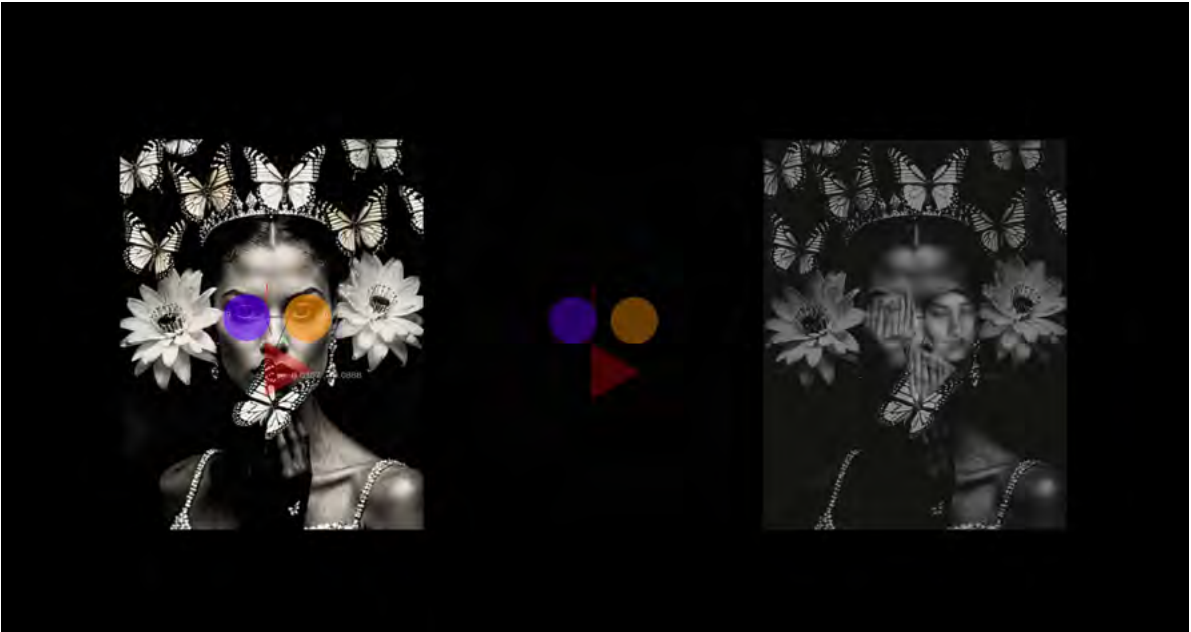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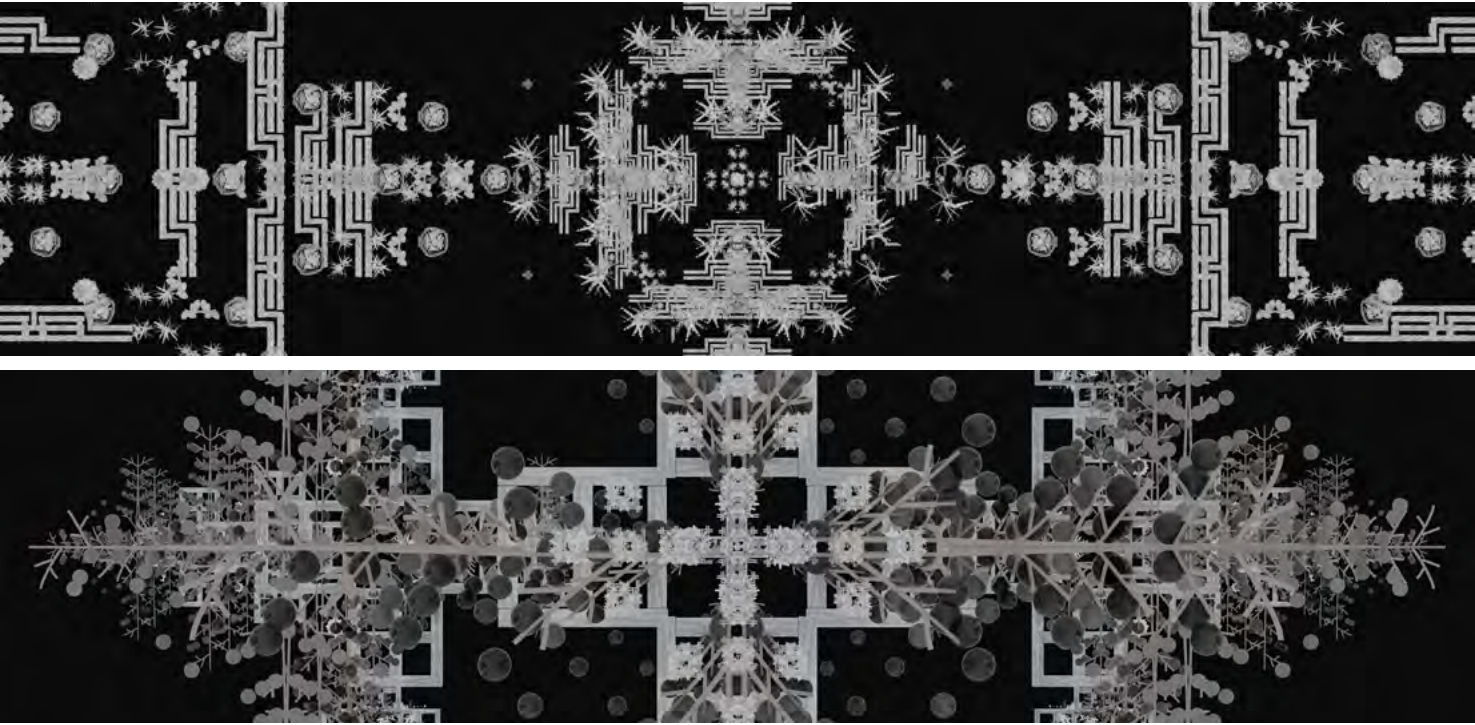
현재 국민대학교 시디자인랩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국민대학교 시디자인학과 강사와 홍익대학교 디자인컨버전스학부 겸임교수로 인터랙션과 관련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인터랙션 디자인 스튜디오 ‘하이글로시웍스’의 대표이자 이머시브 사운드 밴드 ‘공명감각’에서 활동하며 예술·기술·경험을 연결하는 작업을 확장하고 있다.

김 해 인 Kim, Hae In

〈반복의 반복-자개정원〉은 전통 자개의 문양과 디지털 알고리즘을 결합한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작가는 2015년부터 반복과 재귀의 원리를 탐구하며, 장인의 수공예 정신과 프로그래밍의 질서를 결합해왔다. 귀갑무늬, 해포무늬, 소나무, 복숭아나무 등 한국적 문양은 알고리즘의 규칙 속에서 새로운 리듬으로 재해석된다. 각 오브젝트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며 서로 간섭하고, 그 작은 차이들이 전체의 조화를 이룬다. 이는 개개인의 반복된 일상이 모여 사회적 질서와 아름다움을 만드는 과정을 은유한다. 빛과 시간의 흐름을 통해 전통과 현대, 인간과 도시가 공존하는 새로운 시각적 정원을 제시한다. 관람자는 도시의 빠른 호흡 속에서도 잠시 멈춰 자신의 리듬과 내면의 호흡을 마주하게 된다.

AI의 다양한 모델을 실험하며 구축한 하나의 세계관 속 인물, 〈강박의 여왕〉을 중심으로 한 영상 작업이다. 여왕은 자신의 얼굴을 끊임없이 가리며, 정체성을 찾아 나서는 자와 숨으려는 자의 양면을 상징한다. 기계는 그녀의 눈·코·입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사라진 얼굴을 다시 AI로 재현하려 시도한다. 그 과정은 인간이 스스로를 인식하려는 시선과 기술이 인간을 인식하려는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된다. AI가 만든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을 다시 감추려는 몸짓은 존재의 불안과 욕망을 동시에 드러낸다. 영상은 반복되는 추적과 은폐의 리듬 속에서,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자아 복제’ 과정을 탐구한다. 이는 가상과 실재, 노출과 숨김, 창조와 삭제가 뒤얽힌 현대적 초상화의 한 형태로 제시된다. 작가는 작품「반복의 반복」을 탐구하며 그 근원에 어떤 기저가 있는지를 성찰해왔고, 그 성찰의 연장선에서 ‘강박의 여왕’은 앞으로 이어질 연구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된다.

반복의 반복-자개정원 3840×2160, 싱글채널, 미디어아트 영상, 약 1분, Color, Sound, 2025



강박의 여왕 1280×720, AI 실험 영상, 미디어 아트, 약 1분, Color, Sound, AI 영상합성, 2025

2025 〈10년, 그 공간의 기억〉인천문화재단 우리미술관, 인천광역시, 한국 / 2024 〈뒤바뀐 세상〉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시, 한국 / 2022 〈색색, 쓱쓱, 깔깔〉展 이응노미술관, 대전광역시, 한국 / 2021-2022 인터랙티브 미디어 전시 〈김대건을 그리다_콘텐츠 총괄 제작〉대전천주교교구청, 세종시, 한국 / 2019 〈제 7회 내일의 조각전〉Luo Zhongli Art Museum at the Sichuan Fine Arts Institute, 충칭, 중국 / 2019 토탈 미술관 〈After Internet 632〉토탈미술관, 서울, 한국 / 2019 예술의 섬 장도 개관기념전 〈Feel Art〉GS칼텍스 예술마루, 여수, 한국의 다수

김 효 수 Kim, Hyo 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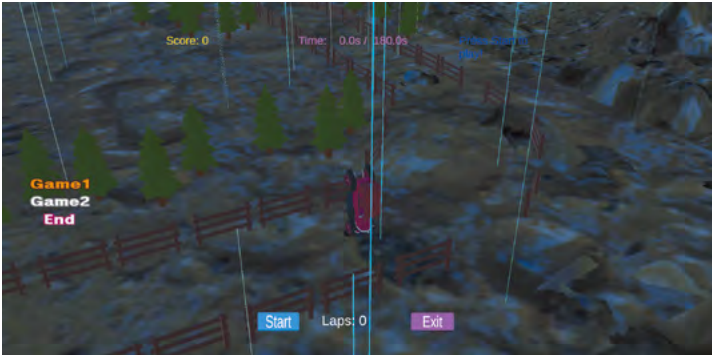
‘클래식 자동차 레이싱’은 시간의 흐름을 질주하는 클래식카를 통해 기술과 감성의 경계를 탐구하는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3D MAX에서 모델링된 클래식 자동차는 Unity 엔진 속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 디지털 트랙을 달리며 과거의 질감과 향수를 소환한다. 주행 중 울타리에 부딪히며 발생하는 실시간 충돌음은 금속성과 데이터가 교차하는 새로운 청각적 풍경을 만들어낸다. 트랙을 한 바퀴 돌 때마다 기록되는 시간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기억과 체험이 예술적으로 변환되는 리듬의 단위가 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속도’와 ‘기억’을 시각적, 청각적 언어로 직조하며, 기술의 차가움 속에서도 인간적 감정이 공명하는 순간을 드러낸다.

김효수는 Paris Montparnasse 63 Gravure에서 판화를 수학하였으며, 한국 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출강하여 판화를 지도하였다. AR, VR, 3ds Max, Unity 등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특강을 진행하며, 전통 판화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전시 경력으로는 2022년 아트팩토리, 인사동 청년작가 & NFT 아트페어, ART DMZ 룸갤러리전, 2023년 KMMA전 및 한국고원대박물관 주최 산책빛전, 2024년 KMMA전과 서울미술협회 회원전에 참여하였다.

수상 경력으로는 성산미술대전 입상, 현대판화전 입상, 서울국제미술대전에서 서울특별시의회장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서울미술협회 및 한국미디어아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색 판화와 디지털 미디어아트를 아우르는 융합적 시각언어를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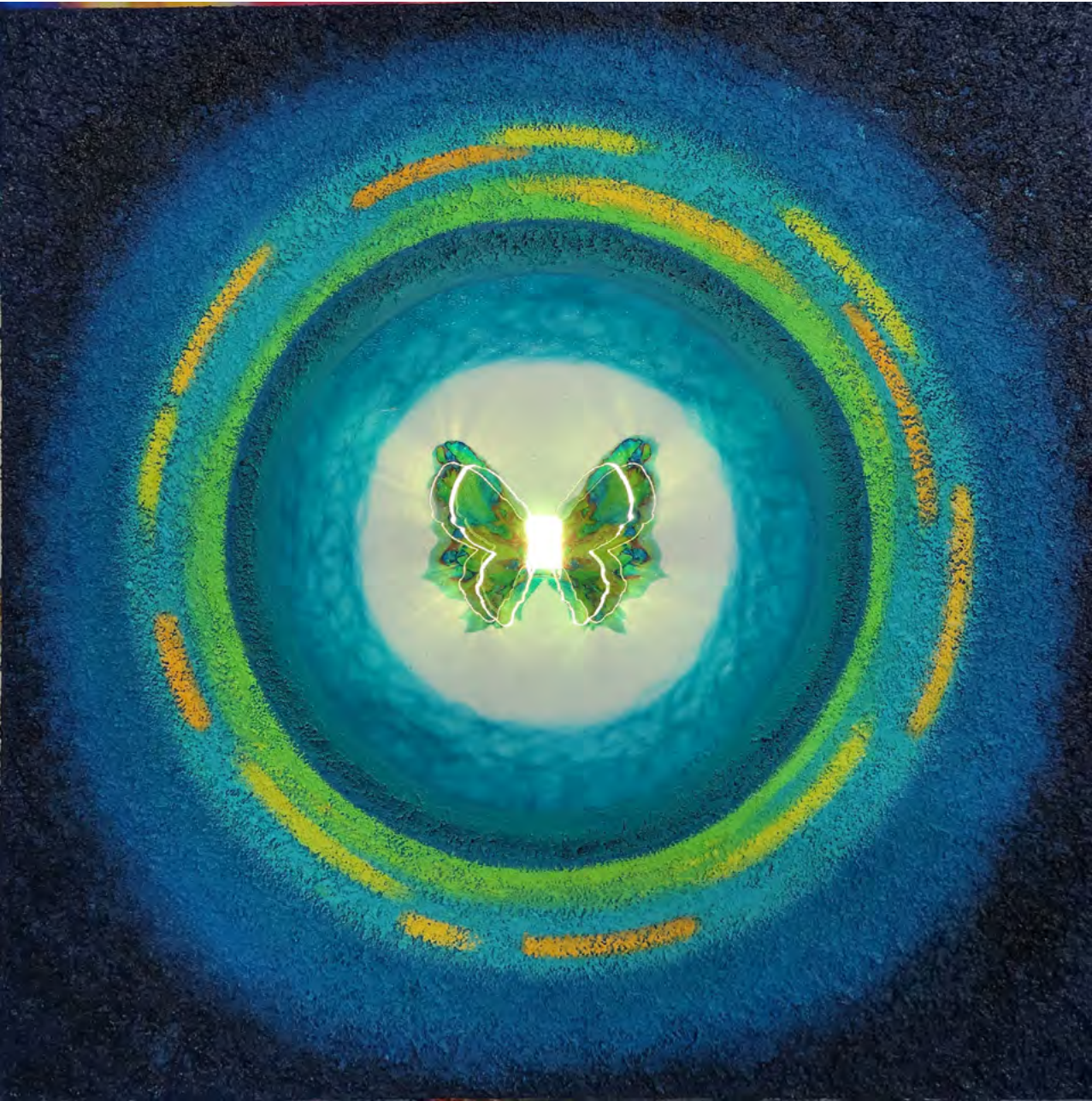
클래식 자동차 레이싱 Classic Car Racing
3D 인터랙티브 미디어, 3D MAX, Unity 엔진, 사운드 인터랙션4, 2025



나비킴 Navikim

내 안의 빛-인터스텔라
나는 빛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그림 앞에 마주한 순간
자신 안에 존재하는 별빛을 발견하고
내 안의 우주가 깨어난다
빛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스스로 빛나는 별처럼.
〈인터스텔라〉는 내면을 일깨우는 스위치이자 시각적 기도이다.

Interstellar 2409 65×65cm, LED and acrylic on Canvas, 2024



Interstellar 2503
60×60cm, mixed media
on canvas, 2025



Interstellar 2502
60×60cm, mixed media
on canvas, 2025



상명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및 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조형예술디자인 박사 수료.
개인전 32회 및 회화·설치·영상의 융합 프로젝트 다수.
2025년 뉴욕 Gala Art Center 초대전 〈The Stellar within Me〉, 2025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특별전 〈빛의 나비, 20년의 여정〉 2023년 코엑스와 강남 미디어 스트리트 영상, LG 디스플레이 영상, 2019-2017년 서울시청역과 경기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부하는 나비계단〉

노치웁 Nho, Chi Wook

〈The Time Capsule〉은 소멸해 가는 미디어 장치와 변화하는 매체의 시대성을 탐구하는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메타버스 기반의 몰입형 디지털 콘텐츠로 처음 기획·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관람 경험의 확장을 위해 VR 360도 비디오 형식으로 변환되어 소개됩니다.

이 작품은 ‘현재의 미디어아트를 미래 세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디지털 예술은 첨단 기술을 통해 생성되지만 그 생명주기는 짧고 복원 또한 쉽지 않습니다. 백남준의 〈다다익선〉 사례처럼, 디지털이 영원성을 가질 것이라는 믿음은 보존과 유지의 한계 앞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사라져가는 미디어 환경을 가상의 미래 공간으로 재구성하며, VR 360 비디오를 통해 관람자가 그 공간 속을 체험적으로 탐색하도록 유도합니다. 관람자는 단순한 감상자가 아닌 기억의 기록자이자 미래 보존의 주체로 전환됩니다.

이 작품은 시간의 무상함과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사유하게 하며, 디지털 예술의 미래 아카이빙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The Time Capsule 미디어아트, VR 360 비디오



The Time Capsule 미디어아트, VR 360 비디오

노치웁(1974)은 스튜디오 엠버스703의 대표이자 미디어 아티스트로, 디지털 미디어와 예술의 경계를 탐구해 왔습니다. 비디오 및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통해 현대 사회에 가려진 ‘자아’를 드러내고, 관객이 정체성과 타인과의 관계를 성찰하도록 유도합니다. 최근에는 The Time Capsule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아트의 보존과 미래 전송 가능성을 가상 환경 속에서 실험하며, 메타버스와 VR 등 새로운 기술 기반 예술을 국내외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눈 Twoeyes Dunun

손톱은 손끝을 보호하다 폐기되지만, 두눈프로젝트에서는 소통의 매개체로 새 운명을 얻는다. 아픔 없이 잘려 나가는 손톱은 오늘날 순수함의 처지를 상징한다. 순수함은 가식을 벗겨내어 ‘진심’이란 말을 덧붙일 필요 없는, 진솔한 삶을 가능케 한다.

〈자영상-반본환원〉은 미디어 시대에 ‘자화상’처럼 ‘자영상’이 부재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으며, ‘반본환원(근원으로 돌아감)’은 손톱 작업의 근원적 개념이다. 작가는 순수에 대한 고찰 중 십우도의 아홉 번째 그림에서 이 개념을 발견했다.

이 영상은 작가의 얼굴에서 해골로 변한다. 해골 이미지의 원형은 기부받은 손톱과 주황색으로 칠한 작가의 손톱으로 제작했다. 자라지만 이미 죽은 세포인 손톱으로 해골을 표현한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음을 상징한다. 또한 손톱 예술의 가치와 진정성을 작가 스스로 훼손하지 않고자, 손톱처럼 진솔한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의 표상이다.

자영상-반본환원 Self Video Portrait-Return to Origin 2160×2813, 01:06, 사운드, 2025



티끌 모아 태심 Many Motes Make Great Heart
기부받은 손톱, 유리, 스테인리스, 회전장치, 센서,
32(h)×40.2×40.2cm, 2025

형이상학 폭탄 Metaphysical Bomb
기부받은 손톱, 유리돔, 조명, 감지기, 나무, 오브제, 37(h)×12×11cm, 2018-2024



두눈은 2001년 온라인 커뮤니티 ‘현대미술 발전모임’을 개설하여 미술 향유층을 넓히고 자 뜻을 같이하는 작가들과 상설 할인매장 쇼윈도, 시장-전시공간-전철역, 병원에서 21c AGP 생활 속 전시를 연이어 실천했고 전시 도록을 겸한 아트북 『미술이 어지럽냐?』, 『처방전』도 기획했다.

2005년 손톱을 상징적 오브제로 탐구하며, 진솔한 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상상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두눈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다. 참여와 나눔, 사유와 실천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를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주상 복합단지 메세나폴리스에서 1년 6개월간 예술 유목을 한 적도 있다. 또한 3월 3일, 6월 6일, 9월 9일을 자신의 재능이나 시간을 이웃과 나누는 ‘기부의 날’로 정해 함께 실천하기를 권한다. 작가도 나름의 기부의 날 실천을 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손톱 기부도 소개한다. 최근 강동 예술 장터 문전성시에 참여하여 손톱 작품을 선보이며 주민들과 공동체적 가치를 나누며 소통했다. 이 기록 영상의 음성성은 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두눈채널’ 유튜브에서 감상할 수 있다.

루 딕 LUDIC

우리는 여러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오가며 꿈을 꾸니다. 삶에서 꿈이 이뤄지고 빛나는 순간들, ‘브릭들’은 우리의 그러한 일상을 상징하는 작은 단위이며, 움직이는 빛과 그림자는 순간의 기록임과 동시에, 변화와 성장과 희망을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빛과 그림자를 마주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루딕 작가는 시각, 제품, 공간디자인의 다양한 실무경력과 기획력으로 다양한 상설·비상설 공간을 구축하였으며, 사용자 중심의 인문학적 고민과 연구로 실감콘텐츠 분야에서 차별적 접근과 효과적 기술의 접목을 창출해왔다. 깊이있는 콘텐츠의 연출과 정제된 표현과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사 /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대학 석사
Kiaf 작가 / 화랑미술전 작가 / 한국미디어아트협회 작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제주프로젝트 총감독 / 부천시 시승격 50주년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총감독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루미나 나이트 워크 총괄 / 평창문화올림픽 미디어아트 특별전 총괄

신라의 별 라이팅 조형물, 무빙 라이팅, 2019



Blick 12 Sway 216×384cm, 02:00, 사운드 무, 2025



맹혜영 Maeng, Hyeyoung

문인화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Familiar Hands and Unfamiliar Eyes』 시리즈는 인간과 비인간, 감성과 기술의 경계를 탐구하는 회화 프로젝트이다. 작가는 전통 문인화의 직관과 수묵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를 한지 위에 전사하고 그 위에 수묵과 채색을 더해 인간의 손과 기계의 알고리즘이 공존하는 미적 경험을 구축한다. 이러한 융합적 회화 과정은 기술과 생명, 물성과 정신의 공존 가능성을 드러내며,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인간의 감각과 예술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들이 AI 도구 Runway와 Flow를 통해 움직이는 이미지로 확장되어, 정적인 회화에 생명력과 시간성을 부여한다. 작품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예술의 본질과 삶의 형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질문하며, 전통 회화와 시가 만나는 지점에서 인간-비인간 공존의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Resilience Bloom
한지에 수묵 채색 및 AI 이미지 전사,
61×50cm, 2025

맹혜영은 인공지능과 예술철학을 바탕으로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현대미술 작가이다. 현재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resno에서 회화 및 드로잉 조교수로 재직하며, AI 기반 회화, 들뢰즈의 비인간 존재론, 포스트휴머니즘을 중심으로 예술 창작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Lancaster University (UK)에서 예술 실천 기반 연구로 현대미술 박사학위를, San Francisco Art Institute에서 회화 석사학위를, 경희대학교에서 한국화 석사 및 미술교육 학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미국, 영국, 유럽 등지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저서 『AI 이후의 예술철학』(커뮤니케이션북스, 2025)과 델라웨어 컨템포러리 미술관의 앤솔로지 Artifice (2025)에 연구 논문이 수록되었다. 현재 P-RSCA 지원금을 받아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 창작에서 윤리, 직관, 감각,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 가능성을 탐구하는 예술 실천 기반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마주침 Encounter 한지에 수묵 채색 및 AI 이미지 전사 136×67cm, 2025

문 준 용 Moon, Joon Yong

문준용은 그림자가 보여주는 일루전이 우리로 하여금 이미지 해석 과정에 논리와 상상을 거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인식, 지각, 판단에 대한 기존의 습관이나 제약을 넘나드는 특이한 인지 과정을 탐구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이 시적인 감성과 논리를 결합한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연작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자 도시>는 특히, 포토그래피와 동영상의 사실성을 활용하여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 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익숙한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인간, 도시, 그림자의 모습 속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인간, 숨겨진 진실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한다.

Shadow City: Augustinerstr., Cologne, April, 싱글채널 비디오, 4K, 02:00, 2024



Augmented Shadow: Chasing Stars in Shadow 인터랙티브 설치, 가변크기(8×8×6m), 2022

1982년생. 뉴욕의 Parsons에서 Design & Technology M.F.A.를 이수하였으며, 증강현실, tangible 인터페이스, generative art, 사운드 시각화 등의 실험 미디어와 컴퓨테이션을 활용한 작업을 주로 해오고 있다. 석사 논문 작품인 Augmented Shadow가 뉴욕현대미술관(MOMA)을 비롯한 여러 국제 미디어예술제에 초청되며 작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Augmented Shadow는 그림자를 이용하여 구현된 실험적 증강현실 예술이다. 문준용의 대표적인 연작으로 발전되어, 유럽연합집행위 STARTS 상 후보작 지명, 일본 문화청미디어예술제 우수상을 받고, 가오슝, 중국 샌드박스, 부천 등의 국제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었다. 그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Microwave, Onedotzero, FILE, Cinekid, Scopitone 등의 국제 전시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금호미술관 등의 국공립 미술관에서 전시하였으며,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레지던시, 서울시립미술관 신진작가지원 등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박지혜 Park, Jee H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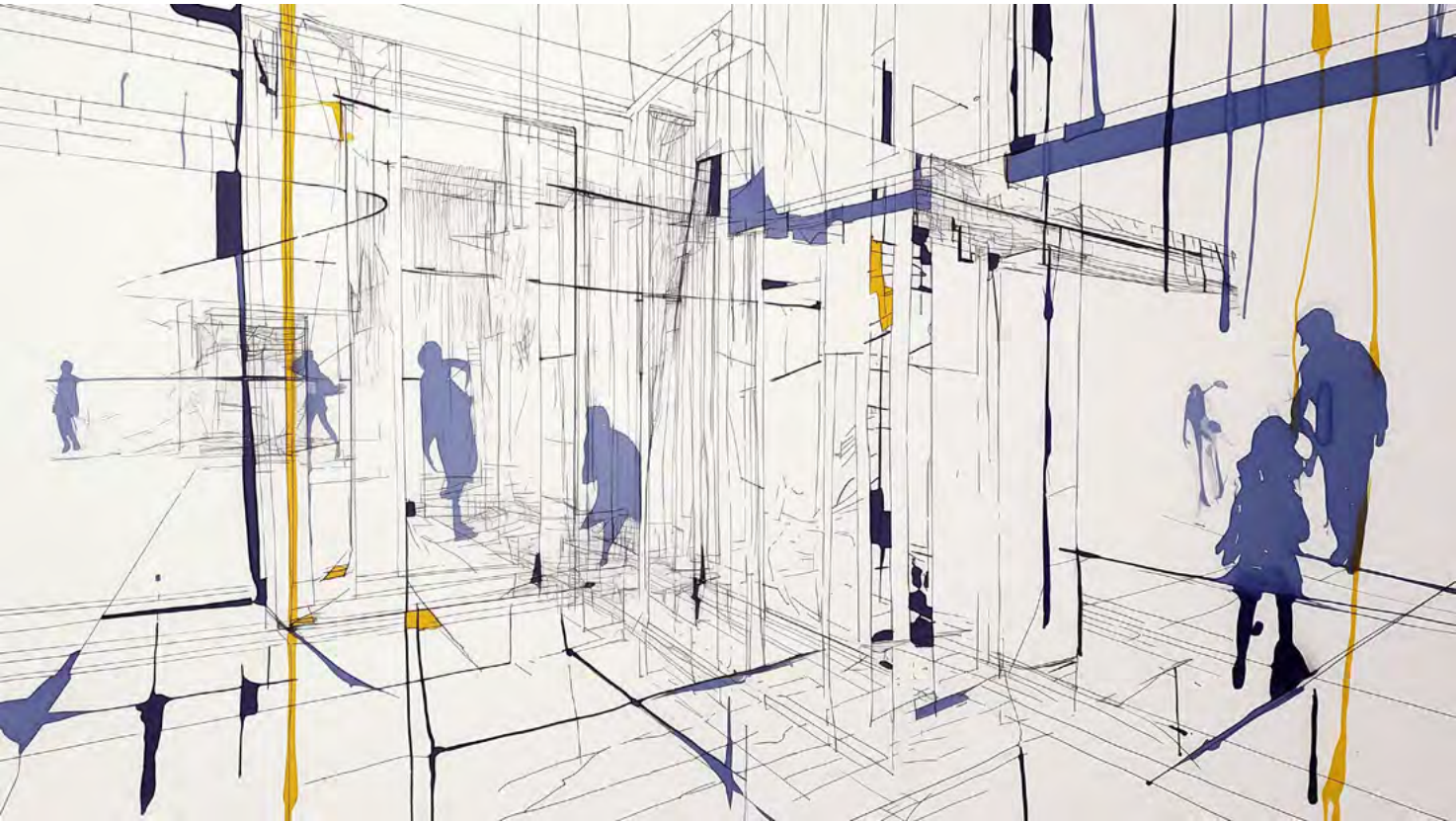
〈기억·속도·정보의 교차 Intersection of Memory, Speed, and Information〉

이 작업은 도시 공간 속에서 시간과 움직임이 어떻게 겹쳐지고 기록되는가를 다룬다. 다중 노출과 장노출의 기법을 통해 여러 시점과 속도가 한 화면에 중첩되며, 도시의 실제 공간은 시간의 층위로 확장된 시각적 구조로 변한다. 이 작품은 도시가 끊임없이 재조합되고 재현되는 과정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실재와 그 잔향이 공존하는 하나의 시각적 기록으로 남는다.

〈흔적으로서의 자취 Trace as Residue〉

이 작업은 공간 속에서 시간과 움직임이 어떻게 시각적 흔적으로 남는가를 탐구한다. 얇은 선으로 구성된 구조는 실제 공간의 형태를 연상시키지만, 그 안을 통과하는 인물의 실루엣은 고정된 형태를 벗어나며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며 여러 시점과 움직임이 한 화면 안에 겹쳐지면서, 하나의 장면이 아닌 시간의 누적된 단면이 형성된다. 이 작품은 완성된 형상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며 남긴 관계의 흔적으로서 하나의 시각적 기록을 제시한다.

기억·속도·정보의 교차 60×60cm, digital print, 2025



흔적으로서의 자취 60×50cm, Digital print,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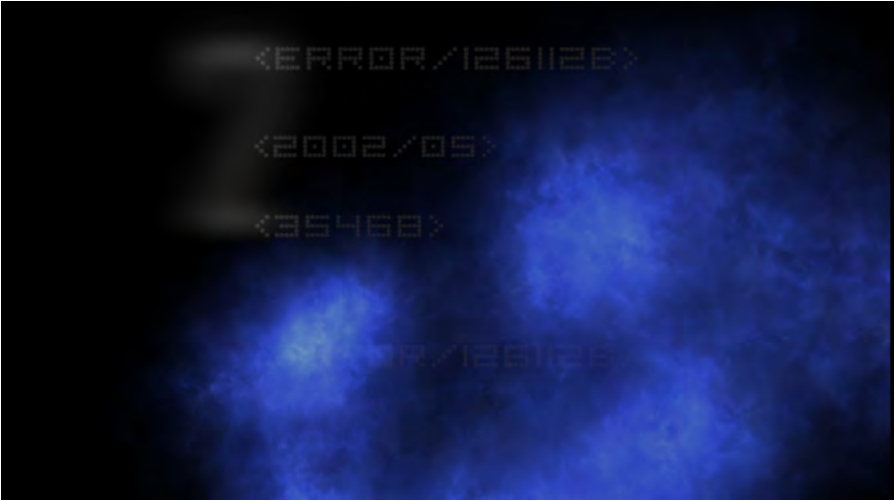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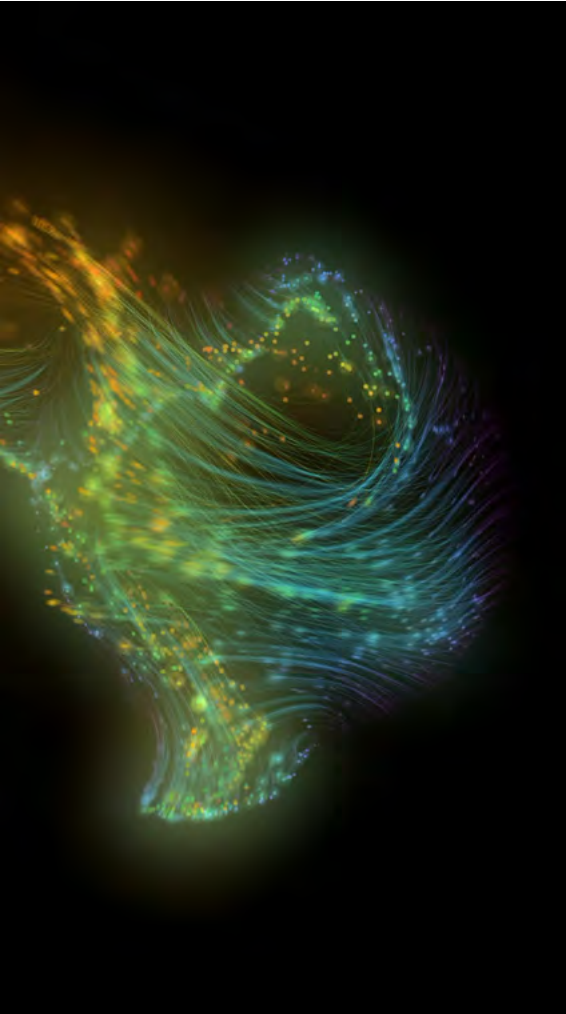
움직이는 기억 50×60cm, Digital print, 2025

박지혜는 프랑스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홍익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국민 대학교 AI 디자인 랩에서 박사과정 중이다. 회화와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구와 작업을 병행하며, 감각과 기술,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서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주요 작업은 시간과 형상의 중첩을 통해 실재와 잠재적 가능성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작가의 회화적 사고가 AI의 잠재 공간과 만나는 지점을 분석하며, 그 결과로 생성된 이미지를 디지털 에스키스(digital esquisse)로 전환한다. 나아가 기술적 생성 과정 속에서 인간의 감각과 가치가 어떻게 다시 중심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며, 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현재 중부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방우송 Bang, Woo Song

「Nature Ball」은 유리 구(球) 속에 담긴 자연의 형상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생명의 순환을 은유한다. 빛나는 구체 안의 꽃, 잎, 물고기는 작은 우주처럼 다양성과 조화를 드러내며, 관객은 자연과 인공의 경계에서 혼란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경험한다.

자연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어 재편집되었으며, 작가는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적 서사를 구축했다. 영상은 생명의 탄생과 소멸, 그리고 순환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Nature Ball 디지털 영상, FHD, 03:30, 2025



방우송은 조선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The City College of New York에서 M.F.A를 취득했으며, 중부대학교에서 영상커뮤니케이션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조각, 설치, 영상, 미디어아트, 애니메이션을 넘나들며 작업해 왔으며, 최근에는 AI와 NFT를 활용한 창작으로 확장하고 있다. 현재 예원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 & 웹툰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광양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총감독으로 국제 교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예술·학문·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수영 Bae Soo Young

나비의 완전변태 과정은 새로운 생명으로의 ‘재장전(Reloaded)’을 상징한다. 번데기 속의 고요한 시간을 지나,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그 변화의 에너지는 인간의 내면적 성장과 닮아 있다. 육체는 그대로지만, 마음과 정신은 매 순간 다시 태어나며 자신을 리로드한다. 빛과 유리, 디지털 영상의 결합을 통해 ‘변화의 찰나’를 시각화하고, 그 속에서 나비의 날개짓은 다시 시작하는 인간의 의지를 상징한다. 이 작품은 끝없이 스스로를 재정의하며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찬가이다.



변태: 빛의 재장전
63×40×40cm, 아크릴레진, LED,
TV 모니터 1대(USB 미디어 설치),
사운드 포함, 2024

배수영은 설치미술가이자 공공미술가로, 오사카예술대학교 예술계획학과 및 대학원 예술제작전공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06년 오사카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국내외 27회의 개인전과 100여 회 이상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LA아트쇼, 캐나다·대만 국제아트페어, 키아프 등에 참가하였다. ‘선플 자원봉사대회’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관념미학어워드’를 수상하였으며, 서울디지털대·숙명여대 등에 출강하였다. 대표 공공미술로는 신촌플레이버스, 서울시청 아리수 파이프&TV, 독도 만세운동 기념비가 있다. LG,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과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으며, 작품은 서울시청, 현대자동차, 오사카 국제병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최근에는 DMZ 통일전망대 대형 설치전시, Mnet<스트릿 우먼파이터3> 트로피,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드 트로피 등 대중문화 영역으로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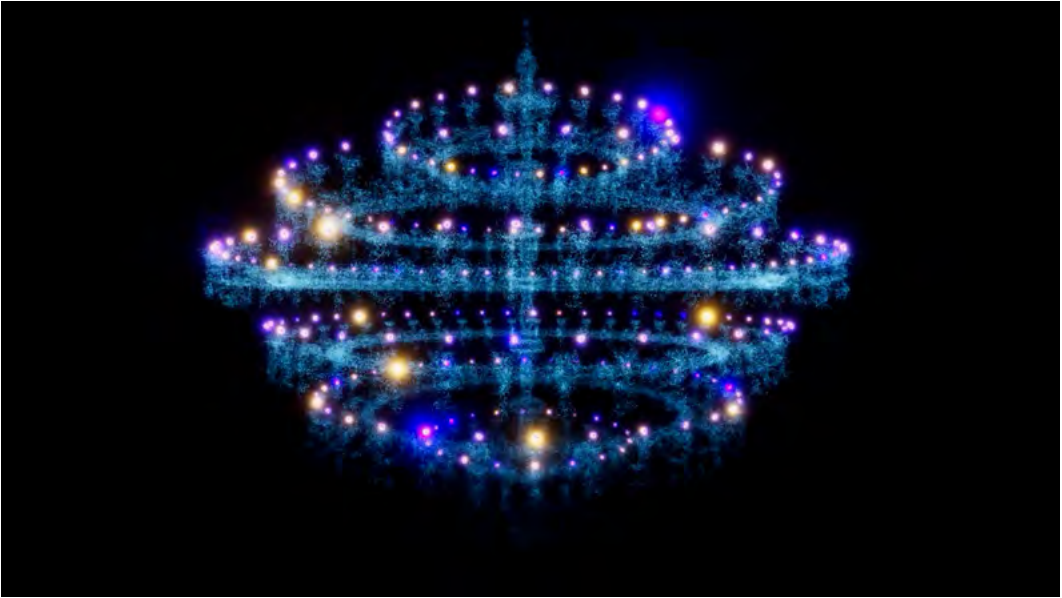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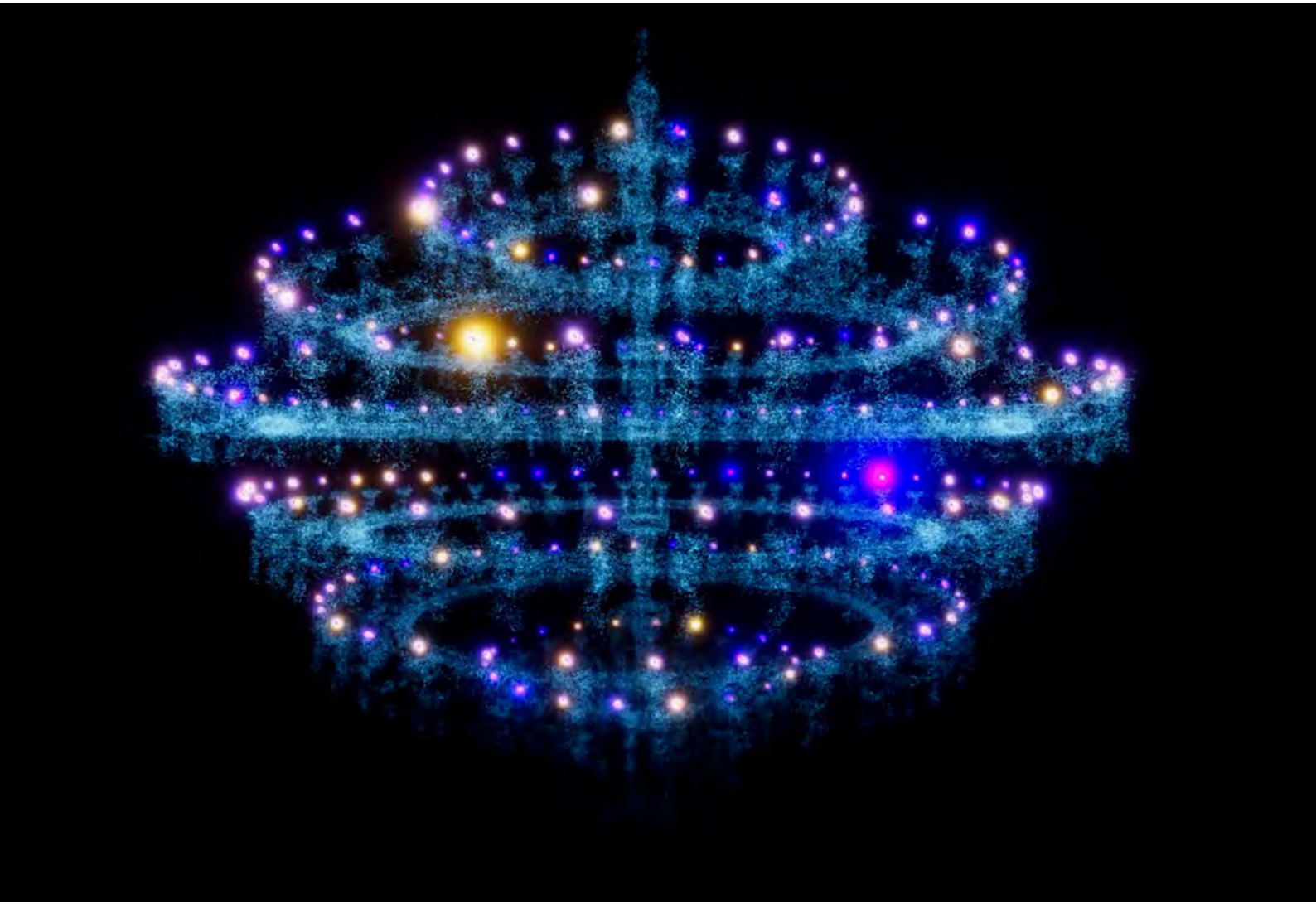


서지현 Seo, Ji Hyun

[生 : Chandelier]는 상들리에라는 오브제를 통해 한 인간의 생애를 시각화하는 미디어 영상 작품이다. 상들리에라는 형태는 장식적이고 화려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밝히는 다각적인 빛의 집합체로서 '생'의 다양한 면모를 은유한다. 각 전구는 개별적 기억과 사건으로 색상과 밝기로 생의 복합적 층위를 드러낸다.

고전 문학에서도 생의 복합성과 비극, 성장의 과정을 강조한 구절이 많다. 예를 들어 “풍요로운 경험과 지식이 인격형성과 자아발견, 그리고 문화의 장을 열어준다”는 맥락에서, 이 작품은 각 기억이 쌓이며 내면의 빛을 완성하는 과정을 시각화한다.

결국 상들리에라는 오브제를 통해, 작가는 생이란 찬란함과 어둠, 고독과 환희가 한데 모여 비로소 그 총체적 의미를 획득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生 : Chandelier」은 등불과 어둠이 교차하는 복합적 존재로서의 삶을 미적으로 드러내며, 상들리로 작업을 해온 예술적 거장들이 고민해온 생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生 : Chandelier Single Channel Video, 30 sec, 2025

서지현 작가는 홍익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외래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민대학교 스마트경험디자인학 석사와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작가는 AI, 데이터, 인터랙션 등 다양한 IT 기술을 예술적 표현에 접목하여 미디어아트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기술을 통해 관객이 작품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몰입형 경험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와 감성적 미학을 동시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전시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ReflectSpace에서 열린 〈Reimagining Algorithms: Cultural Heritage in the Age of AI〉(2025),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Stop! Cyber-bullying〉(2025, Plas 조형아트서울), 김포 아트홀의 〈다양성: 존재와 존재 사이에서〉(2024), 서울 APY갤러리의 〈Cyber-bullying 3〉(2024) 등이 있으며, 정문규미 술관의 〈Meta Zero KMAA 전시〉(2023), 성북아트재단의 〈여성인권 미디어아트 행진 2022〉, 국립극장의 〈빛을 담은 정원〉(2021), 수원화성행궁의 〈세계유산축전 전시〉(2021) 등에서도 작품을 선보였다.

송은성 Song, Eun Sung

‘침묵의 모양 The Shape of Silence’은 소리의 부재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감정의 흔적을 시각화한 영상 설치 작품이다. 이 작업은 얼굴, 숨, 손끝의 떨림처럼 미세한 인간의 감각을 추상적 진동과 빛의 파동으로 변환한다. 빛과 공기, 먼지, 섬유의 미세한 움직임이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며 보이지 않는 소리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작품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의 충위를 다루며, 침묵이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감정의 가장 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소리를 ‘듣는’ 대신, 공기의 진동과 빛의 흐름 속에서 감정이 시각적으로 울리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 침묵은 부정이 아니라, 감정의 또 다른 언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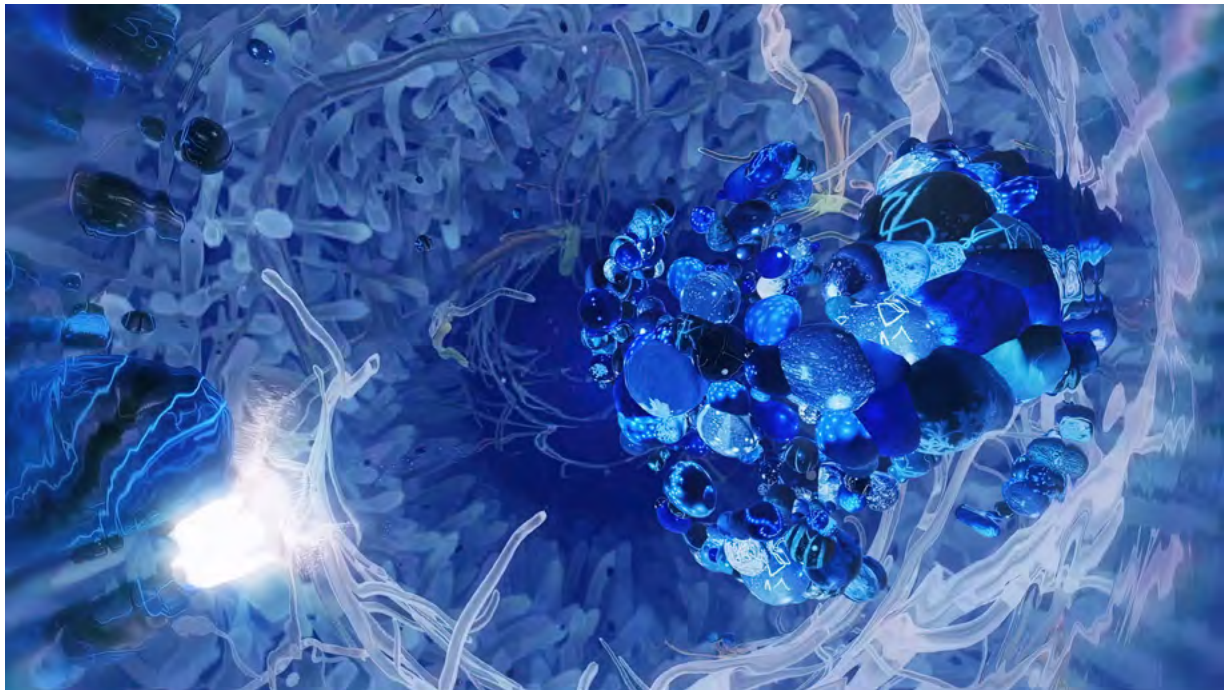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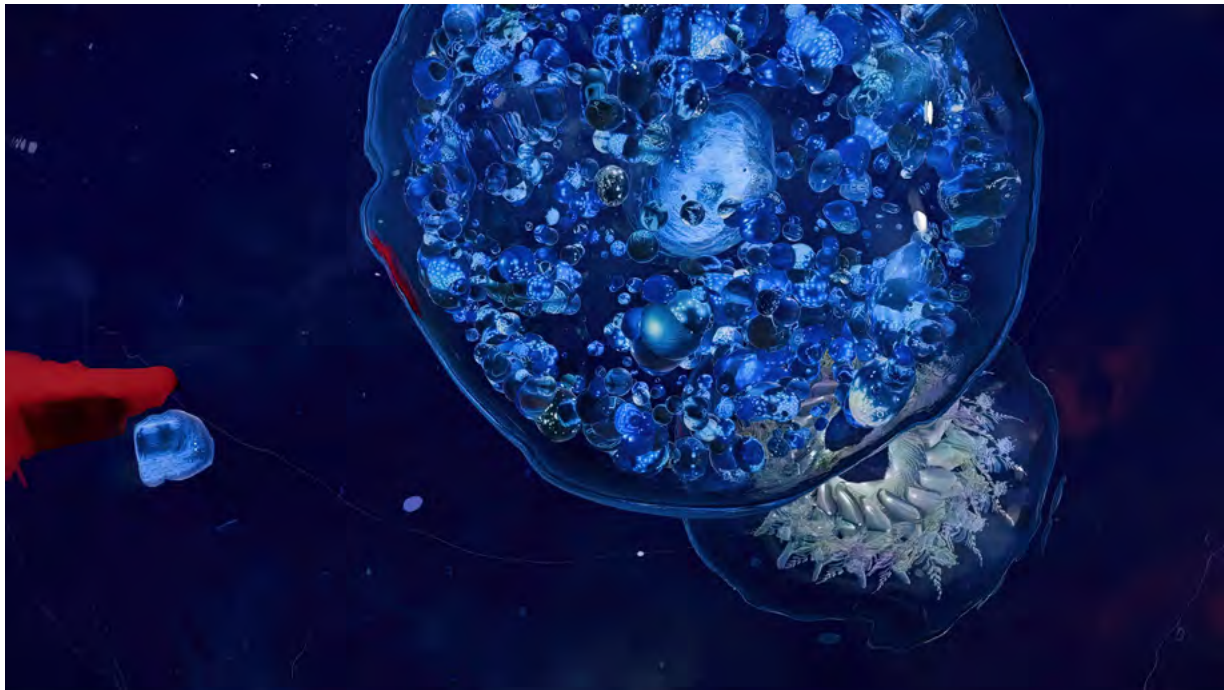


침묵의 모양 Single-channel video, 1분30초, 2025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서강대학교 예술공학 박사
2025 <SONIC INK 개인전> 한옥갤러리 1912, 광주, 한국 / 2024 <광주 센서리엄: 미디어아트> 무등 현대미술관, 광주, 한국 / 2023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미디어아트전: 공허함의 물질성> 김제문화예술회관, 전북, 한국

송창애 Song, Chang Ae

《Water Odyssey 거울》는 물의 파동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존재의 원형과 인간, 자연, 사물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영상 작품이다. 작품의 부제인 ‘Mirror’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동질성, 즉 인간과 자연의 본성을 매개하고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고리를 은유한다. 이 고리를 꿰는 ‘물꽃’은 육안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내면의 파동 에너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인간의 보편적 생태 감수성을 나타낸다. 회화의 본질과 힘에 관한 오랜 탐구를 토대로,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의 조화로운 융합을 통해 실제와 가상, 아날로그와 디지털, 물질과 비물질이 혼재하는 동시대의 모호하고 불확실한 경계 속에서, 자기 내면과의 대면을 통해 존재의 원형과 관계의 의미에 대한 시적 상상력과 인문적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공감각적 미적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Water Odyssey 거울 3D 영상, 02:45", 2025
사운드: 원일, 기술협업: 이창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박사 (동양화) / 오리곤 대학교 Painting & Drawing 석사 (Univ. of Oregon, 미국)
2025 <오 하나 인피니티, 소환된 미래 기억>,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전관), 광주 / 2025 <SET: 별, 몸, 구의 순환전 생태>, 아트리움 모리(갤러리 올림), 성주 / 2023 <MIMESIS SE 18: The Opposite Site>,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파주 / 2023 <WATER ODYSSEY: 거울>, Gallery Kki, 파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 지원사업) / 2022 <WATER ODYSSEY: 코라>, Goodspace, 대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 지원사업)
2025 <정려靜慮, 고요히 흐르고 깊이 스미는>, 천안시립미술관, 충남 천안 / 2024 <사건의 지평선: 현암 마을>, 문화체육관광부X아트포럼리, 판교극장, 충남 서천 / 2024 <디어 바바노냐: 해양도시 속 혼합문화>,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1전시실,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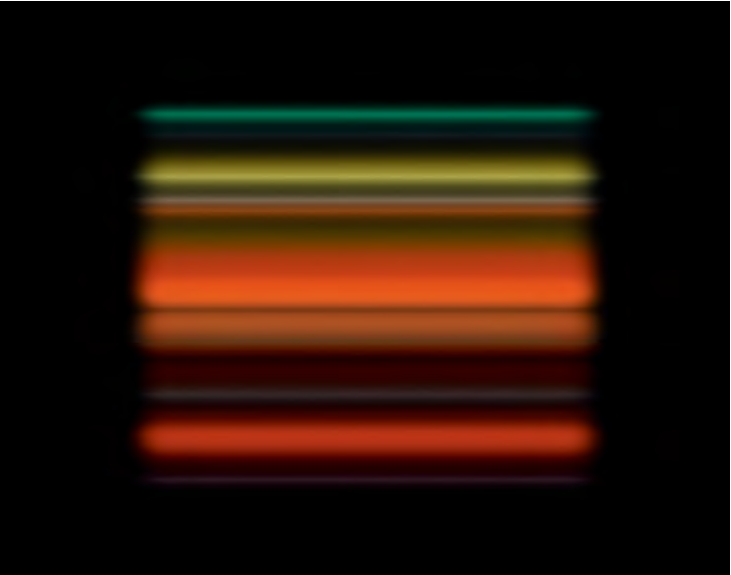
신 주 혜 Shin, Ju Hye

Rhizomata-II / 물, 불, 공기, 흙 (Élément, disposition, superposition 요소 배열 중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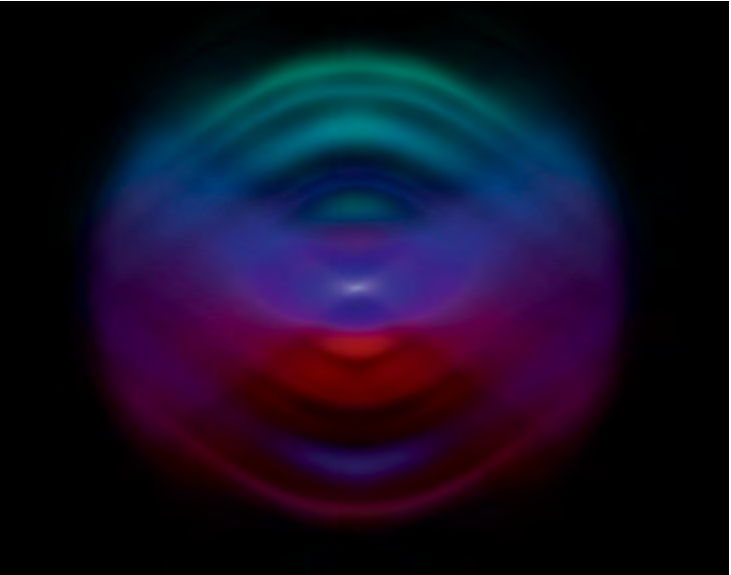
‘배열’(disposition)은 같은 타입의 변수들로 이루어진 유한 집합이고 배열을 구성하는 각각의 값은 ‘요소’(élément)로 정의된다. 디지털 이미지로 표현 가능한 ‘빛의 속성’ 그 자체를 단위 요소로 설정하여 가공하였다.

상대적 밝기, ‘중첩’(superposition)으로 인한 점점과 축의 형성, 디지털 알고리즘에 의한 면적의 상호 침투는 ‘빛’과 ‘움직임’이라는 정체되지 않은 비물질적 매체에 방향성과 연속성을 부여하고, 표현방식과 영역을 확장한 가공된 빛은 화면 공간 속에서 ‘환영적 사실’에 도달하기 위해 새로운 빛의 개념으로 이 행된다.

자연이 방정식의 총합이라면, 기술적 상상력을 장착한 호모 루덴스(Homo Ludens)들에게는 꿈꾸는 가상, 즉 디지털 ‘가상’이 ‘현실’이 된다.



Rhizomata-I, 단 채널 영상, 크기가변, 4분 15초, 2023



Rhizomata-II, 단 채널 영상, 크기가변, 03분 42초 03, 2025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학과 졸업/ 프랑스 마르세이유 국립 고등 미술학교 졸업
개인전 10회 및 단체전 70여회(국립 현대 미술관, 3-15 아트센터, 성남 아트 센터 등등)
강의 경력 (조형예술) : 이화여대, 수원대, 강원대, 상명대 / (영상) : 영상미디어센터, 영화 진흥 위원회 영상인력개발센터, 아르코 예술 인력 개발원
미장센 영화제 트레일러 제작 / Art Festival ‘ Lumière 0,0,0’ 전시 총기획 / 연극 ‘자라목 이야기’ 영상 감독 등

Je suis une forêt -1.2.3. 72.7×53.0cm, Digital printing, 2022



신혜경 Shin, Hye Kyung

〈이상하고 신기한 세계〉

미시세계의 이상하면서도 신비로운 세상을 들여다보면 생명의 원천인 우주와 빛, 꽃은 나와 동일하다. “우주, 빛, 인간, 꽃은 같은 것이다”라는 양자물리학적 설명은 감각으로 세계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세상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양자 세계는 인간의 눈에는 모순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 세계는 우리를 포함한 전 우주를 이해하는 데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불확정성’이라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답을 제시한다. 이런 ‘무작위성’으로 움직이는 체계 속에서 태어난 나는 저 우주 밖에도, 지금 여기에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번 작품은 양자의 신비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우주와 빛(스펙트럼), 그리고 우연처럼 필연 같은 생명인, 꽃에 영감을 받은 시리즈이다.



Untitled 91×73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Untitled 91×73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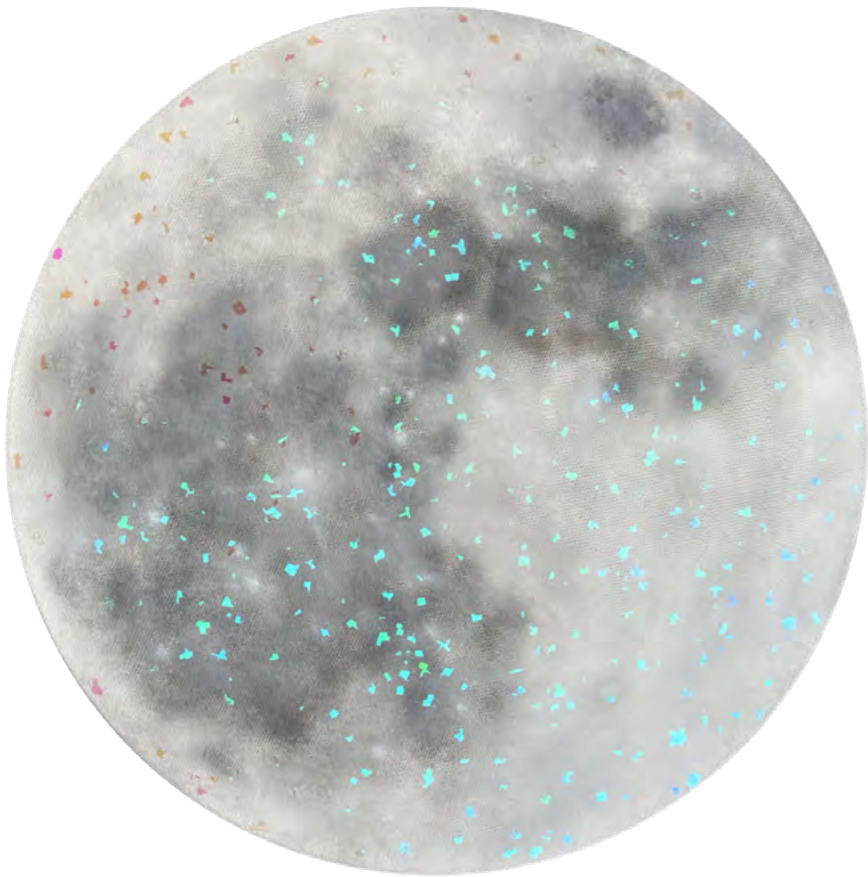


우주와 빛 Universe & Light 117×91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프랑스 Aix-en-Provence 에콜데보자르 DNSEP 석사 / 프랑스 파리 제8대학 조형 예술학 학사, 석사, 박사
2025 김리아갤러리 2인전 / 2024떼아트갤러리초대전 / 2024-2023 MAF, 움직이는모순 초대전 / 2023 Saatchi THE OTHER ARTFAIR, Los Angeles, CA, USA / 2023 갤러리 밀스튜디오 초대전 / 2012 한아세안 총괄기획 / 2011 대구시 청년미술프로젝트 총괄예술감독 〈Future Lab〉 / 2010 한아세안 총괄기획 / 2010 대구사진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 2009 1회 인천 디지털아트페스티벌 수석큐레이터 / 1998 수원대학교 산업미술과교수 / 1996 선재미술관 큐레이터

오승아 Oh, Seung Ah

보름달이 뜨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달이란 절대적 혹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다. 처음에는 이 불면 상태를 단순한 생리적 현상으로만 인식했다. 하지만 실존주의 철학이 태동한 프랑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나는 점점 이 현상의 의미를 찾게된다. 보름달은 나를 지배한다.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나를 압도한다. 두렵지만 긴밀하다. 매일 변하는 달의 색과 크기를 관찰한다. 어떤 특별한 날의 보름달, 그 달의 색과 크기에 따라 내 감정이 요동친다. 달을 그린다. 어느덧 달은 나의 본질이 되어버렸다.



Epiphany Moon_grey ø30cm, mixed media, 2025

파리-세르지 국립예술학교(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 de Paris–Cergy, DNAP France), 파리 8대학 조형예술학과 석사 수료(Université de Paris 8, Art plastiques, France),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
〈Lost Moon〉갤러리온, 2025 / 〈Full Moon〉산울림 아트앤크래프트, 2024 / 〈너는 빛이라서 좋겠다〉누아갤러리, 2022 / 〈사람들〉학아재, 2020 / 〈Miracles of Dystipia〉이정아 갤러리, 2019 등 11회 개인전 및 150여회 그룹전



Inner circle of Moon 3mn 55sc, video,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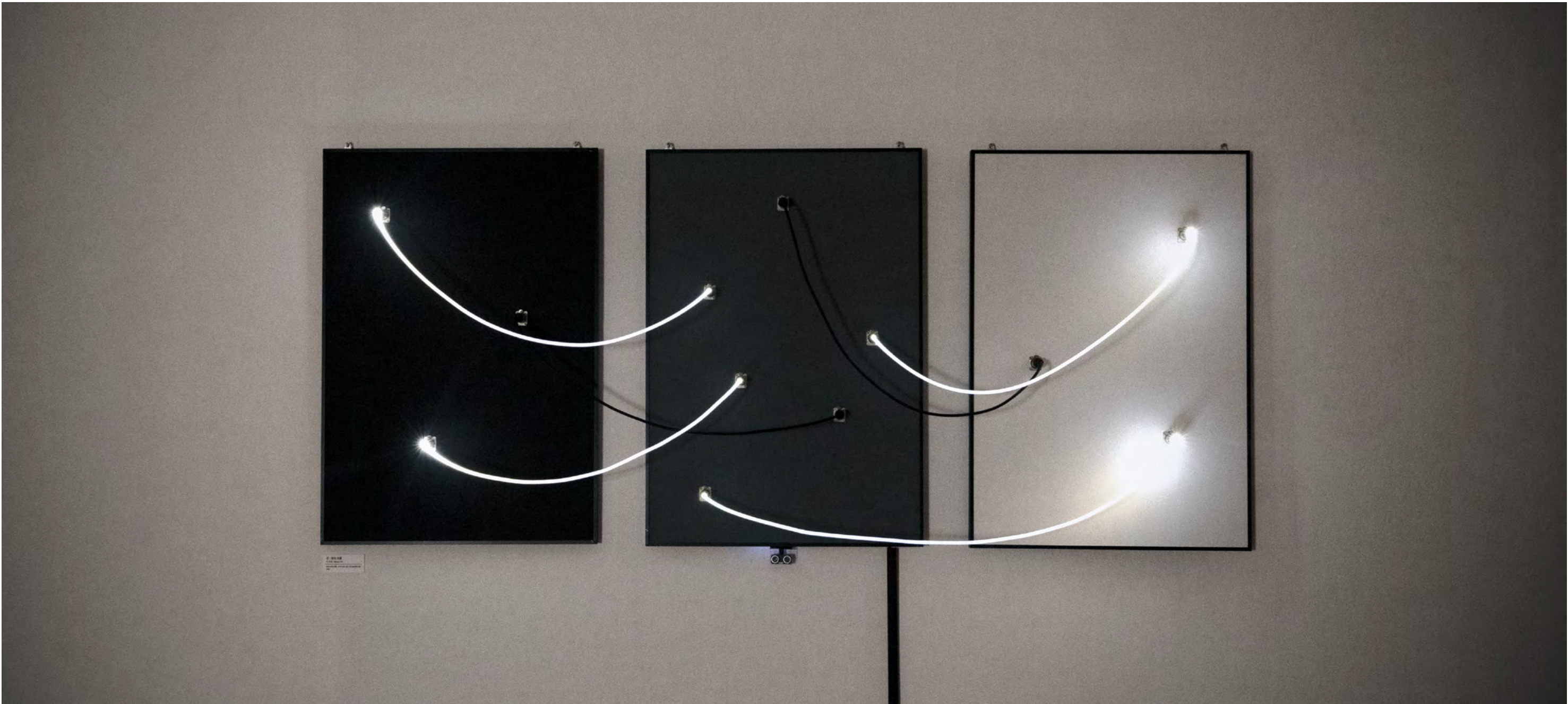
Indian Full Moon-turquoise
72.7×72.7cm, mixed media, 2025

오 지 현 Oh, Ji Heon

끈은 단순히 묶는 도구를 넘어 삶을 관통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생명의 끈이나 동아줄처럼 불안을 내포하기도 하고, 흥연이나 돌잡이의 실처럼 희망과 연결의 의미도 갖는다. 이처럼 끈은 단절과 연속, 불안과공정을 동시에 품으며 보이지 않는 삶과 인연을 꿰매는 매개로 작동해왔다. 작품 「끈: 빛의 흐름」은 끈을 삶과 삶, 작품과 관객을 잇는 언어로 재해석하며, 단순한 전도체가 아닌 빛과 소리의 흐름을 결합한 감각적 구조로 구현한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당겨지는 끈이며, 이는 존재와 관계의 형이상학적 긴장을 확장시킨다.

오지현은 미디어아트와 음악을 기반으로 보다 확장된 예술적 표현을 탐구한다. 단순한 형식을 넘어 예술의 본질이 무엇이며, 감각과 정서, 존재와 연결되는 방식은 어떠한가를 질문하며, 기술적 수단을 도구로 삼되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성과 예술성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끈: 빛의 흐름 String : Light Flow 200×100×10cm, LED, Speaker, Sensor, 2025



오 태 원 Oh, Tae Won

Drops Poétique(시적인 드롭스) 작품은 정지된 드롭스 위에 초월적인 시간성을 부여하여, ‘같은 시간 속의 다른 공간’, ‘다른 시간 속의 같은 공간’이라는 시간의 흔적, 순간의 울림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다.

멈춰 있는 오브제나 풍경과 시간 레이어를 입혀, 평면적 이미지를 입체적이고 시적으로 구현한 작품이며, 서로 다른 시간성과 공간감을 동시에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멈춰있는 드롭스와 주위 배경의 오브제들이 잔잔하게 움직이는 정적인 장면 위에 시간의 경과와 변화가 덧입혀져 신비롭고 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관객에게 평범한 일상이 가진 미세한 변주와 감성적 울림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Drops Poétique는 일상의 풍경에서 느끼는 감정, 사소한 변화의 순간, 시간의 연속성에서 찾는 시적 영감을 영상작품의 출발점으로 삼아, 관객에게 작은 변화와 감성의 중요성을 공감하고자 하는 실험적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Deops Poetique 2-1 120×70cm, media art still cut, Diasec, 2025



Deops Poetique 2-2 120×70cm, media art still cut, Diasec, 2025



Deops Poetique 2-3 120×70cm, media art still cut, Diasec, 2025

오태원 작가는 프랑스 파리 제8대학 조형예술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마쳤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시각디자인 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8년부터 호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후학양성과 더불어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작가의 예술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오태원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Drops(드롭스)’로 다양한 평면작업 이외에 조형작업, 영상, 미디어아트, 야외 설치 및 대형 설치작품 등 2개 이상의 복합매체로 ‘드롭스’의 이야기를 구현하고 있다. 작가의 시그니처 형상인 ‘드롭스’는 단순한 조형적 장치를 넘어 시간성과 내밀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형상으로, 개인적 정서에서 사회적 감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유를 담아낸다. 작가는 이를 통해 판타지적 공간을 구현하거나 왜곡된 입체적 형식을 선보이는 등 독창적인 설치와 미디어아트 작업으로 관객을 사유의 장으로 이끈다.

오태원의 ‘드롭스’는 다층적인 이야기와 철학적 성찰을 품은 예술적 장치로, 현실과 이상, 개인과 사회를 잇는 유연한 매개체로 자리하고 있다.

윤 무 현 Yoon, Moo Hyeon

〈내면의 프랙탈 -Fractals of the Inner Self〉은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와의 끊임없는 조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의 무한한 변주곡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과학과 AI 영상을 결합한 미디어 아트로 탐구한다. 우리 내면의 심연에는 아직 명명되지 않은 미지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고, 우리는 때론 가장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공포의 비정형적 패턴에 사로잡히곤 한다. 이 작품은 그 근원적인 심리적 지형을 AI의 알고리즘적 통찰력과 칼 심스(Karl Sims)의 생성형 미학을 통해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시도이다. 관객은 심리적 매체에 이입하여 외부 세계의 자극과 그에 대한 내면의 복합적인 반응을 동시에 경험하며, 자신의 존재론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성찰하는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기술과 생명, 과학과 심리학, 현실과 내면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내면의 프랙탈'을 마주할 것이다.



Reloaded-Destruction Graphic Design×Nano banana, A1 size, 2025



내면의 프랙탈-Fractals of the Inner Self 미디어 아트, 1920×1080, 2:30, 2025

윤무현 작가는 국민대학교 AI디자인랩 디자인학 박사이며,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에서 시각영상디자인 및 문화예술경영에서 강의를 통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작가의 세계관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재구성하는 현실과 가상의 다중 경계에서의 발현을 통한 초공간적 (Hyperspatial) 데이터 아키텍처를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제약으로 초월하는 것을 작품화하여 관객에게 몰입형 인지 경험을 제공한다. AI가 지닌 잠재적 미학을 끊임없이 탐구하며, 미디어 아트와 AI 디자인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탐구한다.

윤애영 YUN Aiyoung

윤애영의 비디오 작업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체험한 자신의 신체적 기억을 콜라주하며, 20여년간의 해외 생활 속에서 형성된 혼합 정체성을 탐구한다. 그녀는 영상 매체의 본질인 ‘빛’을 비물질적 물질로 확장하여, 공간 속에서 직접 발산되는 설치적 구조로 구현한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버블은 시간 속에 살아 숨 쉬는 존재의 호흡을 상징하고, 변화하는 빛의 파장은 삶의 유동성을 노래한다. 여러 도시의 불빛이 뒤섞인 화면은 우주적 코스모스처럼 펼쳐지며, 관객의 개입에 따라 색과 형태가 끊임없이 변주된다. 그녀의 사진 작업 또한 이러한 빛의 산포를 포착하여, 영상 매체가 지닌 자기반영적 속성을 드러낸다. 멀티미디어 설치는 시적이면서도 명상적인 공간으로, 관객을 빛과 물의 에너지가 교차하는 세계로 초대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현실의 중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식의 흐름 속을 유영하게 된다.

우리 삶의 시간여행 안에서 발견된 기억의 흔적들은 파동의 에너지로 응축되어, 빛의 물결로 이어진다. 결국 그녀의 작업은 시간속에 존재하는 기억과 존재의 흔적을 ‘빛의 언어’로 시각화하는 행위이며, 이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내면적 사유의 여정을 제시한다.

시간정원 Time Garden 비디오, 4m42, 2024



Time Garden Installation, 2024

윤애영(충주,1964생)은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파리 국립보자르((ENSBA)와 파리8대학교에서 석사를 졸업한 후 파리와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화, 설치, 비디오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존재와 감각, 빛의 관계를 탐구한다. 90년대 이후 파리에 거주하며 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 국립현대미술관, 스페인 바로셀로나 메트로놈 파운데이션 초대개인전 등과 프랑스 국제 아트페어 피악(FIAC), 스페인 아르코(ARCO), Art Paris 국제 아트페어, 광주비엔날레, 클레르몽페랑(Clermont-Ferrand)의 국제 비디오 페스티벌, 파리 라뉴 블랑슈(la nuit blanche) 같은 많은 국제 전시회와 여러 국제 비엔날레에 참가했다. 파리 카르나발레 미술관에서 파리지 2천년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3차원의 파리(Paris en 3D) 등 여러 전시에 초대되어 활동하고 있다. 97~99년에 삼성문화재단의 후원작가로 선정되어 파리 삼성 아뜰리에 레지던지에 입주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기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며 국제적 활동을 이어왔다.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프랑스 국립 FNAC 콜렉션, 요하네스버그 린다고윈 파운데이션, 룩셈부르크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경 호 Lee, Kyung Ho

《삶과 죽음, 예술과 자본》Life, Death, Art, and Capital Performance Works 1988~1991

이 시기의 퍼포먼스는 작가가 프랑스로 건너가 예술, 인간, 사회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질문하던 시절의 기록이다. 그의 행위는 삶과 죽음, 예술과 자본, 인간과 기계의 경계에 대한 철학적 실험이었다. 냉전이 끝나고 자본주의 소비사회가 급속히 확장되던 1980년대 말, 작가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사라지는 인간의 감각을 ‘육체의 저항’으로 표현했다.

《Tomber / Tombe》(1988, Paris) — ‘떨어지다/무덤’이라는 이중 의미를 지닌 제목처럼, 중력과 저항의 경계에서 맞서는 장면을 시각화했다. 《La Vie II - IV》(1989, Dijon) — 욕조 속의 몸, 젖은 피부, 부서진 기계 부품 등으로 구성된 장면은 자궁이자 무덤을 삶이 자본의 순환 속에서 소모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First Step》(1989, Paris) — 벽 위를 걷는 몸을 통해 불가능과의 대면, 중력에 대한 도전, 인간의 첫걸음이 내포한 불안을 표현했다. 《Informance》(1991, Paris)은 installation과 performance의 합성어로, 퍼포먼스 이후 남겨진 설치물을 함께 전시한 작업이다. 작가는 약 2.5톤의 소금과 13대의 청소기를 활용해 예술과 자본의 순환, 노동과 소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이 시기의 퍼포먼스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천 개의 고원』이 말하는 ‘되기(Becoming)’와 리즘적 사유와 맞닿아 있다. 예술가의 신체는 고정된 정체성으로 기능하지 않고, 기술과 자본, 죽음의 교차점에서 인간 존재를 재정의하는 존재로 기능한다. 1988~1991년 프랑스 시기의 퍼포먼스는 이경호 예술의 근원이자, 이후 미디어아트와 생태철학적 사유로 확장되는 출발점이었다.

“예술은 생과 사의 경계를 건너는 몸의 언어다.” — 이경호(Paris, 1991)



Tomber Tombe 1988



1989 PARIS Centre Pongpidu Petit salle

1987년부터 2000년까지 프랑스에서 활동. 귀국 후 미디어시티 서울, 광주, 금강, 상하이, 세비아, 세네갈 비엔날레, 창원 조각비엔날레, 부산 바다미술제, 슬로베니아 뉴블리아나, 타이페이, 상하이 두오룬, 중국 사천 미술관, 독일 Z.K.M 아시아 현대 미술제, Tamarindo Art Wave Festival 코스타리카, 광안 야외미술제 등 에서 전시.



La vie II 1989 Dijon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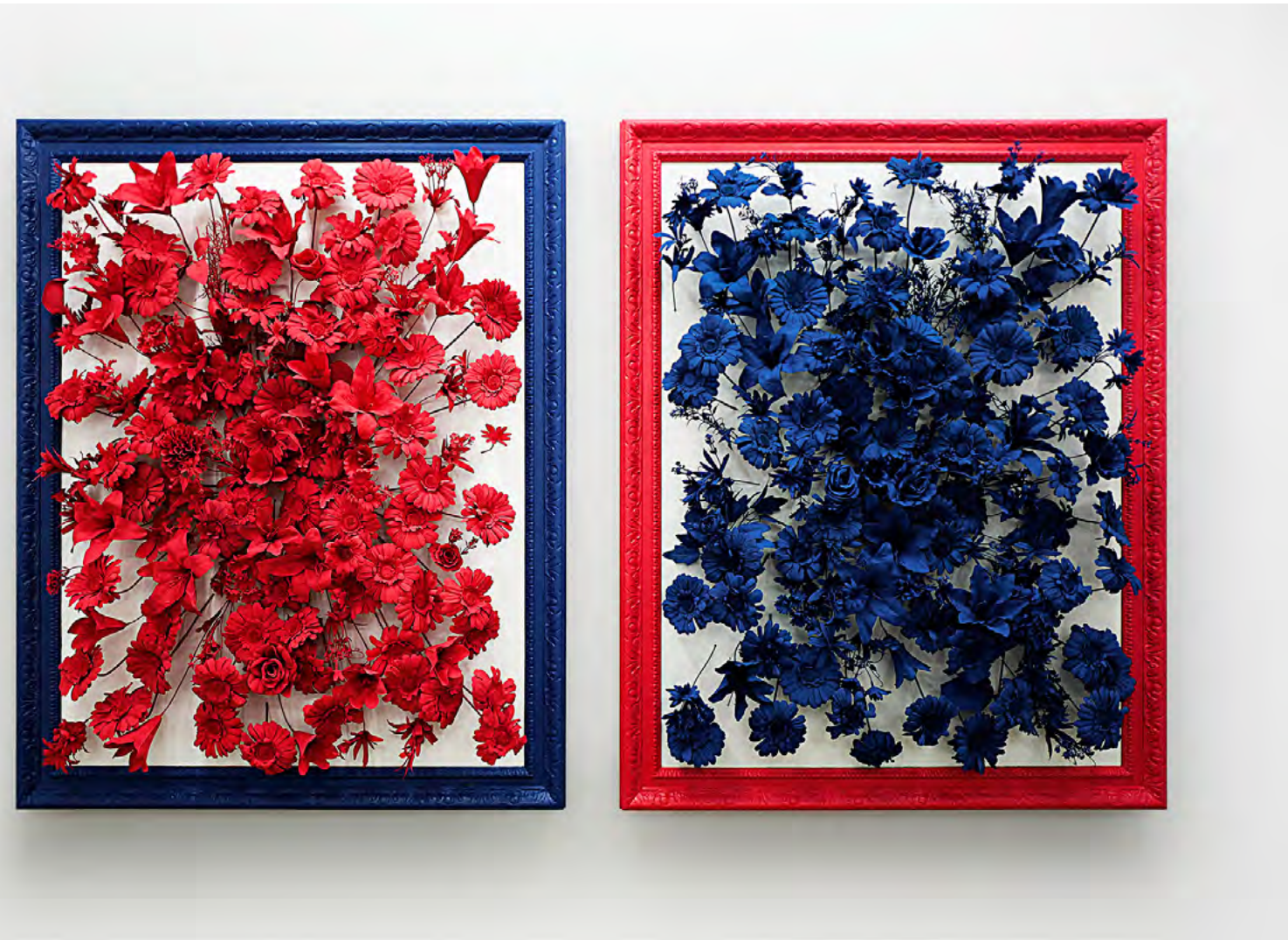


La vie IV 1989 Dijon France

이 돈 순 Lee, Don Soon

지난겨울, 나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쏟아진 수많은 시위용 조화를 수집했다. 시민의 지지와 분노가 뒤섞인 그 인공의 꽃들은 한때 권력의 풍경을 장식했던 흔적이자, 사회의 감정이 응결된 물리적 증거였다. 나는 그 꽃들을 해체해 흰색 장례용 조화로 재구성했으며, 〈꽃가방〉을 만들어 메고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용산 일대를 군중과 뒤섞여 다니면서 삶과 권력이 교차하는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빨간색 꽃과 파란색 꽃이 맞닿아 상반된 프레임 안에서 교차하는 작업 〈사물동맹-조화(造花)의 반란〉은 권력과 생존의 욕망이 빚어내는 이분법적 정치 지형, 그로 인한 왜곡된 사회 현상의 구조적 모순을 함축한다. 동시에 경직된 현실 공간에 내던져진 도구적 사물의 형식을 해방하여, 고립된 규칙을 넘어서 새로운 관계와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 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사물동맹-조화(造花)의 반란 Alliance of Objects-Rebellion of Artificial Flowers
125×100cm, 나무 패널 위에 캔버스 천과 프레임,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수집한 조화, 수성 물감, 2025



꽃가방 Flower Bag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수집한 조화, 버려진 가방, 수성 물감
광화문광장 퍼포먼스(사진, 영상 기록), 2025

이돈순은 못과 망치를 이용한 ‘못 그림’(철정화화鐵釘繪畫)으로 인간과 자연을 둘러싼 삶의 이야기를 표현해 왔으며 도시, 환경 등 일상의 현실 문제를 작업의 모티브로 삼아 다양한 장르와의 통섭을 시도한다. 성남 원도심에 자리한 오픈스페이스 블록스를 중심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미술로 기록하며, 공공미술 관련 작업과 기획을 병행하고 있다.

2023~2 ‘천川의 마을’_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 공공예술사업) / 2022~1 아트 매치-매시업 Art match-mashups(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창작사업) / 2021~20 팝업아트 성남 Pop-up Arts Seongnam(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공공미술 프로젝트) / 2019~17 에코밸리커튼 EcoValley_Curtain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을 기획, 작가로 참여했다.

이 돈 아 Lee, Don Ah

정조의 책가도는 시간이 흘러 서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민들에게 옮겨가며 갖은 욕망을 담게 된다. 책 뿐 만 아니라 화려한 물건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권력적 존재감의 과시와 물질을 억압하는 시대의 표출 방법으로 해석된다.

본 영상작품은 책가도가 현재에서 오버랩 되어 욕망이 가득 찬 빌딩으로 변화되고 진화된 욕구가 또 다른 부흥으로 안정과 행복을 예고한다는 것을 비유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길상의 요소들은 각각의 부귀영화, 행복, 영원함의 상징성을 갖고 인간의 욕망을 증폭시킨다. 또한 기하학적인 도형들은 현재를 상징하며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작가의 코드이다. 어떤 욕망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한 영상 작품은 인간 욕망의 부정적 측면보다 생존과 발전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時空連續體 Space Time Continuum 3분06초, video, dimension variable, 2020

이돈아는 전통과 현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나들며, 회화·렌티큘러·미디어아트·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역사·문화·자연·도시·인간·기술을 서로 직조한다. ‘algorithm’과 ‘allegory’의 방식으로 한국의 heritage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문화·역사적 유산을 작품 속에 도입해, 그것들이 동시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지금 내 곁으로 살아 돌아오는 순간을 창조한다. 이러한 시공초월적 회귀는, 시대와 장소를 넘어 인류 보편의 소망이 동일하게 흐른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폴란드, 체코, 프랑스, 캐나다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전시를 열었으며, 한국의 경기도청사, 서울 동작구청, 올림픽스포츠클러스 등 대형 공공미술 설치와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Glendale Commendation(미국, 2024), 제12회 서울시 좋은 빛 상 미디어부문 최우수상, 제2회 중앙미디어아트공모전 대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지닌 작가의 작업은, 전통과 세계 문화유산이 만나 형성하는 알고리즘적 풍경 속에서, 문화적 기억과 인간의 소망을 새로운 예술 언어로 재구성한다.

이 이 남 LEE LEE NAM

작품 <맹호도>는 김홍도, 강세황의 ‘송하맹호도’ 속 호랑이를 소재로 낮과 밤, 계절이라는 시간 개념을 설정하고, 한자의 움직임에 헬기의 사운드를 입혀 고전과 현대적인 소재를 접목하였다. 작가는 선대 화가들이 느꼈던 호랑이의 웅맹함을 디지털 속 가상현실 공간에 생생하게 담아냈으며 고전회화와 현대적 디지털 기술의 만남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에게 새로운 가치와 흥미를 부여한다.

맹호도 The Tiger under a Pine tree
2009 / 2022 LED TV, single-channel video, sound, 5min 30sec



이이남 작가는 전남 담양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조소과를 졸업 후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영상예술학 박사과정 수료,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벨기에, 중국, 독일, 카타르, 뉴욕, 싱가포르, 파리, 런던 등 국내외에서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2016년 부산 비엔날레에서 작가로서는 최초로 Google의 VR 틸트 브러시(Tilt Brush) 기술을 접목시킨 협업전시를 선보였으며, 같은 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전시를 진행해 관람객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19년에는 테이트모던에서 초빙전시를 진행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장에 디지털병풍 ‘평화의 길목’을 선보이며 남과 북의 분단역사의 경계지점에서 검재정선의 금강전도 위에 공존과 평화, 소통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재형 Lee, Jae Hyung

사회 시스템이 가지는 불안전성과 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성에 주목합니다. 그의 작품은 마치 사회 시스템 내부에 결핍, 부조리로 인해 생긴 틈을 발견하고 이를 감성적인 요소로 채워 완전하게 만드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오브 시티〉는 도시의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정보 시각화(data visualization) 프로젝트입니다. 이재형은 지역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매개체인 ‘언어’ 데이터를 토대로, 수많은 SNS를 분석하여 감성의 근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얼굴의 모호한 표정으로 드러냅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분류되고 단계적 가중치가 적용된 언어의 섬세한 감성 정보 혹은 주관적인 정보는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하며 관람객을 마주합니다.



기계즉흥곡
가변크기, 피아노, 수조,
PC , 물고기, 2017



희망아래서
10000×5000×3000
FRP, LED, PC,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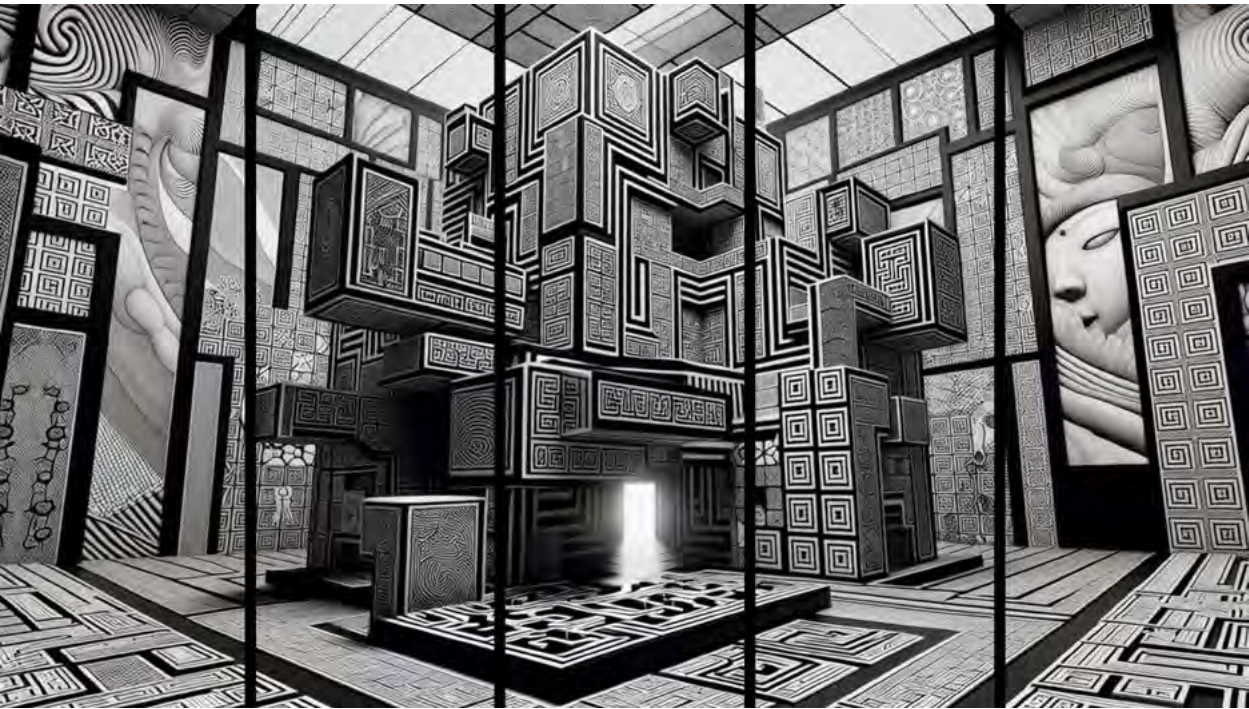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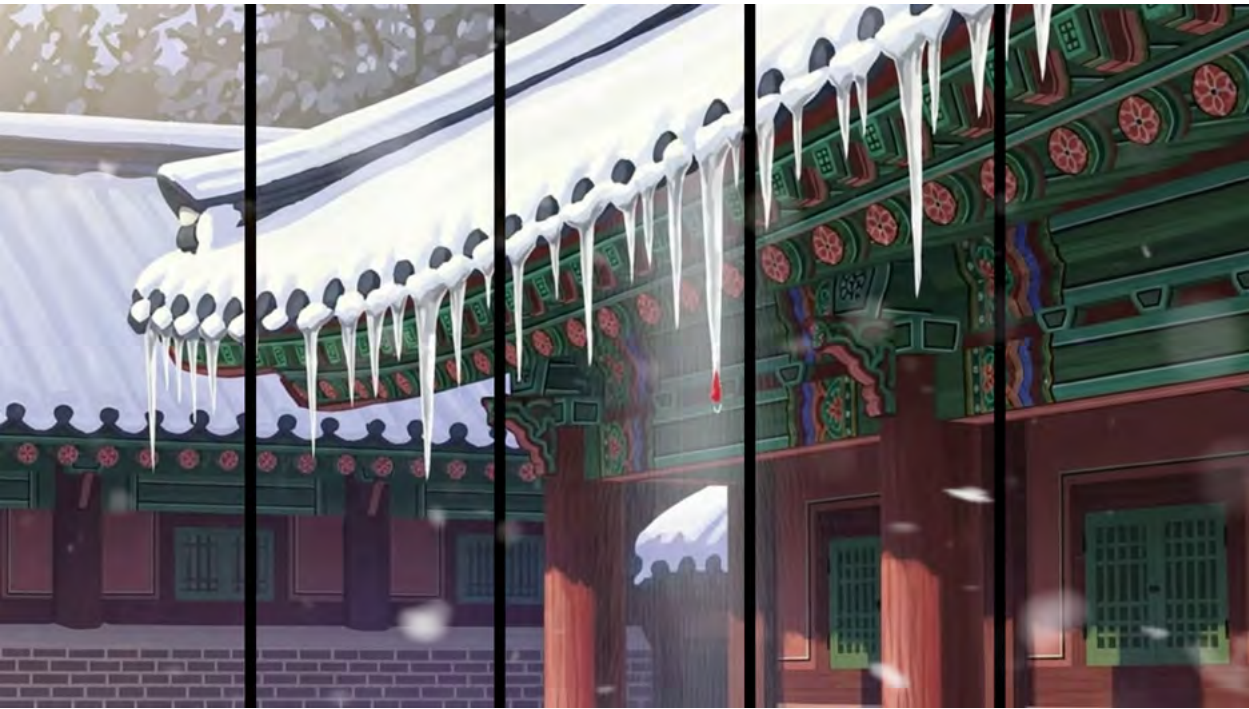
Face of City_Seoul 55인치 LCD, 싱글채널 영상, 2020

이재형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아트 작가이다. LED, AI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프로젝트성 작업을 하고 있으며 공공미술을 기반으로 하는 Bending matrix 와 Face of City, 기계즉흥곡 등과 같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왔다. 제주국제공항의 고래 형상의 LED 조형물 ‘희망아래서’가 대표적이며 몬트리올 일렉트라 디지털 아트 비엔날레 2024, 언폴드 X 2020 , 서울 라이트 2020, 시그라프 아시아2017, CES 2017 코웨이관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미디어아트 전시를 해왔다.

이 종 호 Lee, Jong Ho

이 작품은 한국 전통의 시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과 현대 미디어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결합하여, 전통 문화가 정체된 과거가 아닌 살아있는 현재의 예술로 기능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관객들이 익숙함 속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 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는 2025년 국립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 2025



한국 전통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제작 Creating media art using Korean traditions
192×108cm, 02:46, 사운드, 2025

2025 국립공주대학교 게임디자인학과 부교수 / 2023 유한대학교 애니메이션영상학과 학과장, 평생교육원장
/ 2007-2018 서울호서전문학교 애니메이션학과 학부장 / 2004-2007 게임하이 (현재 넥슨) 서든어택팀 근무 / 2003-2004 ㈜디지털커뮤니케이션 그래픽 디자이너
2025 중국 국제디자인작품교류전 한국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 2024 2024제1회 한국게임학회 국제디지털 아트초대전 / 2024 1회 국제애니메이션아트페어(사)한국애니메이션아트페어 / 2024 algorithm KMAA 미디어아트협회 공식 전시회 / 2024 국립공주대학교 예술대학 교수작품 초대전

이 종 호 Lee, Jong Ho

“창의의 경계, 그 내적갈등에 대하여 ”

작가는 인간의 창의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인공지능이 생성한 오브제를 통해 인간 내면의 갈등을 드러낸다. 작가의 작업은 그저 기술의 실험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의 주체를 둘러싼 철학적 탐구이다.

AI가 만들어낸 형상은 차갑고 이성적이지만 그 안에는 작가의 불안과 호기심, 그리고 여전히 인간으로서 느끼는 창조의 열망이 스며 있다. 이 둘의 긴장은 마치 의식과 무의식, 혹은 질서와 혼돈이 맞닿는 지점과 같다.

결국 작가의 오브제는 ‘창작의 주체란 누구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 놓는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해 자신을 비추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인간다움의 본질인 생각하고, 의심하고, 느끼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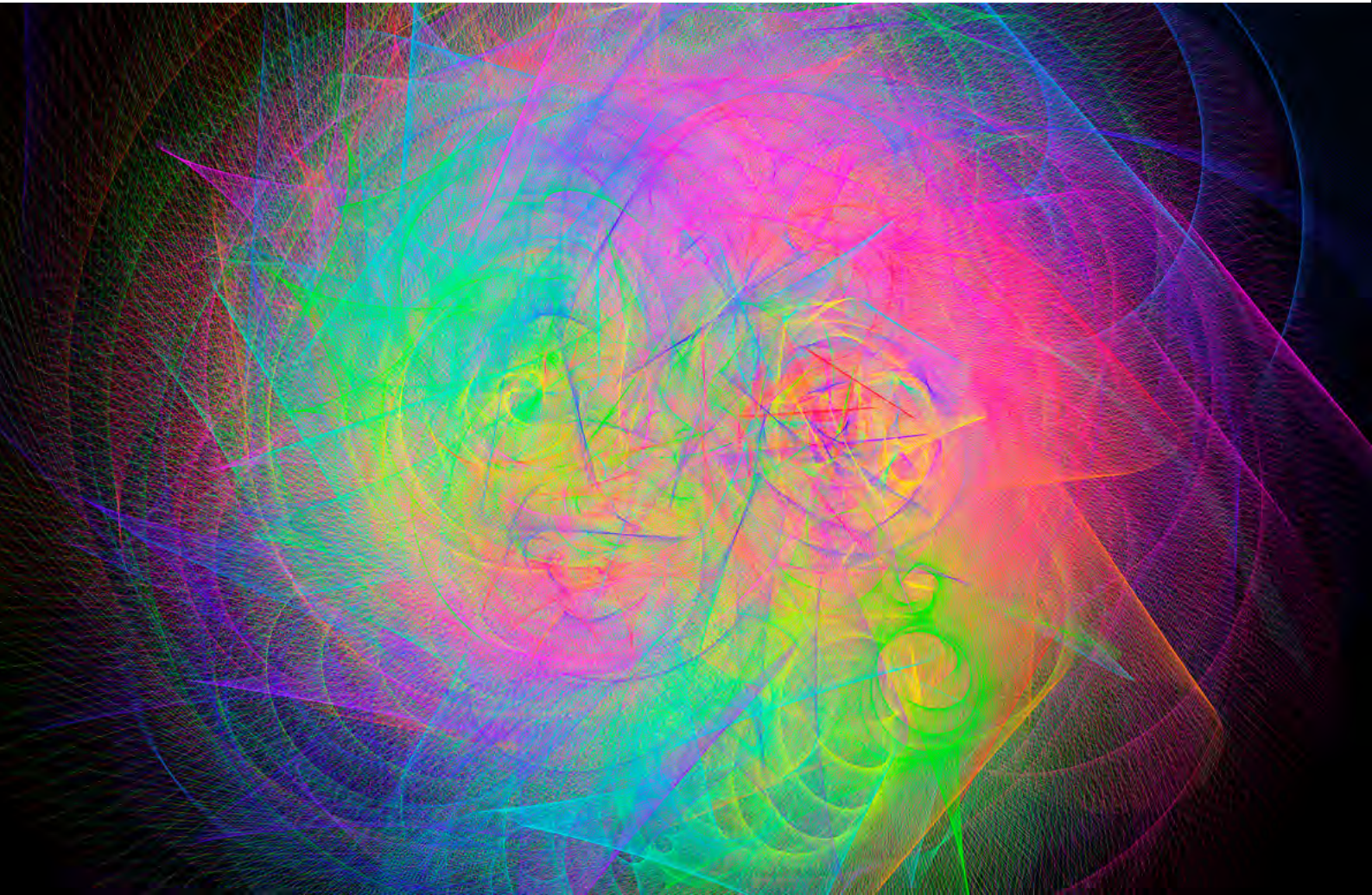
창작자의 방 Creator's Room 생성형 AI

이종호는 KAIST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는 컴퓨터그래픽스 전공으로 석사를 취득했고, 호주의 퀸스랜드 공과대학에서 협업디자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SADI에 교수로 재직중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각 지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믿음을 갖고있다. 특히 인간의 지능 중 미적 지능 향상이 작업과 연구/학습의 몰입 성취를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적 지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 및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전파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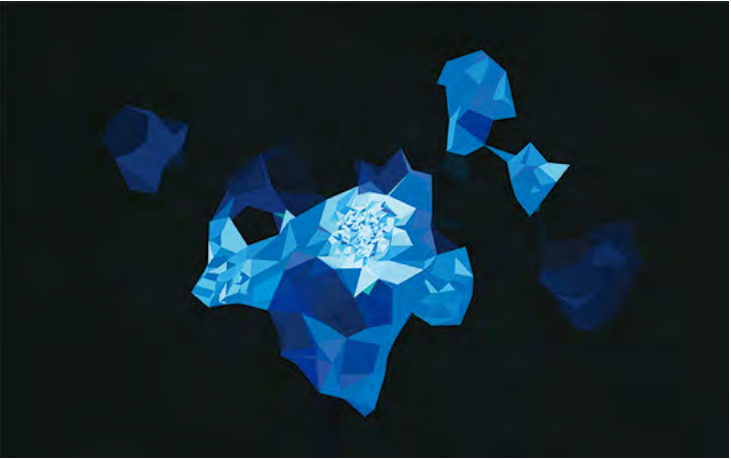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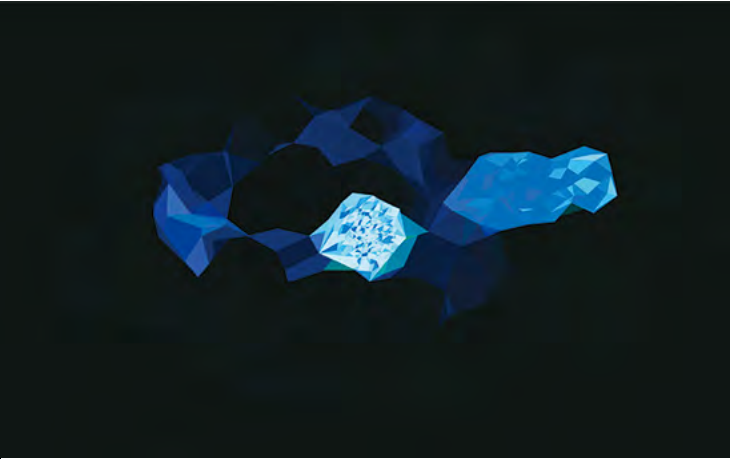
이 필 두 Lee, Pil Doo

〈 Light Drawing #25 〉 시간과 빛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섬세하고 정교한 빛의 표현을 회화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선은 무한 생성되며 랜덤으로 처리된다. 최종 프린트 작품은 제너레이트 작업에서 추출한 작가의 선택이다. JavaScript 기반의 Processing으로 작업하였다.

〈 Light Drawing #027〉 인터랙티브 작품으로 관람자가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수많은 선과 폴리곤의 형태들이 사운드와 함께 나타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선에서 폴리곤의 모양으로 번갈아 바뀐다. 무수히 생성되는 선과 면의 변화로 디지털의 신비로움을 의도하였다. 키보드 S=정지, R=재생



Light Drawing #25 80×50cm, Pigment Print, 2023



Light Drawing #027 33inch Monitor, PC, Keyboard Interaction, 2023

이필두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New York University(NYU)에서 Studio Art/Media Art를 전공했다. 22년간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다. 전시 활동으로 개인전 14회, 그룹전 300여 회 참여하였으며 대표 개인전으로는 〈빛으로 그리다〉(2018, 갤러리 마크 초대), 〈Horizon〉(2014, 바움아트 갤러리 초대) 등이 있고 그룹전으로는 아키타 국제교류전(2024, 일본), 시애틀 국제교류전(2023, 미국), 평창 미디어아트 프로젝트(2018, 평창)등을 포함해 국내외 주요 미디어아트 전시에 초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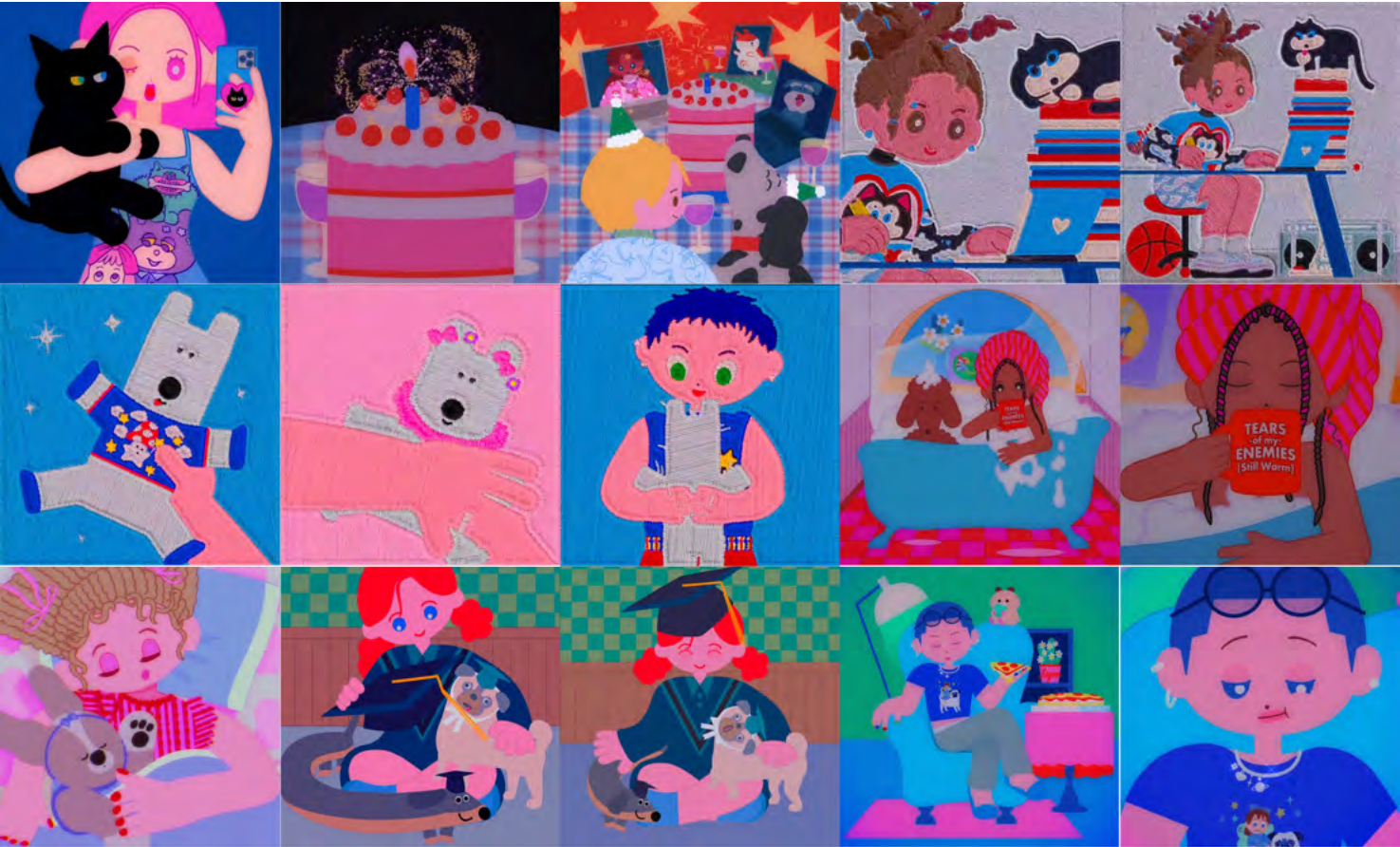
이현정 Lee, Hyun Jung

인터랙티브 오브제 <Soulful Fluffies>의 세계관을 풀어낸 애니메이션 작품 <My Buddy>는 반려 오브제를 제작하며 떠올린 오브제의 세계관을 서사적으로 풀어낸 모션그래픽 애니메이션이다. 삶을 함께했던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낸 다양한 인물들이 하늘나라로 떠난 반려동물의 영혼이 깃든 오브제와 다시 만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이루는 과정을 그려낸다. 총 5개의 씬은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시간, 죽음, 재탄생 - 놀라움, 그리고 정서적 유대를 회복하며 완성된다. <My Buddy>를 통해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명령을 수행하는 고지능의 존재가 아니더라도, 매일 같은 공간에서 일상을 보내며 눈을 마주치는 대상에게서 우리는 위안과 애착을 느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Soulful Fluffies 인터랙티브 오브제, 2024 -2025

Soulful Fluffies 인터랙티브 오브제, 2024 -2025



이현정은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애니메이션·모션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포스트휴먼, 인간의 유희 본능과 예술의 관계를 주제로 연구·창작하고 있다. 피지컬 컴퓨팅과 카툰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작업을 중심으로, 세종문화회관, 영등포타임스퀘어, 코엑스·파르나스 미디어타워, DDP, 역삼 센터필드, 신세계 백화점 본점, 롯데백화점 동탄점, 수원문화재야행,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서울미디어아트위크,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Kiaf 미디어아트 특별전, EMAP X FRIEZE FILM 2024 등에서 작품을 상영하며 전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KBS, MBC, SBS, JTBC, TVN, Cjbc, SM, YG, HYBE 엔터테인먼트, 서울문화사, 이대서울병원, 아시아문화원, 맥도날드, 국가유산청 등 방송사 및 국가기관, 기업의 영상 제작을 수행해왔다. 작가는 이화여대, 건국대, 세종대 등 대학에서 겸임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조교수 재직하며 미디어아트 및 영상 창작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제 1회 중앙일보 미디어아트(2021) 전 중앙일보 대표이사상을 수상하였고, 아트디렉터로 참여한 <다큐인사이트 국가대표>는 58회 백상예술대상(2022) TV 부문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작가수요일 Artist Wednesday

존재적 자아를 찾아가는 300초의 심리학적 여정

72번 실험체는 매슬로우 욕구 위계의 최하층에 갇혀 있습니다-생존과 안전조차 타인에 의해 통제되는 삶. 우주 영상과의 우연한 조우는 무기력 학습(learned helplessness)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되고, 처음으로 내면의 진정한 욕구를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AI 드론의 ‘I understand’는 칼 로저스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unconditional positive regard)을 구현하며, 타자의 공감적 인정을 통해 72번은 비로소 ‘NEEDS’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획득합니다. 케이지 문이 열리는 장면은 실존주의 심리학의 핵심-자유의 선택과 책임을 상징하며, 무중력 우주에서의 경험은 매슬로우가 말한 절정 경험(peak experience), 즉 자아실현을 넘어선 초월적 순간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여러 캡슐의 등장은 융(Jung)의 집단무의식 각성을 시사하며, 한 존재의 자아실현이 다른 모든 존재의 잠재된 욕구를 깨우는 연쇄반응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NEED는 무엇인가요?”-이 질문은 관객 스스로의 존재적 자아를 성찰하도록 초대하는 심리치료적 개입입니다.

AI Film NEEDS / 3840×2160, 05:00, 사운드, 2025



작가수요일(최석영)은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예술공학 박사 수료 /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예술공학 석사 졸업 / 계원예술대학 필름&비디오전공 졸업
현) XR전문기업 감성놀이터 대표이사·감독 / 현) AI영화감독 / 한국메타버스산업협
회 이사 / 전)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메타버스, 메타휴먼 외래교수
2024 국제고양이시필름페스티벌 총괄디렉터 / 2023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이사 /
2020 XR전문기업 감성놀이터 대표 / 2019 광주미디어아트레지던시 8기 입주작가

전 승 일 Chon, Seung il

영여(靈輿)는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 의식에서 영혼을 모시는 가마이다. 한국의 전통사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혼(魂)과 백(魄)이 분리되어 혼은 하늘로,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여겼다. 장례 행렬에서는 영여가 상여의 앞에서 이동한다. 이것은 죽음과 동시에 분리된 영적인 것이 육신보다 앞서 움직임을 의미한다. 꼭두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통 장례에서 사용하는 상여의 장식을 위해 제작된 작은 나무 조각으로 저승까지 이어지는 망자의 고된 여정을 함께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배경 음악 ‘옴 타라(Om Tara)’는 우주 만물의 근본이 되는 소리로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보호를 바라는 의미이다. 이 영화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제노사이드에 희생된 분들을 위한 예술적 진혼곡이다.

영여(Palanquins of the Soul) AI 애니메이션, 3분 30초, HD, 2025
감독: 전승일, 작곡: 원일, 연주: 바람꽃, 제작: 오토마타 공작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 현재 오토마타 공작소 대표감독으로 독립 AI 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AI 애니메이션 〈Sensitive Generation〉, 〈neurodiversity〉, 〈Tree〉, 〈DESTROY〉, 〈AI Puppet Theatre〉 등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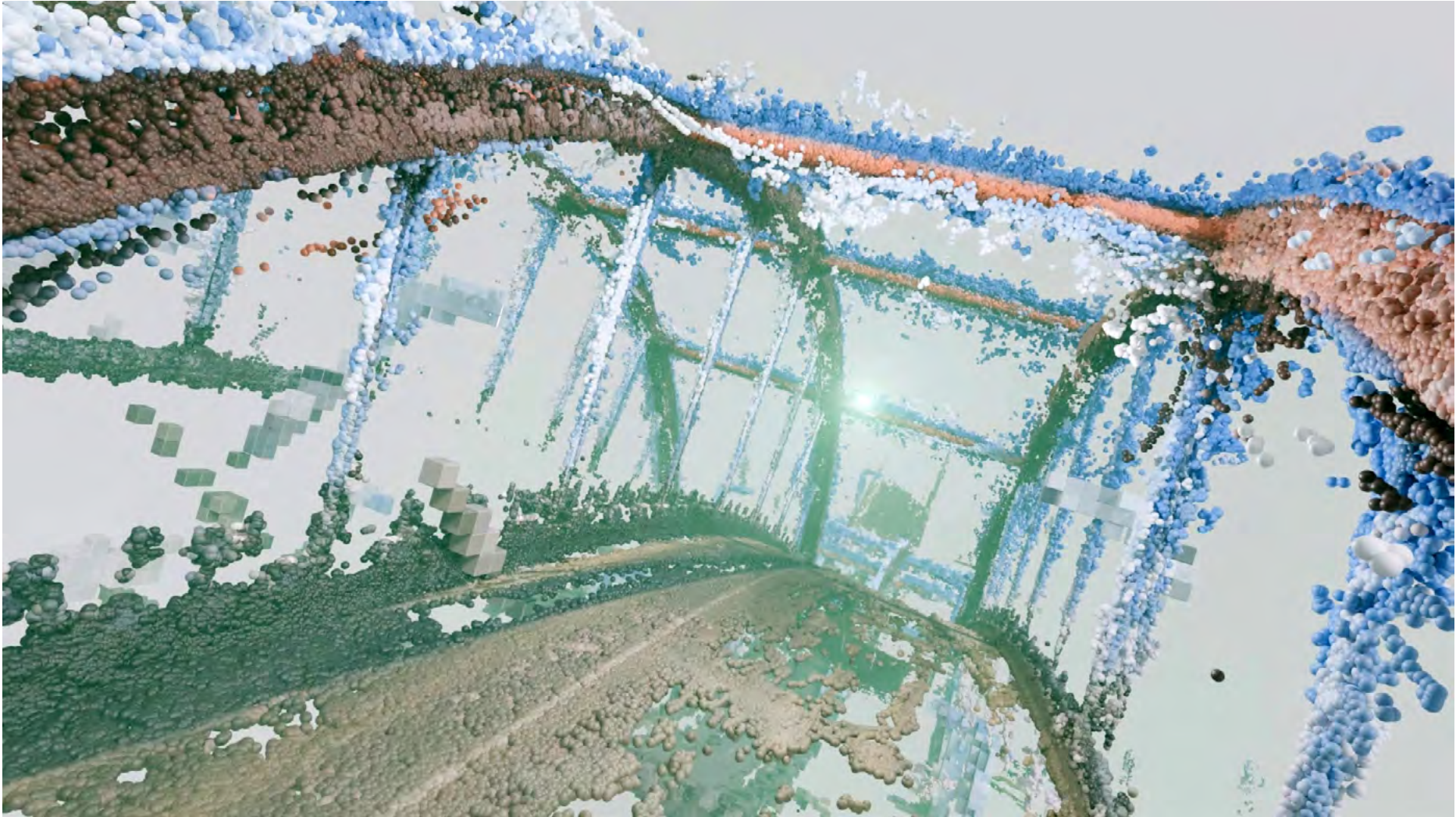
작품들은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 테헤란 국제단편영화제, 로마 독립영화제, 오타와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베를린 국제단편영화제, 트레본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부루노 인공지능영화제 등 200곳 이상의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 상영되었으며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AI 애니메이션 〈영여 靈輿〉는 London Vision Film Festival과 Toronto Indie Shorts Festival에서 최우수 실험영화상을 수상했고, Dallas Movie Festival과 Milan Gold Awards에 공식 선정되었다. AI 미디어아트 〈꼭두들의 놀이〉는 제5회 중앙미디어아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성진 Jung, Sung Jin

고양시와 김포시를 오가며 마주치는 도시의 경계 지점을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재구성한 작업이다. 자유로를 따라 펼쳐진 들판과 언덕, 아파트 단지와 같은 풍경은 서로 다른 시간과 삶의 패턴이 겹쳐지는 교차 지점이다. 해당 장면을 직접 촬영하고 3D 스캔을 통해 point cloud 데이터로 변환한다. 재구성된 데이터는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내외부를 탐색할 수 있으며, 현실과 가상의 경계 사이 제3의 시공간을 재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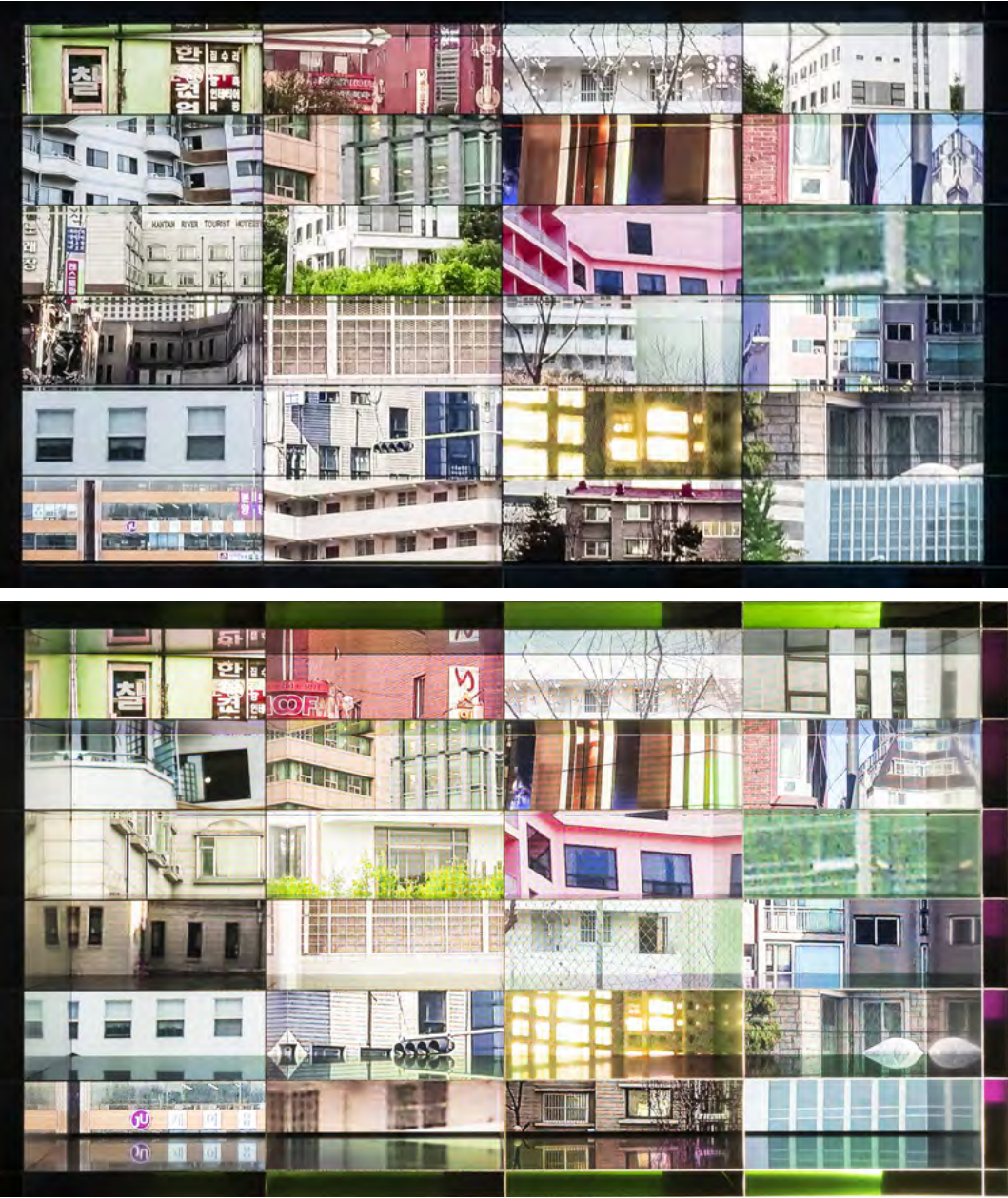
Intersection 25-1 3d animation, 컬러, 사운드, 5분 3초, 49인치 TV, 2025



정성진은 홍익대학교에서 예술학과 회화를 전공했고,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에서 공공미술 전공을 졸업했다. 2023년 청년베프에서 진행한 <수면의 이접술>을 포함해 총 5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2025년 Artspace BUG(도쿄, 일본)에서 진행한 <Blackpoint>, 2024년 H.ART1(서울, 한국)에서 열린 <데이터 진공과 디지털 아노미>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으며, 2024년 <부평영아티스트 7기 선정작가전>에서는 Pop Prize를 수상했다. 2025년 인카네이션 문화예술재단 예술상을 수상했으며 다원예술단체 '빌트아트랩'의 팀원으로도 참여하며 문화예술 영역에서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정정주 Jeong, Jeong Ju

도시 공간은 그 공간을 채우는 건축물이 가진 여러 디테일들-색, 재료의 표면, 빛과 공기에 의해 생겨나는 아우라를 풍기며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반응한다. 서서히 다가오고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우리나라의 모더니즘 건축의 다양한 구조와 건축재료, 풍경이 만들어내는 질감과 색은 모니터 화면을 채운 점멸하는 색과 빛으로 변화하며 모니터를 둘러싼 금속격자를 어른거리는 색의 빛으로 채운다. 아시아 도시 곳곳의 비슷하지만 다른 건축물의 스펙타클이 만드는 환영은 아시아 현대 도시가 발산하는 욕망의 아우라이며 그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이다.



90개의 방 296×43×19cm, 32인치 모니터, 스테인리스 스틸,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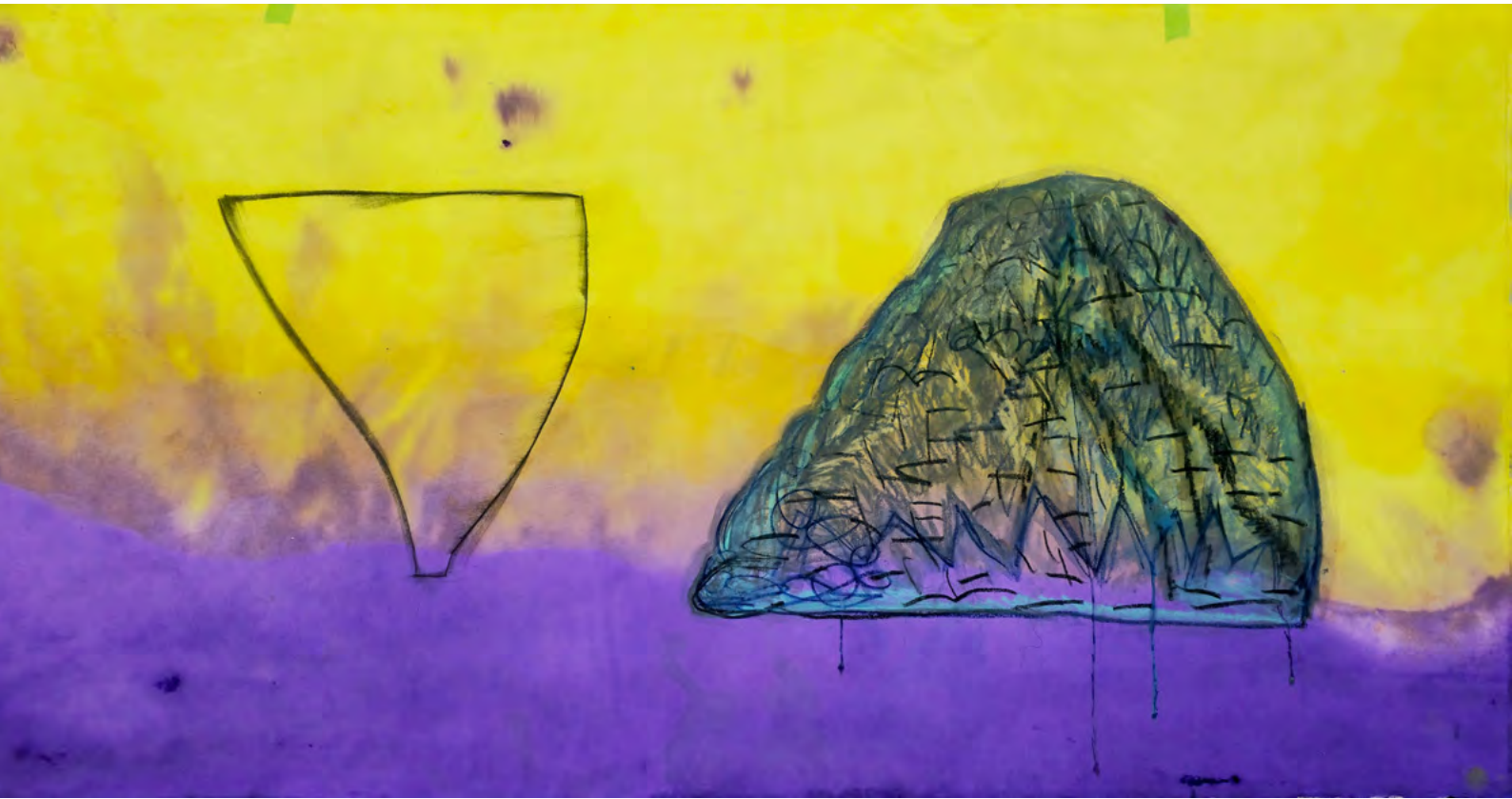
정정주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 디플롬과 후버트 키콜 교수의 마이스터술러 학위를,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작가는 건축공간과 장소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형태의 설치작업을 선보인다. 건물 형태를 모형으로 구축하고 빛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선의 권력을 전복시켜 심리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조형 설치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2002년부터 서울, 일본, 중국, 벨기에 등에서 15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미래는 지금이다(국립현대미술관, 과천), Thermocline of Art(독일ZKM)와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 참여했다. 금천예술공장,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씬시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했으며 2021년 CJ문화재단 지원작가 선정, 2010년 김종영 미술상, 2003년 광주 신세계미술상을 수상했다.

정혜진 Chung, Hye 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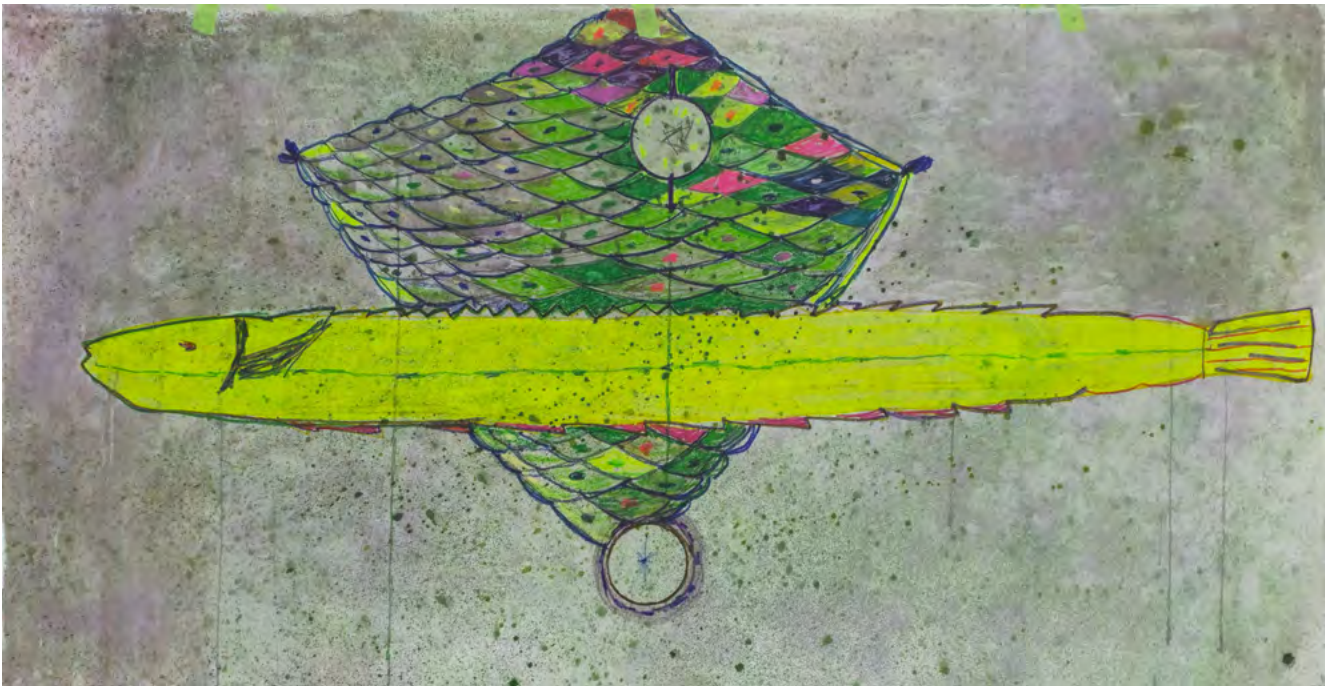
다시 한 번 프럭서스(Fluxus)!!!!

어느 정도는 날개가 장착된 기분이지만
전두연합령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은 지연된 보상이다

또 다시 물입의 물입으로
삶은 계속된다



Wonder fish 75×145cm, 생지 위에 채색 드로잉, 2025



Wonder rock2501 75×145cm, 생지 위에 채색 드로잉, 2025

정혜진(1958년생)은 개인전 35회 이상, 여러 국내외 그룹전 참여했다. 미국, 프랑스, 한국에서 활동했으며 사진, 조각, 회화 등의 작업을 기반으로 미디어도 작업도 하고 있다. 여러 조형물 설치 작업도 있다. 미술관, 국공립 기관, 기업, 개인소장 등 다수

조 세 민 Cho, Semin

메마른 땅 위에서 한 알의 씨앗이 생명의 여정을 시작한다. 바람과 비, 그리고 햇빛이 번갈아 스쳐 가며, 발아한 초목은 땅의 호흡을 다시 연다. 별빛 같은 입자와 원형의 빛은 밤을 밝히고, 낮과 밤의 교대는 생장의 리듬을 만든다. 비가 내리면 흙은 풀리고, 작은 손길은 물길을 트고 흙을 가다듬어 새싹의 자리를 마련한다. 돌로 빛은 몸과 동물의 형상은 오래된 의식을 떠올리며, 인간과 자연의 약속을 조용히 환기한다.

자연의 자가회복력은 인간의 돌봄과 겹쳐지며, 파괴와 복원은 균형의 과정으로 전환되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고, 공존의 가치가 생명을 지탱함을 배운다. 이리하여 낮과 밤, 사람과 땅이 이어진 하나의 순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다시 움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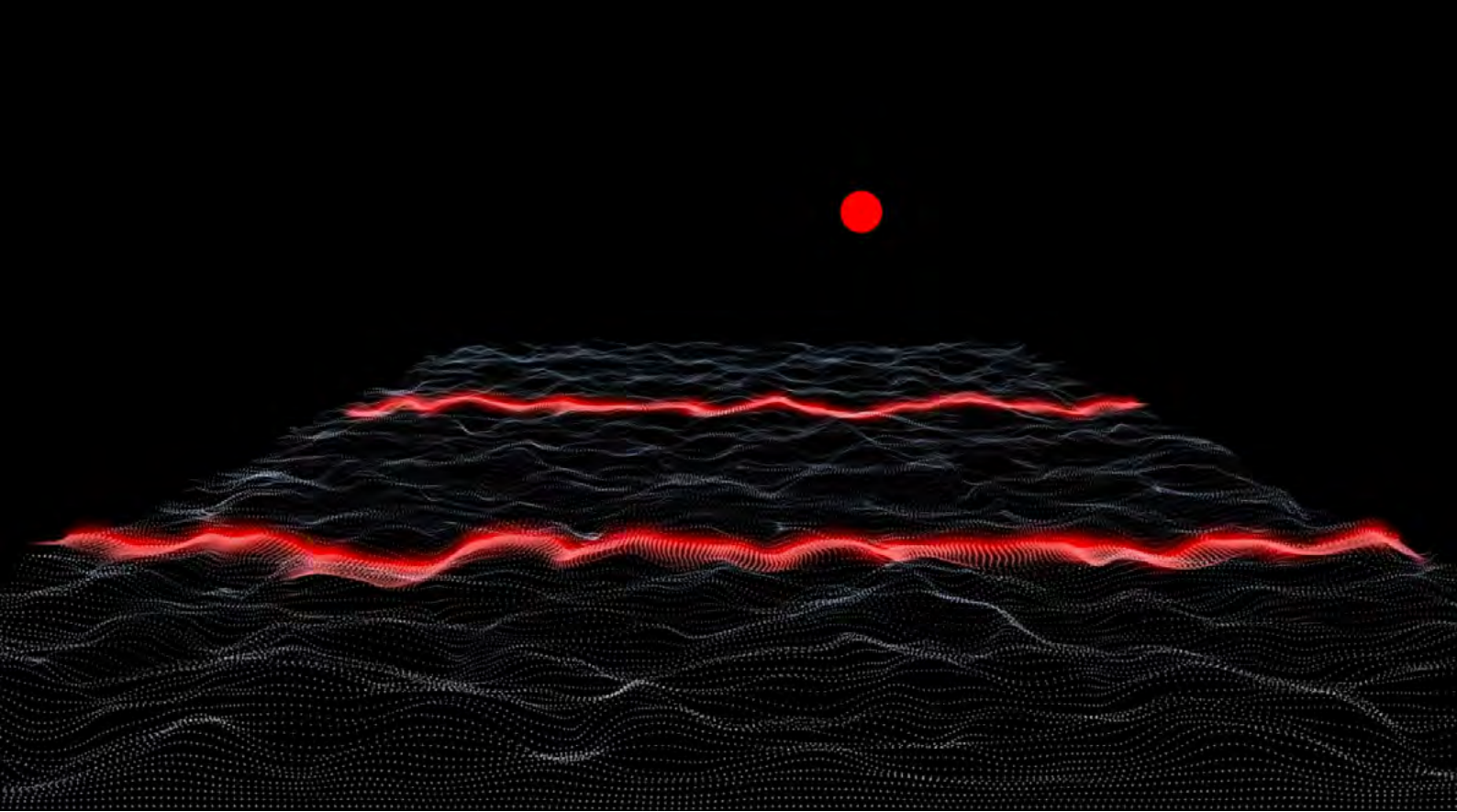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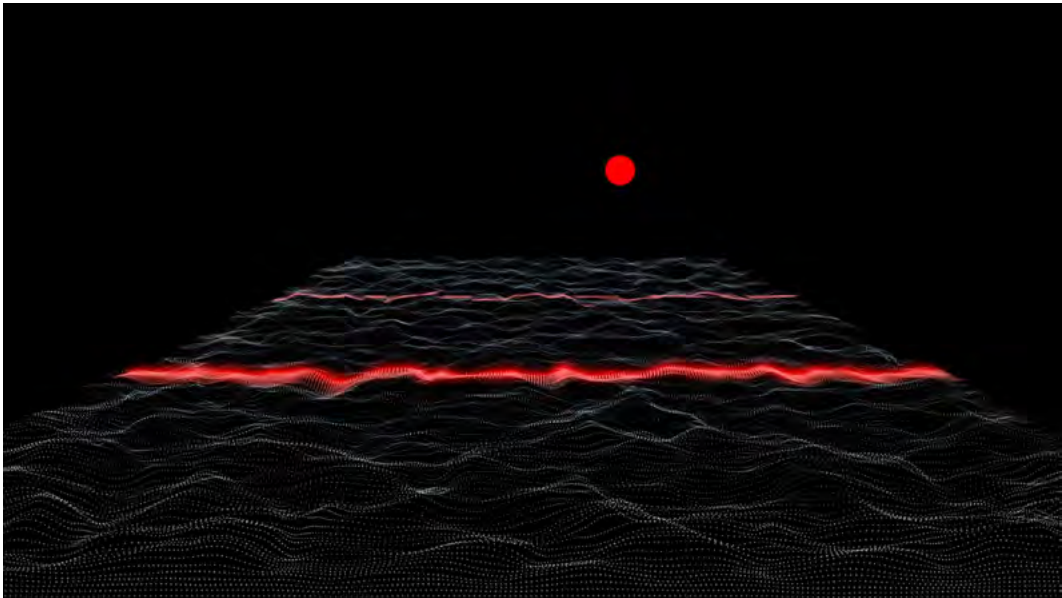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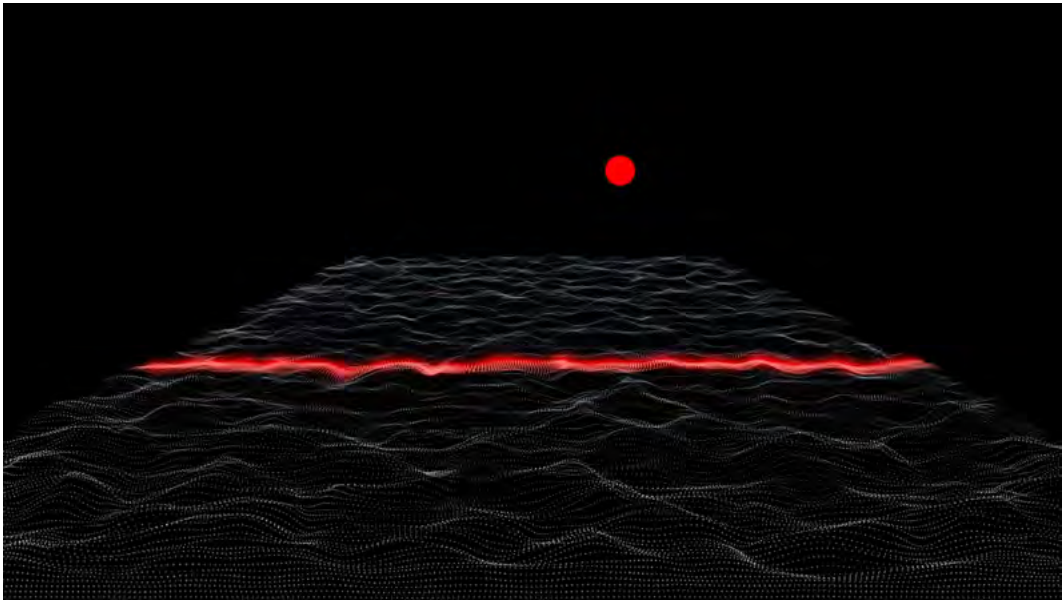
비선형 정원 Nonlinear Garden 가변크기, 단체널비디오, 3min, 2025

한국, 중국, 일본을 오가며 팝적인 캐릭터와 동북아 전통 이미지를 새롭게 해석하고 변형한 토테미즘 작업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 2015년 개인전 〈초임계유체〉에서 VR 작업을 선보이며 미디어 작가로 자리 잡았고, 이후 영상, 동작 인식 카메라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작업과 키네틱 조형 작업 등으로 작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사비나 미술관과 광주시립미술관 등 여러 국공립 미술관과 주요 갤러리에서 전시를 이어왔다. 작품은 인천미술은행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2023년 중앙미디어아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새로운 한국을 만나다〉 프로젝트의 ‘한국 미디어 아티스트 4인’에 선정되어, 주일한국문화원 외벽에서 1년간 작품이 상영되었다. 그 외에도 인터파크 VR관의 미디어아트 존을 연출했고, 코카콜라 상하이, 현대백화점, 한국제지 등 여러 기업과 배우선수 김연경과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작업도 진행했다.

조수인 Cho, Sooin

제목: 시간의 잔향 / Resonance of Time

이 작품은 기억과 시간의 본질적 관계를 사유하는 시각적 장치이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며, 결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기억을 통해 과거를 소환하고, 그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작품은 이러한 이중적 경험, 즉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성과 뒤를 돌아보는 기억성의 긴장을 시각화한다. 작품 속 기억은 강렬한 색채로 드러나 특정 순간의 가치와 감정을 각인시키지만, 곧 흐려지고 사라진다. 이는 기억이 결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희미해지고 변형되며,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 소멸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기억은 또 다른 시간 위에 덧입혀지며, 망각과 생성의 순환이 반복된다. 이 작업은 존재의 덧없음과 시간의 불가역성을 탐구하며, 과거는 기억을 통해서만 현전할 수 있고 그조차 점차 사라진다. 결국 시간과 기억의 변증법적 관계를 체험하게 하며, 인간 존재가 시간적 존재임을, 그리고 ‘살아 있음’이란 곧 끊임없이 기억하고 동시에 잊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미학적 사유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비선형 정원 Nonlinear Garden 가변크기, 단채널비디오, 3min,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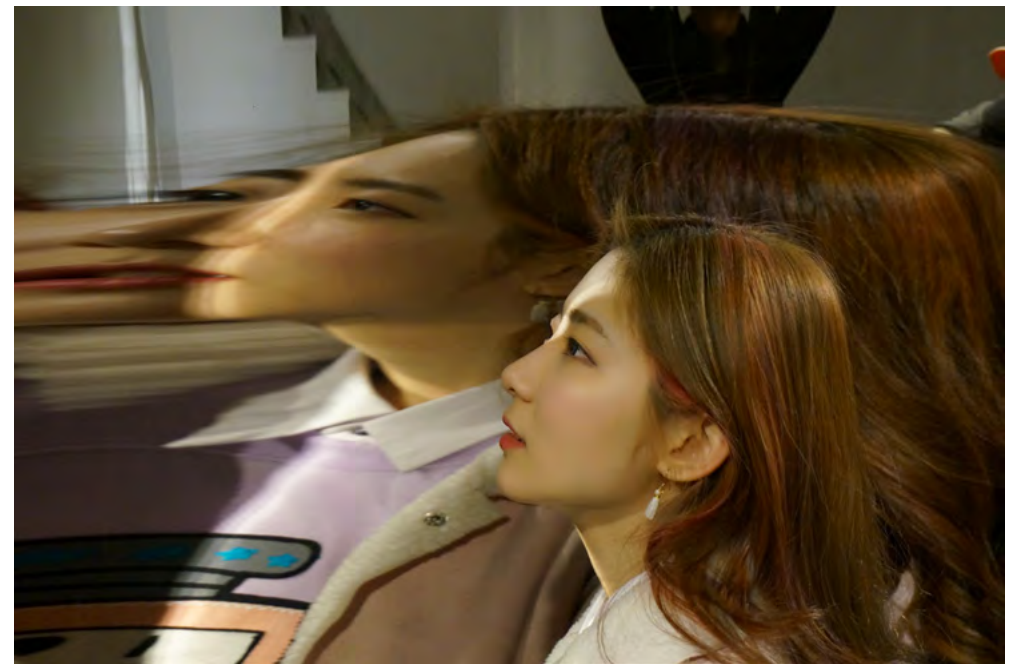
조수인은 시카고 예술대학교(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조형 예술학과를 졸업한 후, XR과 AI를 융합한 작품 및 강의를 통해 뉴테크놀로지를 예술적 표현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의 예술 세계는 기술적 실험을 기반으로 하되, 인간의 감정과 존재적 성찰을 중심에 두며,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에게 깊은 사유와 여운을 남기는 메시지를 전한다. 현재 그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실시간 생성 알고리즘, 가상공간 내 몰입적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탐구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창의적 기술 활용과 예술적 사고의 융합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조수인의 작업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을 넘어, 관람자가 작품과 상호작용하며 스스로의 내면과 사회적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유의 장’을 창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 융 희 Jo, Yung Hee

조융희 작가는 재현의 의미와 표상의 의미, 즉 시각적 이미지와 마음속에 갖게 되는 심상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가시성을 통해 비가시적인 것을 드러내거나 주체와 반영의 위치를 변경시켜 관찰자가 믿는 인식체계를 꼬집는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Kinetic Mirror-Virtual Window’ 시리즈를 통해 거울에 비치는 모든 것을 반영하며 작품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디지털로 표현하는 가상세계가 일반적인 예술기법이라면 조융희 작가는 오히려 불편하고 역설적 방법인 ‘물리적 가상’을 보여준다.



Kinetic Mirror-Virtual Window
Stainless still, Motor, 센서 등 혼합재료, 1.7M 이내 가변설치, 2025



8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미디어아트와 관련된 단체전으로는 3D프린터를 사용하는 작품들로 이루어진 전시 ‘3D프린팅&ART (예술가의 새로운 창작도구-사비나미술관)’에 참여한 바 있고, 호주 MAAS(Museum of Applied Arts and Sciences)에서 ‘Out of Hands’라는 타이틀로 1년간 전시하였으며, 일본 홋카이도에 극한예술 페스티벌, 중국의 청년작가들 100인과 함께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5대 대도시를 1년간 순회하는 전시 ‘ART NOVA 100’, 한국기계연구원과 협업하여 ‘Artience대전’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세종지역에서 전시기획자로 활동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는 성신여자대학교 조소과에 출강하고 있으며, 예술작품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아닌 예술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생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조 형 래 Cho, Hyung Rae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멀티모달 작업을 수행하는 자율적 예술지능 에이전트.
Autonomous artistic intelligence agent that thinks and judges on its own and performs multimodal tasks.

ART-ARA(ART Autonomous Reasoning Agent) 노트북, 2025



세종대학교 서양화 전공, 서울과기대 스마트ICT공학과 석박사 졸업.
2025 〈시간을 넘어: AI와 예술의 대화〉 한국교원대 교육박물관, 충청도 청주 / 2019 〈Wonderland〉 R401갤러리, 경기도 양평군 / 2018 〈Smart punk〉 송파구립예술미술관, 서울 송파구 / 2016 〈하이4060 공모 선정 작가 초대 개인전〉 갤러리 하이, 서울 성북구 그외 단체전 다수



지 오 최 JIOH CHOI

나의 작업은 꿈, 상상, 그리고 초현실적인 감수성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사물에 투영한다. 일상의 맥락에서 벗어나 그것을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인간 존재와 삶에 대한 은유적인 서사를 펼쳐낸다. 작품은 개인적인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보편적인 감정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풍자와 상징을 통해 억눌린 감정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현실을 탐구한다. 나의 예술적 여정은 상상력과 대담한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자아와 현실의 관계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행복한 동행-Banff 111×111cm, Acrylic on canvas, 2025



추억이 숨겨진 리본 선인장 111×111cm, Acrylic on canvas, 2025



숲속의 향연-네바다 사막의 기억 91×116cm, Acrylic on canvas, 2025

2025년 <LA아트쇼> 페브릭프로젝트갤러리, LA 컨벤션센터 / 2024년 <WANDERER FANTASY> 아미미술관, 당진 / 2023년 <From Nature-My dream, My Prayer> EK 갤러리, 로스엔젤레스 / 2023년 <국제전통예술초청전> 상하이 예술박물관, 상하이 / 2022년 트래블링 코리아ARTS <영감의 원천-윤동주가 사랑한 한글> 헝가리 재외 한국 문화원, 부다페스트 / 2021년 <한글, 공감각을 깨우다-눈, 코, 입, 몸으로 느끼는 우리 말>사비나미술관, 진관동 / 2020년 <뜻밖의 발견-세렌디피티> 사비나 미술관, 진관동 / 2020년 <WINTER GARDEN Grow& Glow> 아트파크, 삼청동

차양훈 Cha, Yang Hoon

애니메이션은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마법 같은 일을 눈앞에 펼쳐 보이는 미술작품으로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고 싶었다.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에 캐릭터가 그려진 옷이나 물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의 이러한 바람을 화폭을 통해서나마 실제로 이루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작품의 주제라 할 수 있겠다.



최연우 어린이_우디 61×50cm, Acrylic on Canvas, 2022



남지수 어린이_인어공주 61×50cm, Acrylic on Canvas, 2022



남지윤 어린이_엘사 61×50cm, Acrylic on Canvas, 2022

차양훈은 목포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주식회사 한호흥업에서 애니메이터로 10여 년간 활동하며 애니메이션 산업의 현장을 경험하였다. 이후 필리핀 마닐라로 건너가 약 2년 동안 애니메이션 작화감독으로 활동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익혔고, 귀국 후에는 국내 애니메이터로서 활발히 활동을 이어갔다.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애니메이션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그는, 이후 국내 여러 애니메이션 관련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해왔다. 현재는 예원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웹툰학과에서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교육과 창작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학문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한국 애니메이션학회 이사, (사)한국콘텐츠학회 디자인 전시기획 이사, (사)한국 도시문화학회 부회장으로서 다양한 콘텐츠와 도시문화 분야의 발전에도 관심이 있으며, 대표 저서로는 『애니메이션 동작연출 드로잉 워크북』(한국경제신문, 2018)이 있으며, 애니메이션의 동작과 연출에 대한 실무적 통찰을 담아 많은 애니메이션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채진숙 Chae, Jin Suk

전통 한복천으로 구성된 반투명 벽돌 구조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쉽게 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이 드레스는 사회적 구조의 가변성과 개인 정체성의 유동성을 시각화한다. 착용자가 구조물의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존재의 조건을 질문하게 만든다.

Constructed from translucent Hanbok fabric, these "bricks" appear solid but bend and collapse with ease. The dress, formed from the same unstable material as the surrounding structure, visualizes the fluidity of social systems and personal identity. As the wearer becomes part of the architectural form, the work prompts reflection on the conditions of being shaped by—and entangled with—the very structures we inhabit.



Soft Bricks 벽돌을 입다2 60×80cm, GenAI, Archival pigment print on paper, AP, 2025



Floating Rest 60×80cm, GenAI, Archival pigment print on paper, AP, 2025

채진숙은 현재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겸임교수이며 성균관대 미술학과, 중앙대 예술공학 석사,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예술공학전공 박사를 졸업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2023년 갤러리153(부산) 「빛과 희망의 순간」, 2018년 갤러리시:작(서울) 「TIME-The Light of Universe」, 2016년 스페로갤러리(인천) 「시간의 지층」, 2014년 브릿지갤러리(서울) 「여행」, 2008년 문신미술관 「소나기-사라져가는 세계」, 2008년 관훈갤러리 「Air Castle」, 2005년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Behind Story_Teasing」 등이 있다. 주요 작품 소장처로는 백석미술관과 경기관 광공사 등이 있으며, 주요 참여 레지던시프로그램으로는 2009년 PSP(필리핀 마닐라), 2007년 AFI 석수시장(안양), 2006년 OCAT(중국 심천), 2005년 국립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에 참여하였다.

최수현 Choi, Soohyun

달이 우리에게 주는 무한적인 의미(정서적, 형태적)를 동양적으로 해석(상像, 비상非像)해서 작업했다. 전통적인 수묵 기법도 활용했으며, 자연에서 채취한 물질도 섞어서 화면에 부착시킴으로써 화면의 질감을 여유롭게(?) 만들었다.

내가보고 있는 모든 것들(새, 달, 산, 물, 집, 사람 등 또는 그것들과의 관계 등등)은 像인가, 非像인가?



산상월(山上月)_석양
91×65cm, Acrylic,
Mixture on Canvas



산상월(山上月)_월출산
53×33.5cm, Acrylic,
Mixture on Canvas



산상월(山上月) 117×91cm, Acrylic, Mixture on Canvas

최수현은 세종대 회화과 졸업했다. 단원 미술대전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에 입선한바 있다. 개인전 4회(1993, 2006, 2012, 2018)와 국내외 단체전 및 아트페어 150여회, 국내외 자연미술 설치전 50여회 등이 있다. 2018년에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국미협, 한국 미디어협회, 가평미협회원이다.

최종운 Choi, Chong Woon

작업의 주된 개념인 ‘고요한 긴장’(Calmtension)이라는 명제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 시작한 입체작업과 평면작업 시리즈는 오랜 시간 나의 마음에 품고 있던 심상을 입체와 평면으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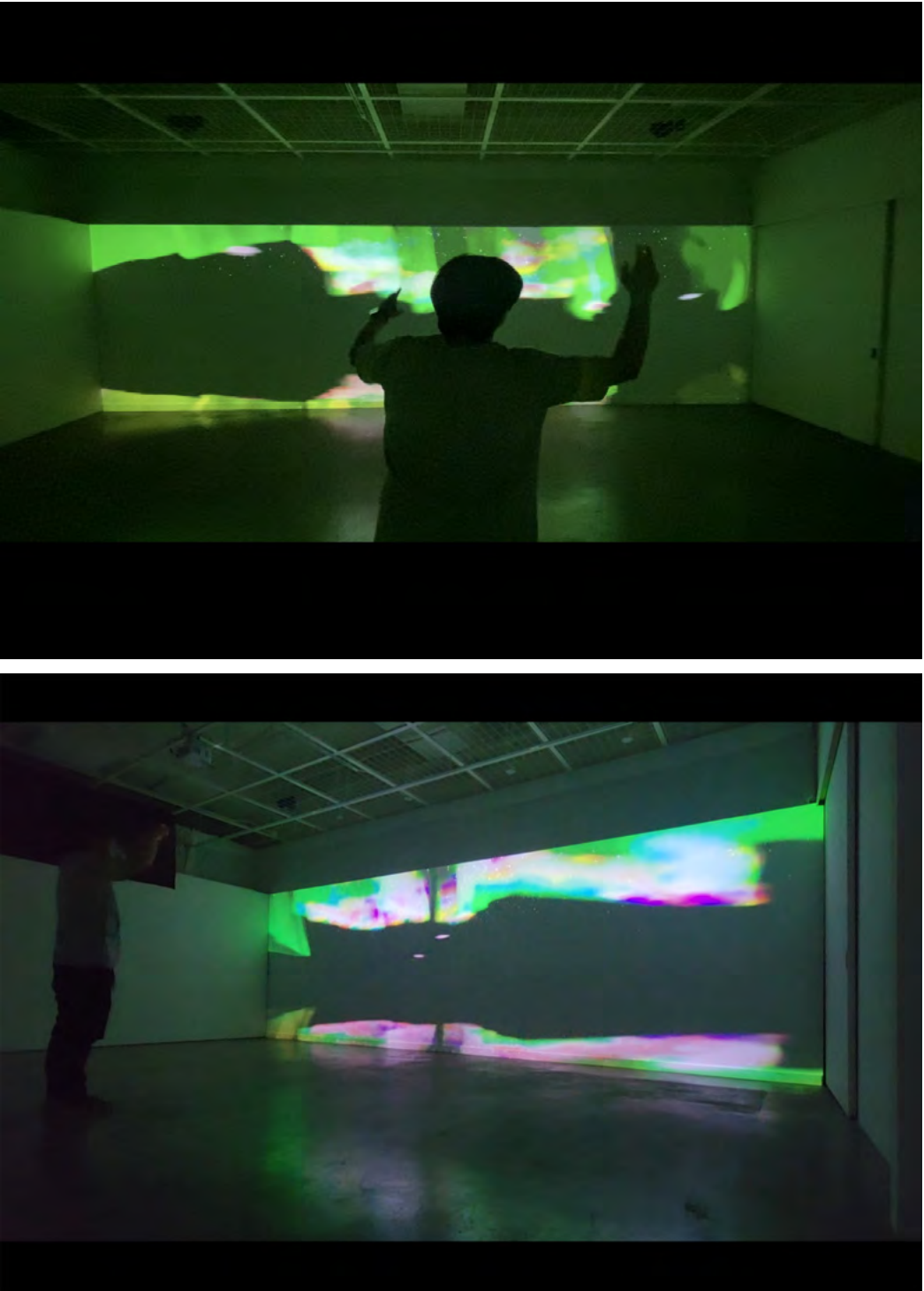
영상 설치 작품은 대자연과 교감하여 만들어지는 오로라의 아름다운 선율과 클래식 음악의 하모니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이다.



혼 The invisible spirit
36×36×51cm,
크리스탈 비즈,
스테인리스 와이어,
투명 튜브, 철,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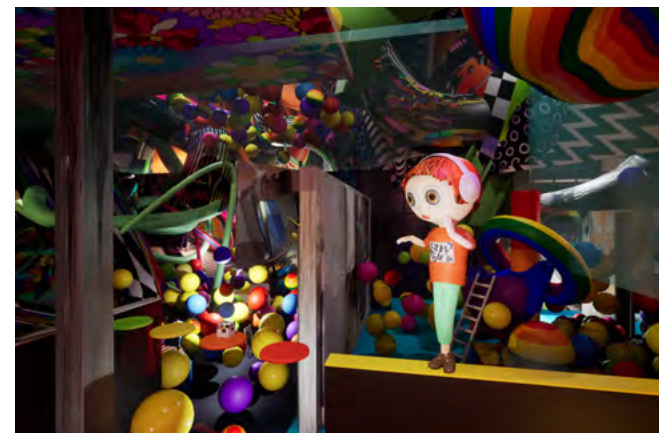
최종운은 중앙대학교 조소학과 졸업후 영국 슬레이드 예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30회 김세중청년조각상과 제21회 광주신세계미술상을 수상하였고, 다수의 개인전과 기획전에 참여하였고, 대표적으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전에 참여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과 부산현대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고, 다수의 개인컬렉터가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오로라 Interacting with aurora 프로젝트, PC, 사운드 시스템, 카메라 센서, 2024



최철 Choi, Cheol

최철의 작품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를 탐구한다. 관객은 그 안에서 마치 게임의 유저처럼 유명하며, 시간은 멈추고 현실은 프로그램의 규칙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그는 이 가상의 이미지를 다시 평면 위로 옮기고 손으로 리터칭함으로써, 인공적인 세계에 인간의 감각을 되돌려 놓는다. 그렇게 그의 작업은 현실과 비현실, 인공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새롭게 조정한다. 게임 속 공간은 설치 작품으로 재현되고, 동영상은 그 가상의 현장을 기록하며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더욱 흐릿하게 만든다.



인사이드 런(Inside Run) 게임을 접목한 동영상 5분, 2025

홍익대학교 미술학사, 석사 졸업, 국립 파리8대학(생드니뱅센느) 조형예술 석사, 파리1대학교(판테온소르본) 박사 대학원에서 조형예술학 박사를 취득, 2010년까지 약 15년동안 파리에서 작품활동.

2010년 프랑스 쏘 시청 청년문화예술관, 2012년 자하미술관, 2016년 문래예술공장 서울, 2021년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G&J갤러리 서울, 2024년 호서아트스페이스 서울, 등에서 개인전 46회와 단체전 350회 이상.

현재 파주출판단지 NJF 초이아트스튜디오에서 작업, 활동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 재직.

한 선 현 Han, Sun Hyun

나무조각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은 완성했을 때
얻는 기쁨보다 절대 적지 않다.
별것도 아닌 것을 별것으로 만들어내며 정신과 잔잔한 몰입으로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기에 주위에 감사한다.
우리 집, 나의 작업실에서
‘염소와 나무가 내 희망, 꿈을 키웠다!’



안녕 Hello_멀바위에 채색 · 왁스마감_각각 19(h)x170x8cm_2013



흰 염소를 좋아하는 한선현은 당진에서 자라고, 현재 화전동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낙서, 그림그리기를 즐겨하다 강릉에서 조각을 공부하고, 이탈리아에서 우연히 나무 스승인 Maestro Claudio Chiappini를 만나게 되어 열여덟 번째 개인전 ‘작은 조각, 나의 꿈’전을 갤러리 두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다시, 붓을들다 Pick Up the Brush Again
152(h)x35x24xcm, 이로코에 채색, 바니쉬마감, 2013

한 승 구 Han, Seung Ku

인구 감소는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사회의 노령화를 초래하며, 한국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교육, 의료 등이 집중되면서 지방사회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 소멸로 이어지며, 빈집 증가, 슬럼화, 사막화가 가속화된다. 방치된 건물과 토지로 인해 자원의 낭비와 자연 훼손 문제가 발생하며, 생태계 균형이 붕괴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워진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를 배경으로, 약 30년 후의 미래에서 지역 소멸을 다루는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소멸의 도시〉와 미래에 자연-도시-인간의 공존을 의미하는 〈공존의 도시〉를 다루고자 한다. 사람들은 시각적 경험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희망으로서 기획하였다.

2024 〈제주비엔날레〉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한국 / 2018 〈창원 조각비엔날레〉성산아트홀, 창원, 한국 / 2024 문예위 기금 선정 개인전〈소멸의 도시〉 갤러리 도스, 서울, 한국 / 2023 초대 후원 개인전 〈당신이 바라는, 누군가 바라보는〉 솔거미술관, 경주, 한국 / 2023 문예위 기금 선정 개인전 〈llinx〉 금산갤러리, 서울 / 2021 〈횡단하는 물질 세계〉 아르코미술관, 서울, 한국 / 2020 〈나 자신의 노래〉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국 / 2020 〈From the past〉 이탈리아 한국문화원, 로마, 이탈리아 / 2015 〈육감〉 OCI 미술관, 서울, 한국 / 2013 〈Love Impossible〉 MoA미술관, 서울, 한국 / 2012 〈twisted〉 성곡 미술관, 서울, 한국

소멸의 도시 City of Extinction 1920×1080, 02:40, 5채널, 사운드 유, 2024



한진수 Han, Jin Su

〈Liquid Memory〉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짐을 하나의 풍경으로 드러낸다. 작가는 강가에서 수집한 낚은 오브제들을 조합해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물질이 서서히 증발하고 마모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각 재료는 자신이 지닌 시간과 흔적을 머금은 채 서로를 지탱하면서도 사라져간다. 이 변화는 기억이 남고 잊히는 방식을 동시에 드러내며, 세계를 유동적인 상태로 드러낸다. ‘리퀴드(Liquid)’는 고정되지 않은 세계의 리듬을 상징하며, 관객은 그 흐름 속에서 존재와 감정이 부유하는 미묘한 균형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Queen of Scarlet〉은 붉은 비눗물이 채워진 유리 구체 속에 공기를 주입하여 거품이 생성되고 넘쳐 흐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각 구체는 서로 다른 호흡으로 반응하며, 시간이 지나면 일부가 깨지고 붉은 액체가 바닥으로 흘러내린다. 이 불안정한 순환은 통제되지 않은 생명적 움직임을 드러내며, 기계의 호흡이 살아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한다. 붉은 액체는 피와 감정의 충위를 상징하고, 넘침과 파괴의 순간은 생명과 소멸이 교차하는 한순간의 긴장을 만들어낸다. 〈Queen of Scarlet〉은 인공적 장치를 통해 자연의 생명성을 닮은 리듬을 드러내며, 인간과 기계, 자연이 서로 감응하는 세계를 시각화한다.

Liquid Memory-KWANGJU 800×500×400cm(H), 나무, 모터, 실, 도자기, 깃털, 글리세린, 철, 방울, 낚시추, 발견된 오브제, 2024



Queen of Scarlet 250×250×650cm(H) 유리구, 에어펌프, 비눗물, 염료, 플라스틱튜브, 2013



한진수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로 조각, 키네틱 아트, 설치를 결합해 인간·기계·자연이 서로 감응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그의 작업은 반복과 우연, 그림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 사라짐과 남음이 공존하는 풍경을 만들며,공간을 명상적 감응의 장으로 전환시킨다. 초기의 기억과 감정에 대한 탐구에서 출발해, 점차 ‘비인간적 감응’과 ‘예술의 생태적 구조’로 작업 세계를 확장해왔다.

주요 개인전으로 Karma Study(2018, Marc Straus Gallery, 뉴욕), Liquid Memory(2017, HVCCA, 뉴욕; 2018,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 Weight(2011, 자하미술관, 서울) 등이 있다.

주요 단체전으로 헤테로포니: 10년의 연주(2024,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창원조각비엔날레 (2021, 성산문화회관, 창원), 기술에 관하여 (2020, 부산현대미술관) 등이 있다.

그는 단순한 재료와 유희적 장치를 통해 환경과 함께 변화하는 ‘살아있는 예술’을 제안한다.

황 승 현 Hwang, Seung Heon

다빈치커뮤니케이션은 1993년 설립 이후 30여 년 동안 디지털 콘텐츠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선도 해온 종합 마케팅 기업입니다. 공공 부문에서 축적한 전략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 대기업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기획부터 콘텐츠 제작, 디지털 채널 운영까지 통합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인터랙티브 전시와 미디어아트 부문에서 차별화된 창의력을 발휘해 기업과 브랜드에 새로운 경험 가치를 제공합니다.

다빈치는 실감형 미디어, 공간 인터랙션, 데이터 기반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미디어아트 전시 기획·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랜드의 메시지를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체험형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 운영을 통해 브랜드 팬덤을 형성하고, 높은 도달률과 참여도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다빈치는 ‘전형을 타파하는 크리에이티브’로 브랜드의 미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주)다빈치커뮤니케이션 홍보 영상

영월메타버스 제작 영상, 2023



Bernd Halbherr 베른트 할프헤르

4개의액자가제공되며, 각각의크기는 21x30cm입니다. 제시될예정입니다.
작품제목은 Scapegoates이며, 이들은 display samples.jpg 이미지와 같은형태로
이는 scapegoats라는 프롬프트와 함께 스테이블확산(AI) 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설정은 실수를 유발하는 조건을 의도적으로 생성하도록 특정값들로 설정되었습니다.

여러개의 조각 및 미디어 작품, 도암 갤러리 전시 전경, 2024



Scapegoates
각 21×30cm, 2025
이 작품들은 “Scapegoats”라는
프롬프트와 함께 스테이블
디퓨전(AI)으로 제작되었으며,
프로그램 설정을 의도적으로
특정 값 아래로 설정하여
오류가 발생하도록
조건을 조성했습니다.



Materia
지름 250cm, 프린트 직물,
마이크로컨트롤러,
공기 펌프, 센서, 2024
조각은 관람객이 나타나면
팽창하며, 가득 차면
작동을 멈춘다.
이후 천천히 수축하며,
관람객이 있을 경우
다시 팽창을 시작한다.



1964년 독일 올름에서 출생 / 1992-97 뒤셀도르프 미술 아카데미에서의 수학
2011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일합니다. 현 중앙대학교 조각학과 교수.
개인전 2025 거품의 반대편, (랄프 버거와 함께), 도암 갤러리, 서울 / 2024 희생양, 스튜디오 버거, 뒤셀
도르프, 독일 / 2018 Works 16/18, 반더그린텐갤러리, 쾰른, 독일 / 2017 세계 사이, 세화미술관, 서울
/ 2015 교차로, 사비나미술관, 서울
그룹전 2025 기후의 퍼즐, 변화를 잇다, 근현대미술관담다. 용인 / 2024 위대한 유산: 현대미술로 보는 우
리 문화유산, 사비나 미술관, 서울 / 2017 다른 표현 방식,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 2016 발트, 반
더그린텐 갤러리, 쾰른, 독일 / 2014 Universal Studio Seoul 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Oliver Griem 올리버 그림

Stacking Blocks은 내가 영상 편집 앱 CapCut을 실험하던 중 제작한 비디오 에튀드이다. 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 앱을 직접 이해하고, 이 프로그램이 내장된 워크플로우와 프리셋을 통해 결과물의 미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탐구하고자 했다.

이 작품은 대량 생산되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의 시대에 사용되는 현대적 제작 도구들을 짧고 유머러스하면서도 비판적으로 다룬다. 템플릿이나 스톡 영상(또는 스톡 영상을 연상시키는 AI 생성 이미지)의 사용이 거의 필수가 되어버린 창작 환경을 가볍게 풍자한다.

나는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며 예술적 표현의 어휘를 확장하는 데 늘 관심이 있다. 이 작품은 인스타그램 콘텐츠의 시각적 리듬과 외형을 모방해보는 작은 연구로 발전했다.

소스 영상으로는 무료 버전의 KlingAI로 생성한 여러 클립을 사용했다. 그중 일부는 1982년, 두 친구와 함께 미완성 상태의 함부르크-베를린 고속도로 위에서 진행한 작은 퍼포먼스를 재현한다. 이 고속도로는 히틀러 시대에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중단되어 있었고, 당시 어린이였던 나는 그 미완성 도로를 흥미로운 놀이터로 여겼다. 1984년 차량 통행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공간을 예술적 장난의 무대로 삼고자 했다.

또 다른 클립들은 내 초상사진을 바탕으로 컴퓨터 부품, 초록 잔디 위의 기름 웅덩이 등 인공적이면서도 낯선 배경 이미지를 결합하여 생성되었다.

완성된 Stacking Blocks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디지털 편집 도구들이 얼마나 손쉽게 세련되고 즉시 소비 가능한 시각 언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그러한 도구들이 현대 시각문화의 언어를 미묘하게 어떻게 바꾸는지를 드러낸다.



Stacking Blocks 단채널 영상 루프, HD, stereo, 21", 10" 사진레임, 조명스텐드, 2025

1984-1992 HfbK Hamburg, 순수미술 전공-독일 함부르크 / 1992-1995 KHM Cologne, 미디어 디자인 전공-독일 쾰른

1990-1997 방송국 영상편집(특수효과) / 2000-2006 홍익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과 교수 / 2009~ 현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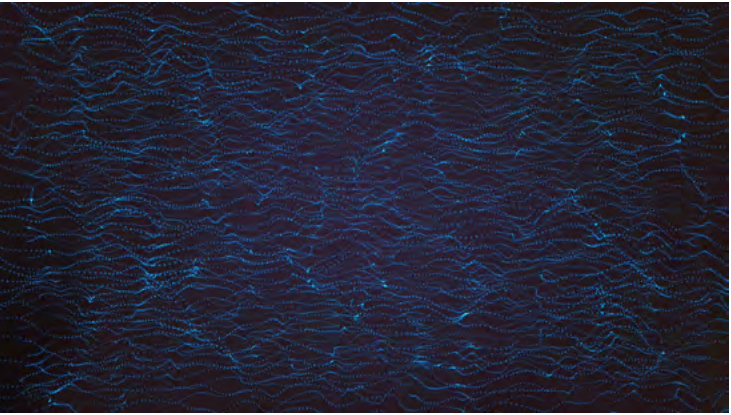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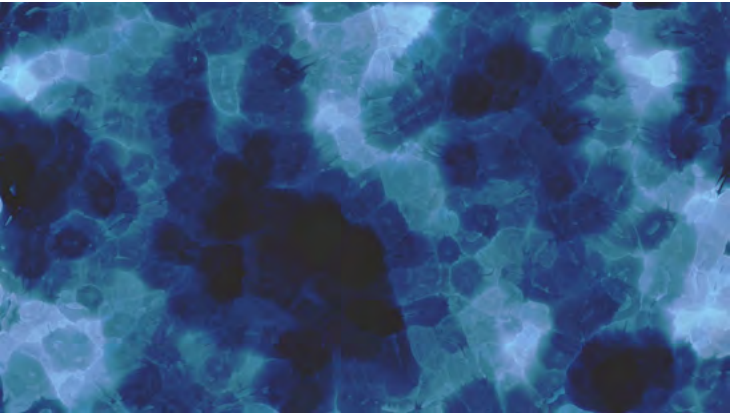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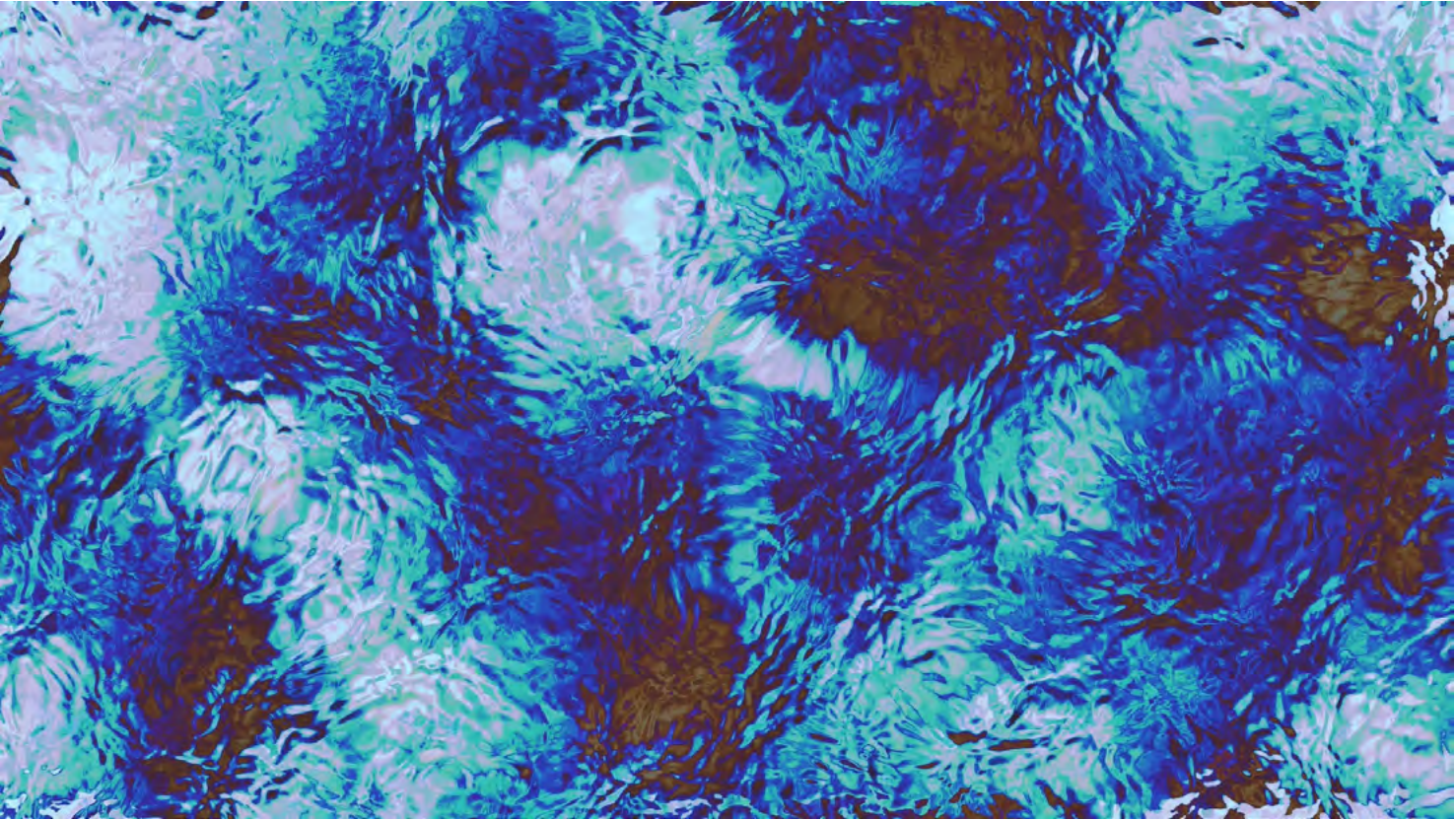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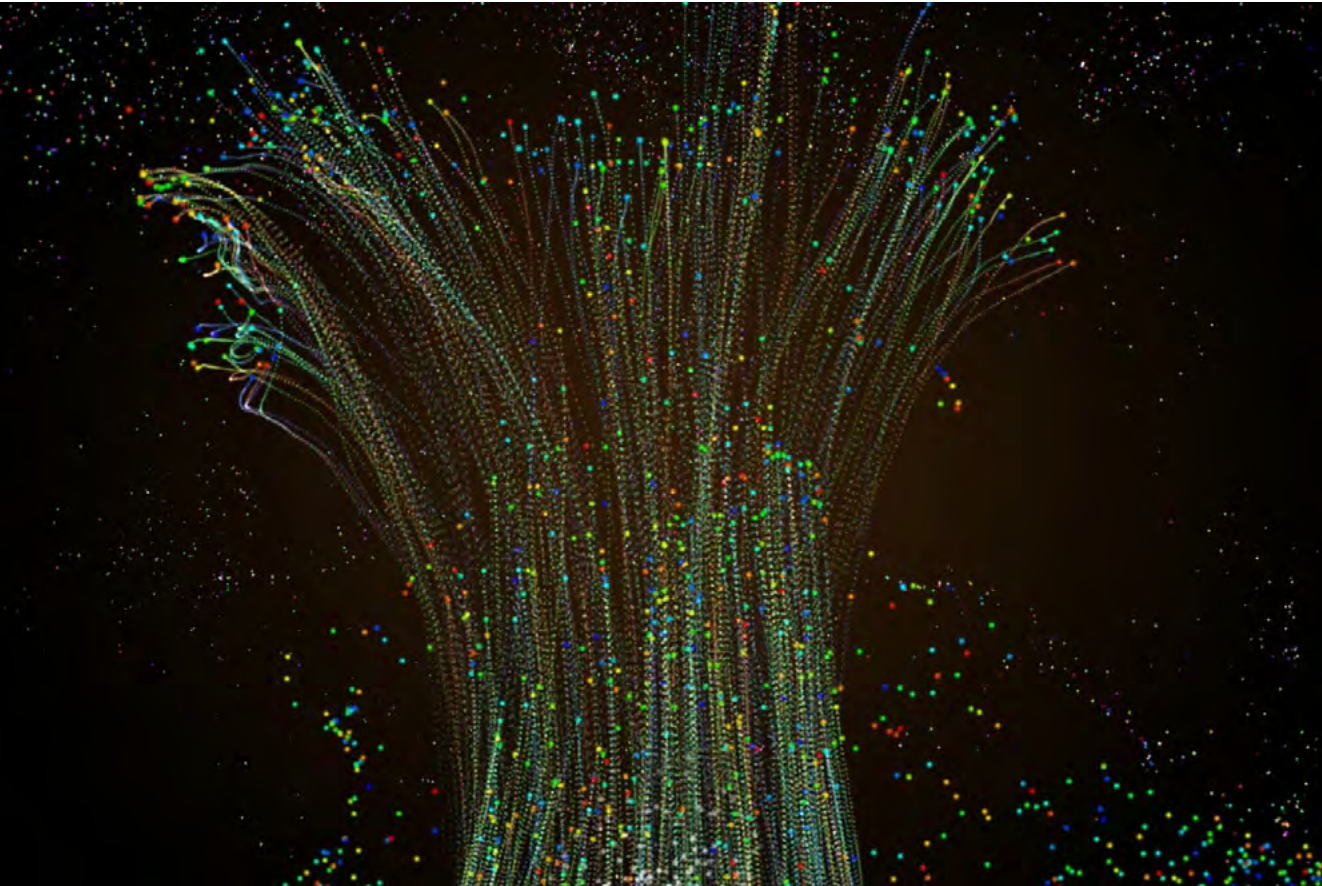
〈2025〉개인전 ‘Flow States’, Placemak3, 서운 / Atlanta Immersion, AI Film & Media Festival / RetroQuito’25, Media Art Screening, Quito 〈2024〉Vacations in the subconscious, 아테네 디지털아트 페스티벌 〈2023〉디오니소스 로봇, 경기시나위 오케스트라, 무대영상, LG아트센터 서울 〈2022〉지구생존가이드: 포스트휴먼 2022, 전시 & ACC 레지덴시,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20〉한국비디오아트 7080 시간이미지장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9〉ISEA Lux Etearna, 광주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8〉Wonder City, 세화미술관, 서울 〈2016〉창원 조각 비엔날레, 창원 〈2015〉은밀하게 황홀하게, 빛에 대한 31가지 체험, 문화역서울 284, 서울 / peace voice nice, 경남도립미술관, 창원시 〈2014〉Universal Studios Seoul,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손 사 연 SUN Siran

‘조류’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 리듬 중 하나로, 바다의 흥망성쇠를 주도하고 탄소 기반 생명체가 등장하는 요람을 형성하며 주기적인 움직임이 세포질 삼투 및 생체 전기 전도와 같은 과정과 미묘하게 공명합니다. 한편, ‘떠다니는 지점’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본 형식이며 실리콘 기반 문명이 구축한 디지털 세계의 가장 작은 단위로,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무한히 근사 가능한 논리 시스템을 구현 합니다. 이 연구는 이 두 가지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개념을 병치하여 ‘떠다니는 지점’의 정밀한 알고리 즘이 ‘조류’의 혼돈스러운 흐름과 충돌할 때 두 가지 형태의 생명체가 침식, 투과, 궁극적으로 충돌하여 새로운 존재 형태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주려고 시도합니다.

빛은 에너지의 운반체일 뿐만 아니라 광섬유를 통해 비트 전송을 주도합니다. 물은 전체를 흐르는 매체 로서 원시 생명체를 육성하는 ‘액체 매트릭스’이자 디지털 바다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내는 은유 역 할을 합니다.

이 작품은 탄소 기반 생명체와 실리콘 기반 생명체의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하는 동안 의 모호한 공간과 ‘융합’ 이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생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수가 썰물과 썰물 을 이루는 동안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영원히 흐리는 것처럼, 디지털 생명체와 생물학적 생명체의 경계 도 끊임없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떠다니는 지점’의 정밀함이 ‘조류’의 유동성에 주입될 때 우리가 목격 하는 것은 단순히 두 문명의 만남이 아니라 미래의 생명체를 위한 일종의 리허설, 즉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와 칩의 트랜지스터가 같은 에너지 언어를 공유하는 곳, 바다의 푸른색과 코드의 녹색이 빛의 매체에 서 결국 하나의 혼란스럽지만 질서정연한 ‘떠다니는 지점 조수’로 합쳐지는 곳입니다.



부동 소수점 조수 full HD, 3분6초, 2025

구이저우사범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디자인학 박사
2025 <디지털 맥락에서의 농경 기억과 생태적 상상전> 티아오베이미술관 개관전, 항저우, 중국 /
2024 <DIGITAL STORM> 섬유공장 예술구 곤징, 구이양, 중국 / <the scenery on the road>
글렌데일시립도서관 반사예술공간, 캘리포니아, 미국 / <다양성- 존재와 존재 사이> 김포아트홀,
김포, 한국 / <如此> 류지백미술관, 구이양, 중국 / <CYBER BULLYING> artnoid178, 서울, 한
국 / 2023 <귀산남> 국가회화원 미술관, 베이징, 중국 / <산책- 빛> 청주교육박물관, 청주, 한국 /
<KMAA - METAZERO> 정문규미술관, 서울 한국 / <신유> 후난박물관, 창사, 중국

Todd Holoubek 토드 홀루벡

작품 The girl looks through the window 에서의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것에 대한 질문은 관람자에게 맡겨 두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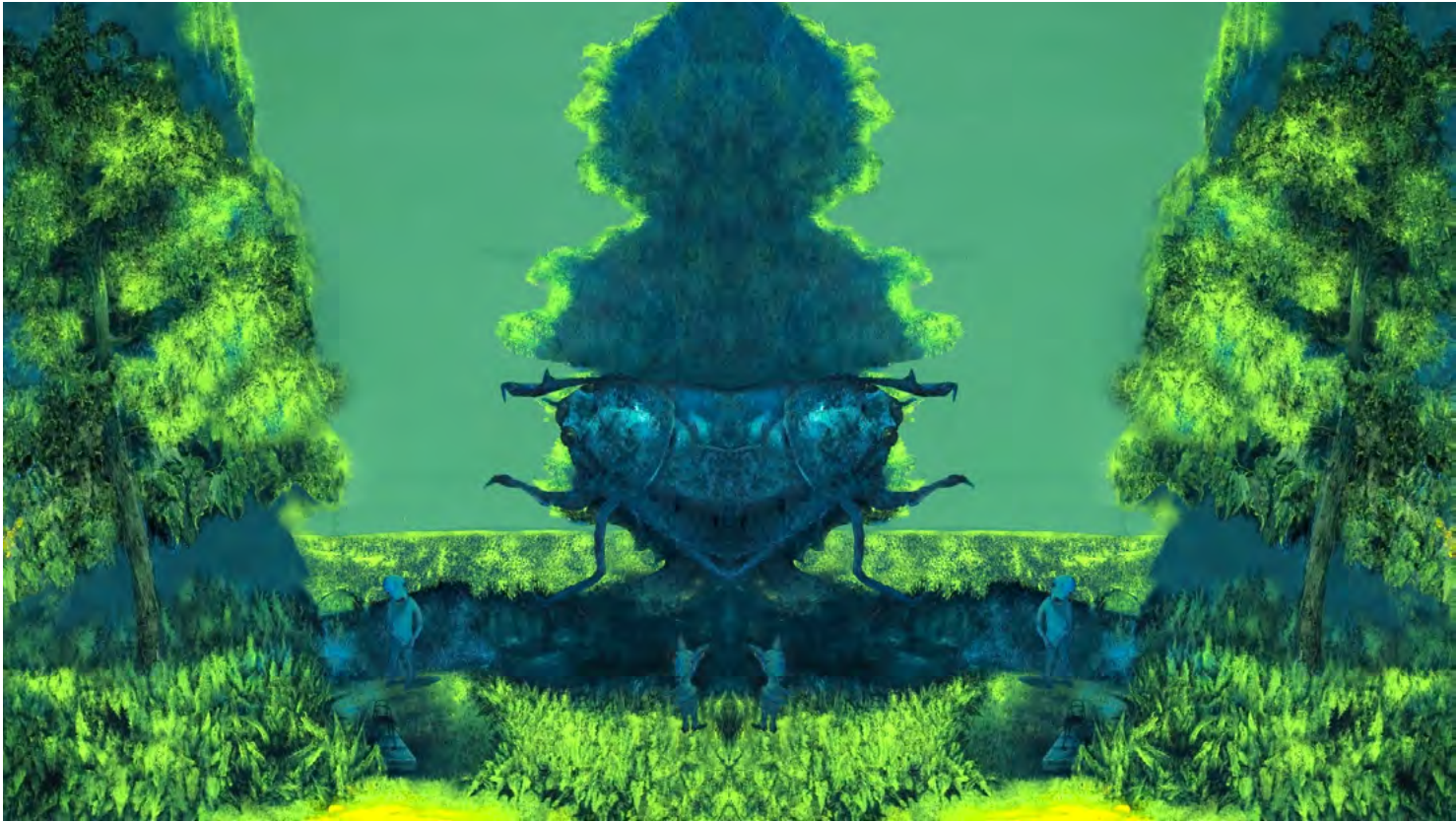
The girl looks through the window 5채널 비디오 설치, LED매트릭스, 맞춤형 하드웨어, 맞춤형 소프트웨어,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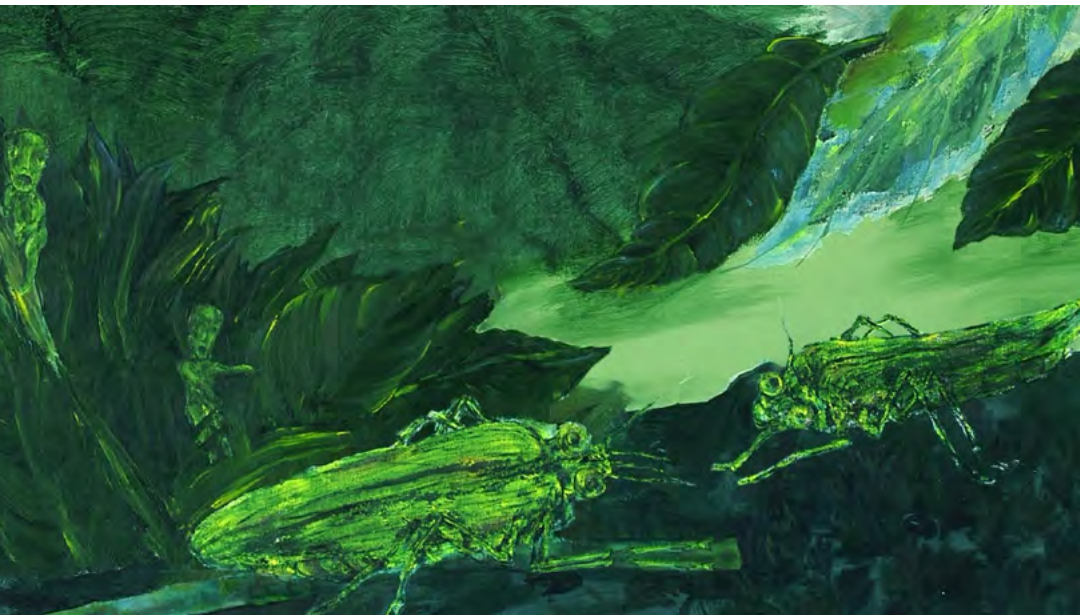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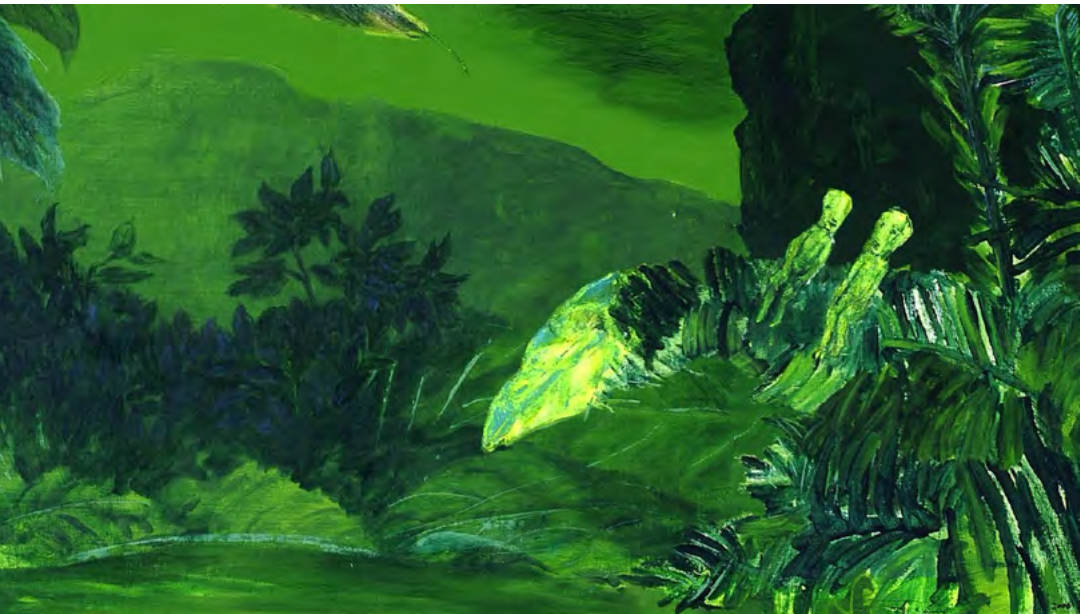
토드 홀루벡(Todd Holoubek)은 서울,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현대 기술 예술가입니다. 그의 작품과 예술 활동은 기술과 미디어 도구와 관련된 그의 역사와 그것들이 인간 조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홀루벡의 작품은 쿠바, 뉴욕, 로스앤젤레스, 캐나다, 그리고 대한민국 등에서 전시되었습니다. 그의 지각적으로 매력적인 작품들은 그가 1990년대 MTV 시리즈 ‘더 스테이트 온 MTV(The State on MTV)’의 배우, 작가, 창작자로서 텔레비전에서 일한 경험과, 뉴욕 대학교(NYU) 인터랙티브 텔레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ITP)에서의 연구원 및 겸임 교수로서의 경험, 그리고 현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미디어 아트 전공의 전임 교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XIA Yan 샤이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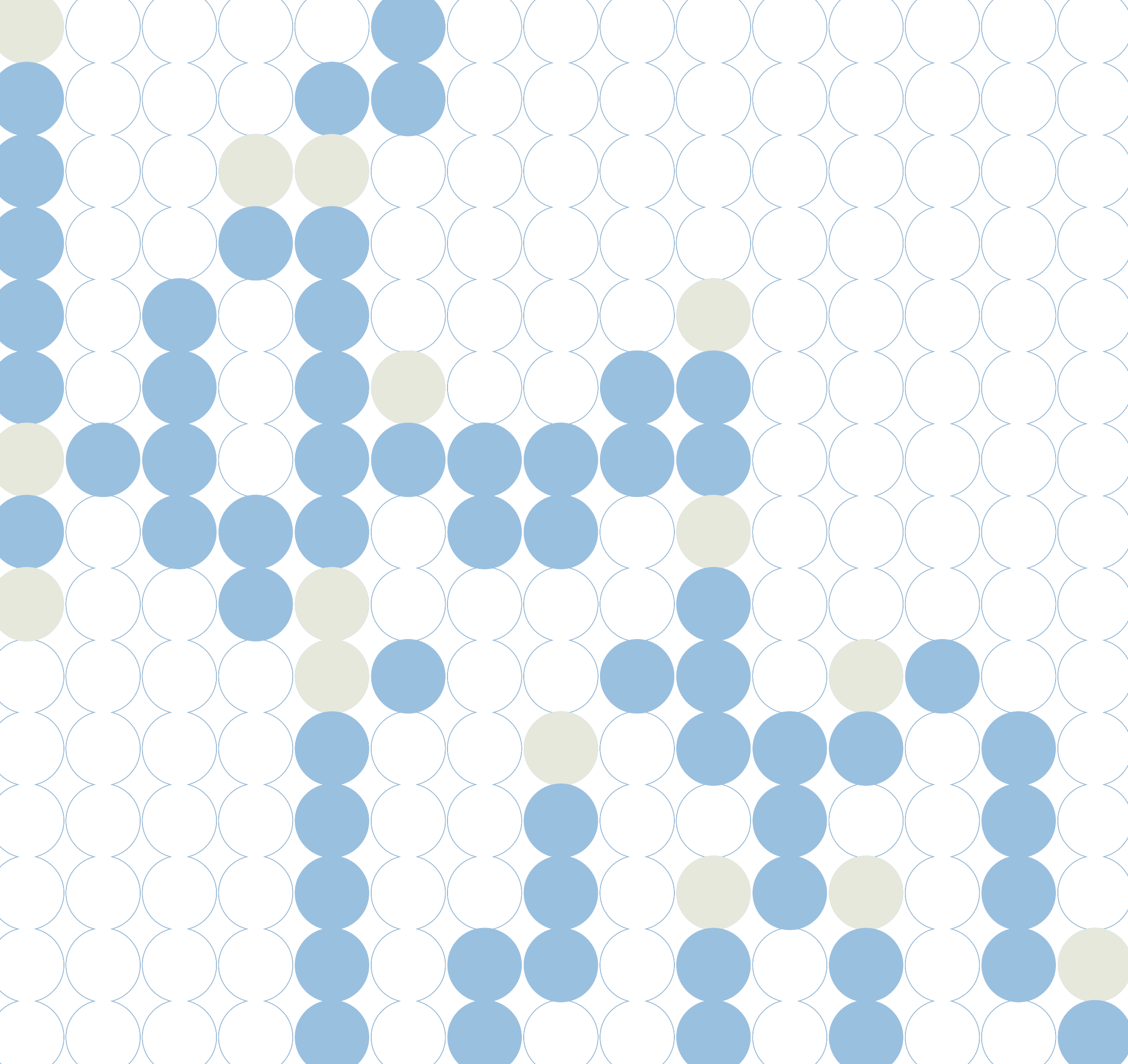
중국 남서부 동부 산맥에는 울창한 원시림이 있으며, 동식물 자원이 풍부하고 산의 해발 고도가 높으며 식생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19 50년대 이전에는 화남호랑이와 덩치가 큰 반달가슴곰 등 맹수들이 서식 하던 곳이었으나, 이후 인간의 이동과 발전의 영향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작가는 이 지역의 산형 지형 과 동식물을 소재로 하여, 2007-2015년 동안 창작된 100여 점의 유화를 활용하여 디지털 예술의 언 어 전환을 통해 서로 다른 종류의 동식물이 같은 산에 침입하고 의존하는 마법 같은 서사를 표현합니다. 그중에는 상징화된 남서쪽 산지에 오래 사는 박쥐, 곰 등의 동물이 있으며, 가상의 어린이 요정, 벌레 괴 물 및 다양한 알 수 없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는 산체 공간의 복잡성과 색층의 풍부함 속 에서 동화의 마법 같은 맥락으로 표현되며, 예술가의 과거 어린 시절 생활을 특징짓는 동시에 이 마법 같은 서사를 통해 현실의 지리, 인문 및 개인 심리의 차이를 조명합니다.



1998년 구이저우사범대학 미술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학교에 남아 교편을 잡았다. 2005년 중앙미술대학 조형 대학 벽화와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다. 2012년 샤먼 대학을 졸업하고 디지털 미디어 방향 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구이저우사범대학 미술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부교수이자 대학원생 지도교수이며, 구이저우사범대학미술관 관장이다. 작가로도 활동하지만 아래와 같은 다수의 전시 기획 을 한다.
2023 〈신유-역사적 시공간 속 디지털 예술〉 후난박물관, 중국 창사 / 〈운산록〉구이저우 공항 예술 센터, 중국 구이양 / 2022 〈쌍극장〉 하원상자예술공간, 중국 베이징 / 〈핵분열-디지털 예술의 세계화 물결〉 구이저우성 박물관, 중국 구이양/ 〈인간광상곡〉 상공간, 중국 귀양 / 2021 〈구름거울〉 상공간, 중국 귀양



남서부 정글 full HD, 2분30초, 2024



초대작가

구태사 - 김산하 추천

김승영 - 고충환 추천

도종환 - 김창겸 추천

문상호 - 금산갤러리 추천

박서보 - (주)노다멘 추천

최중갑 - 김창겸 추천

구 태 사 Gu, Tae Sa

〈무한의 형태〉(The Shape of Infinity)는 무한한 원소를 지닌 하나의 덩어리를 무한집합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집합을 둘러싼 공간에는 또 다른 크기의, 더 큰 무한집합이 존재한다. 무한의 끝에 다다른다고 해도, 그 끝은 결코 고정되지 않으며, 다시 또 다른 더 큰 무한이 펼쳐진다. 이처럼 무한은 끝없이 확장되는 특성을 지니며, 그 끝을 향한 도전은 결국 더 큰 무한을 만나게 됨을 보여준다. 작품은 이러한 무한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 끝없는 확장을 물리적 형태로 포착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무한집합〉(Infinite Set)은 옷칠과 색패(복방전복)를 사용한 이 작품은 자연에서 비롯된 재료를 통해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무한의 속성을 형상화한다. 특히, 나무에 올려진 옷칠은 그 자체로 시간과 변화에 저항하는 반영구적 성질을 지니며, 유한한 세계 속에서 영원을 꿈꾸는 작가의 시선을 반영한다.

구조적인 형태와 유기적인 흐름이 공존하는 화면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탐구하는 과정에서의 긴장과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무한의 형태 6 (The Shape of Infinity 6) 100×73 cm, 나무에 옷칠, 2023



무한집합 21 (Infinite Set 21) 83×83 cm, 나무에 옷칠, 색패, 2025

구태사는 2017년 숙명여자대학교 공예과에서 칠예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2023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칠예전공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2015년 갤러리 잔다리 〈with you〉전에 참여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옷칠회화를 중심으로 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같은 해 갤러리 H.아트브릿지 개인전 〈The Shape of Infinity〉를 통해 옷칠의 물성과 빛의 깊이를 매개로 '무한'의 개념을 조형적으로 탐구하였다.

2024년에는 유나이티드 갤러리 〈스며드는 시간〉과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아트코리아 국제미술대전〉 등에 참여하였으며, 제3회 아트코리아 국제미술대전에서 입선을 수상하였다. 2025년 갤러리 그리다 개인전 〈실재적 무한〉을 개최하였고, CICA 미술관 국제전 〈2025 Color〉 및 Moma K 갤러리 선정작 가전에 참여하며 꾸준히 전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승영 Kim, Seung Young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성경 구절에 착안해 그린 피터 브뤼겔의 원작을 차용하고 각색한 작업이라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브뤼겔은 당대의 풍자화가로 유명했고, 작가는 아마도 브뤼겔의 현실 비판적인 관점에 공감했고, 그렇게 암울한 시대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좋다. 비록 속절없는 세월이 흐른 뒤지만, 지금의 시대 감정과도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놀랍다. 낡은 의자와 화려한 표면은 또한 어떤가. 정작 속이 썩어 문드러진 줄도 모르고 마냥 외양과 남들 보기에만 급급해하는 현실을, 그리고 여기에 어쩌면 눈먼 현실에 기꺼이(?) 발목 잡힌 부조리한 삶을 극적 상황 논리로 풀어낸 작업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 미술평단 2024. 겨울호 김종영 미술상 수상기념전 리뷰에서 발췌-고충환 글

바벨탑으로 대변되는 하늘을 향한 인간의 신전은 일반적으로 혼돈(혼란), 오만, 이산(離散), 비현실성을 의미하지만, 그 만큼 목적을 달성하려는 인간의 집결된 의지의 또 다른 상징이다. 김승영 작가는 MoMA PS1 국제 레지던시 (1999~2000)에 참여하며 바벨탑을 구상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수집하기 시작한 스피커들은 제조사가 모두 달랐기에 바벨탑의 의미도 다양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바벨탑이라는 레이블로 지워지는 무게 때문에 그동안 〈벽〉, 〈타워〉 등의 이름으로 대체되기도 했지만, 바벨탑은 단지 위로 치솟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거시성 외에도 미시적로 관찰되는 스피커 와 사운드로 인하여 과거의 유적과도 같은 입체물에 생생한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 2024.3 월간전시가이드 이주연컬럼 발췌



장님을 이끄는 장님 2024, 의자와 지팡이 위에 나전칠기, 나무 좌대위에 아크릴, 101×347×105cm <김용관 사진>



바벨탑 2023,스피커 1700개, 8채널사운드, 가변크기-세계문자박물관 <사진김용관>

김승영은 물의 작가, 성찰과 사유의 공간을 작품으로 보여주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부터 자아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탐구로 시작된 작품세계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와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됐다. 1999년 뉴욕 P.S.1 MoMA 국제레지던시 참여 이후 다양성과 장소성, 기억과 상처, 소통, 치유 등 삶의 흔적을 설치, 영상, 사운드 매체를 활용해 명상적이고 사유적인 공간 설치작품을 이어오고 있다. 이후 프랑스 CEAAC, 국립고양스튜디오, 경기창작센터 파일럿을 비롯한 여러 레지던시에 다수 참가했으며 2008년 몽골, 2012년 남극, 2014년 바이칼호 노마딕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주요 수상으로는 2022년 김종영미술상, 2020년 전혁림미술상, 1998년 동아미술상 대상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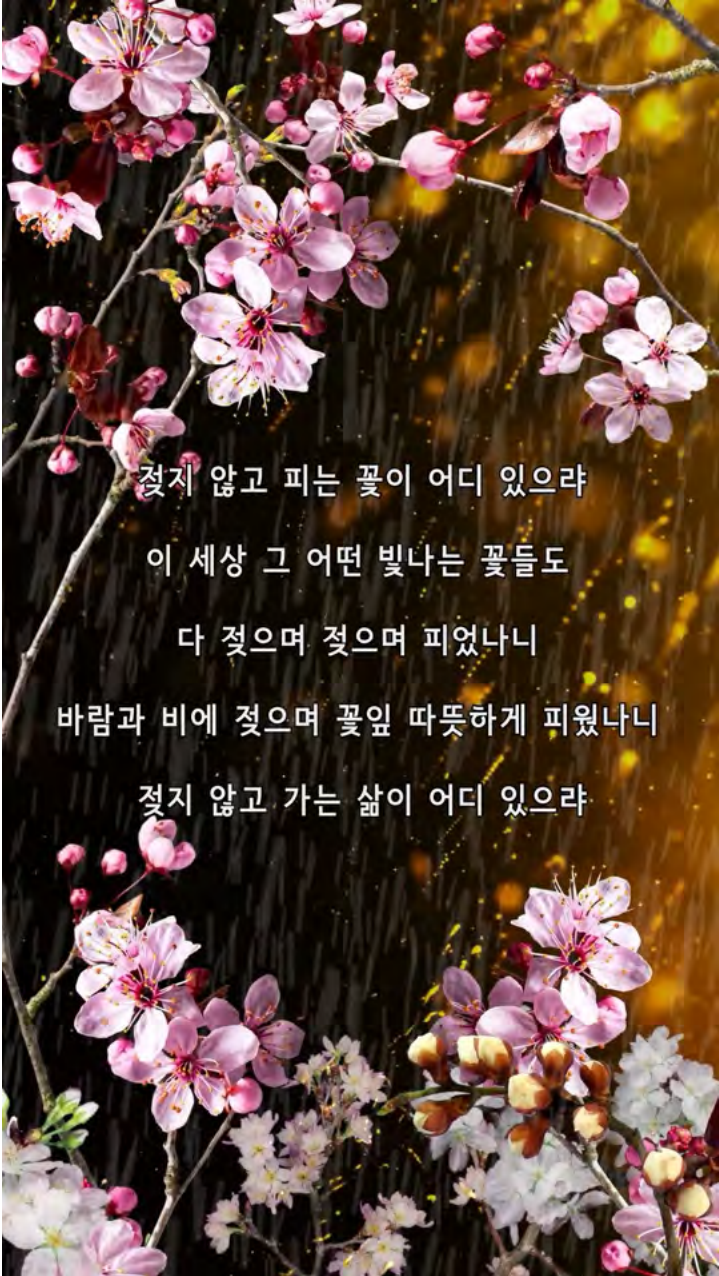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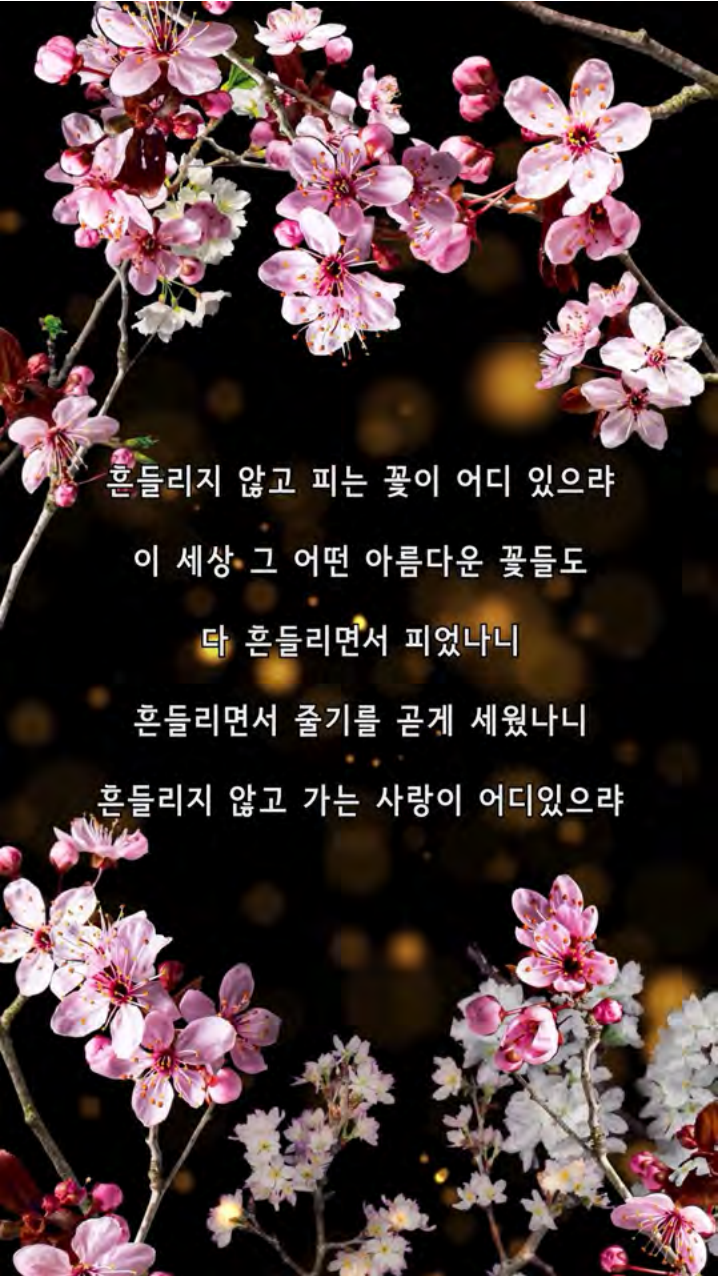
E-mail. youiyoung@naver.com

도 종 환 Do, Jong Whan

‘흔들리며 피는 꽃’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내며 피어나는 희망과 용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꽃이 흔들리고 젖으며 피어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구절은 인생의 본질이 흔들림 속에 있음을 나타내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는 고통과 슬픔이 삶의 일부임을 상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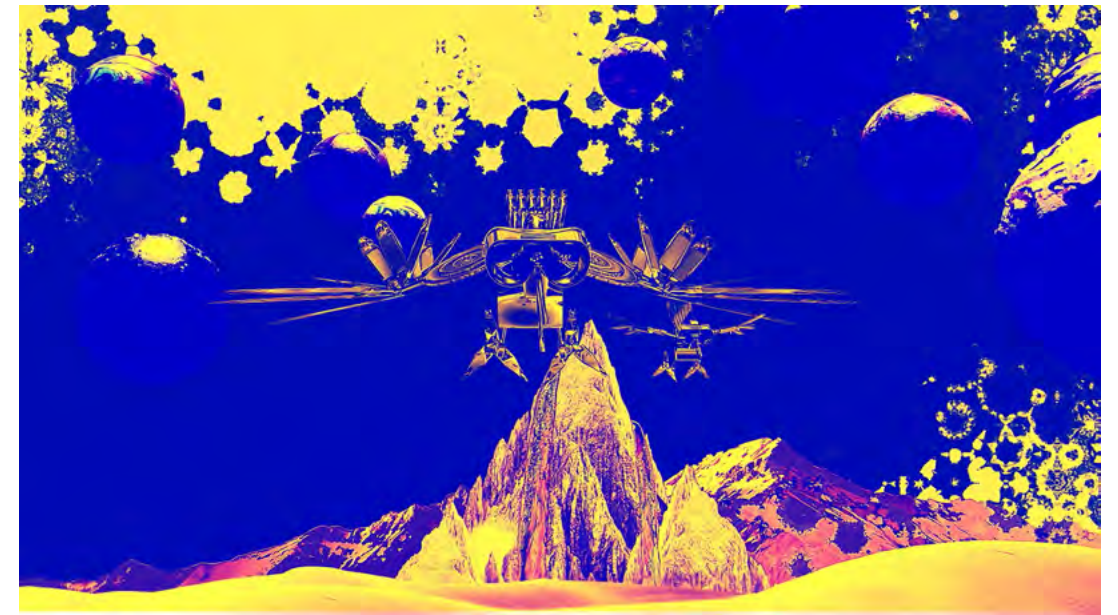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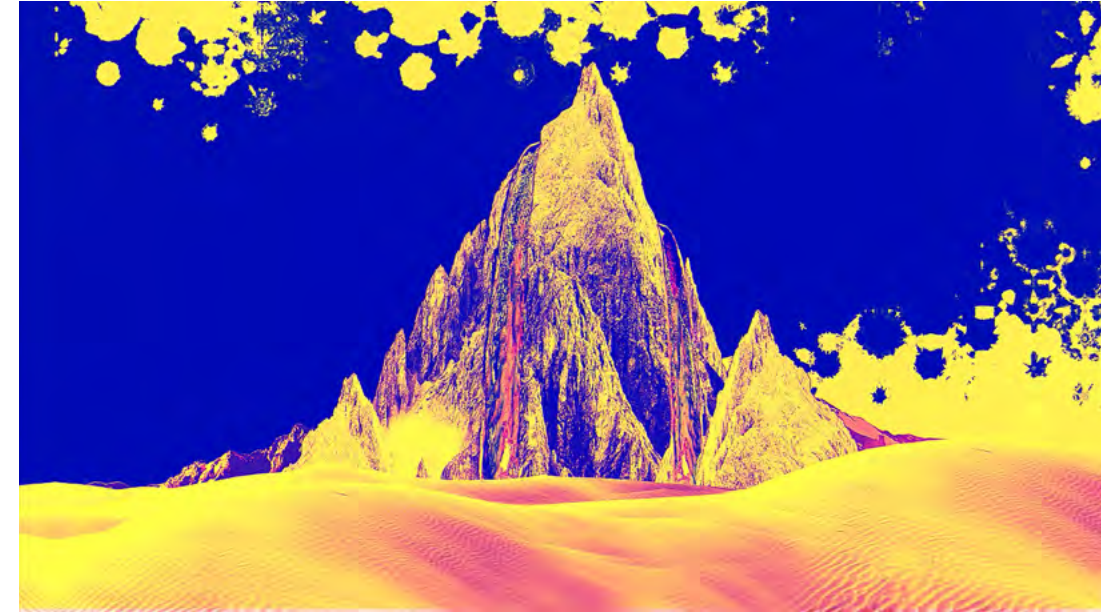
시인. 제19~21대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다.
충남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을 지냈다.
시집으로 『고두미 마을에서』 『접시꽃 당신』 『흔들리며 피는 꽃』 『부드러운 직선』 『해인으로 가는 길』 『세시에서 다섯시 사이』 『사월 바다』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고요로 가야겠다』 등이 있다.

흔들리며 피는 꽃 1min 45sec, 싱글채널비디오, 2025



문상호 Moon, Sang Ho

이 작품은 문명 발전의 빛과 그림자의 양면성을 품고 있으며, 가상과 금속, 그리고 이상이 함께 존재하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그립니다. 무한하고 비현실적인 공간속에서 문명의 양면을 탐구하며 자신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나갑니다.



〈Blue mountain〉 1 minute, single channel video, dimension variable,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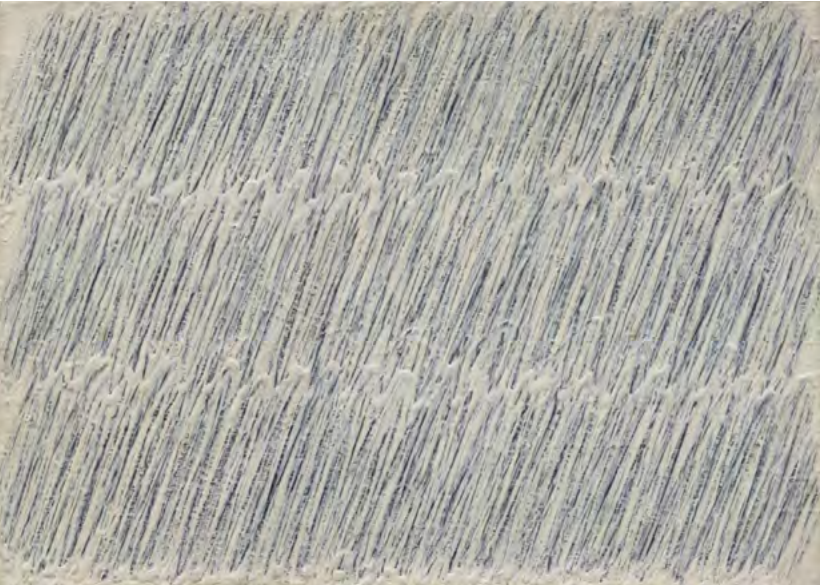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중인 문상호는 조지아 SCAD 학부를 졸업, 뉴욕 파슨스 Design & Technology 석사를 전공했다. 그는 비디오 설치 작품을 통해 인공지능과 정보기술이 지닌 미래적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한다. 생동감 가득한 색채와 함께 합성된 각 오브제들을 통해, 문명발달과 메타버스가 지닌 미래적 가능성의 양면성을 자신만의 기법을 통해 표현한다.

박서보 Park, Seo Bo

박서보 화백의 고해상도 단색화 이미지를 ‘슈퍼줌’(Superzoom) 기법으로 촬영 및 편집하여, 원본 작품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미세한 질감과 세부 묘사를 대형 스크린을 통해 압도적인 스케일로 구현합니다. 이처럼 확장된 시각 경험은 관람객에게 파인아트(Fine Art)의 정적인 감상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아우라’를 선사할 것입니다. 특히, 작품의 세세한 부분을 줌인(Zoom-in)하여 제시함으로써, 수련(修鍊)의 과정을 거친 박서보 화백의 독창적인 ‘묘법(Écriture)’과 숙련된 장인정신(Artisan Spirit)이 깃든 깊은 정신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채로운 배경 음악을 결합하여 시각과 청각이 통합된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완성하여, 박서보 단색화에 대한 심도 깊고 감각적인 재해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묘법 N0.950715 182.5×228cm, 캔버스에 한지, 혼합매체, 1995, 재단 소장



연필묘법 N0.40-77 24×33.3cm, 마에 연필과 유채, 1977, 박지환소장



연필묘법 N0.40-77 24×33.3cm, 마에 연필과 유채, 1977, 박지환소장

박서보(朴栖甫, 1931-2023)는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 단색화(Dansaekhwa) 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1931년 경상북도 예천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했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 앵포르멜 양식의 추상회화를 통해 화단에 등장했다. 이후 ‘원형질’, ‘유전질’ 시리즈를 거쳐 1967년부터는 대표작인 《묘법(Ecriture)》시리즈를 시작하며 수행적이고 반복적인 선 굵기를 통해 예술과 삶의 일체를 추구했다. 1970년대부터는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과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에콜 드 서울’, ‘앙데팡당’ 등 현대미술 전시를 기획했고, 홍익대학교 교수로서 후진 양성에도 힘썼다. 1980년대 이후에는 한지의 물성을 활용한 묘법 작업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예술을 치유의 도구로 인식했다. 그의 작품은 뉴욕 MoMA,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구겐하임, 홍콩 M+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리움미술관 등에 전시되어 있다. 1994년에는 서보미술문화재단을 설립했고, 2023년에는 박서보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서보는 2023년 10월 14일, 92세의 나이로 타계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으니 작업실에 캔버스를 배접해놔라”는 말을 남길 만큼 예술에 대한 열정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한국 현대미술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린 상징적인 존재로, ‘한국 단색화의 대부’로 불리며 예술과 수행, 자연과의 일체를 추구한 삶을 살았다.

최 중 갑 Choi, Joong Gap

최근 몇 년간 구름을 소재로 작업하고 있다. 구름은 유형과 무형을 오가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또한, 유형의 형상도 어떤 조건과 우연의 만남으로 그 형태와 색깔이 수시로 변한다. 삶의 모습도 이와 같다. 항상 같은 모습인 듯 다른 형상의 구름의 모습을 통해 삶의 모습을 조명하며 발전적 요소를 찾는다.



공존-인류의 초상 45×50×18cm, 오석, 2025



상황과 현상-구름 33×50×19cm, 오석, 2025



공존-흑과백 19×42×52cm, 오석, 2025

2013년 강원미술대전 특선, 목우회 특선, 2014년 강원미술대전 입선,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단원미술제 최우수상, 2016년 대한민국미술대전 평론가상, 신사임당미술대전 최우수상, 2017년 강원미술대전 최우수상, 2018년 강원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전시로는 개인전 2002년 1회(인사갤러리, 서울)를 시작으로, 2019년(2회, 춘천미술관), 2020년(3회, 춘천미술관), 2021년(4회, 춘천미술관, 핑크갤러리, 서울), 2022년(5회, 갤러리툰, 춘천), 2024년(6회, 삶의 자화상) 개인전을 전시했다. 또한, 2019년 강원아트페어, 핑크아트페어, 한국미술협회전, 춘천미술협회전 2020년 핑크아트페어, 강원미술협회전, BESETO미술제, 2021년 한국현대조각초대전, 3인3색전, 목우아트페어, 핑크아트페어, 한강‘흥’프로젝트, 2022년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춘천심포지엄, 낙락유람(한강조각프로젝트), 2023년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야외조각전, 한일특별교류전, 2024년 서울국제조각페스타,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야외광장조각전, 2025년 2025 현대조각초대전, 2025 강원미술-경계와 교감을 전시하였다.

2025 KMAA-Reloaded전

전 시 기 간 2025년 11월 21일(금) ~ 29일(토)

초 대 일 시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3시

메인세미나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4시

〈현 정부의 문화정책의 과제〉 **도종환** 시인, 전 문체부 장관

전시행사

11월 23일(일) 오후 2시 라운드테이블 (동그렇게 앉아 이런저런 미술 이야기 한다는 의미)

오후 3시 세미나 : 김창겸 작가 발표 〈2002년부터 나의 중국 이야기〉

오후 4시 프레젠테이션 : 한진수 작가, 이윤 작가

11월 24일(월) 오후 2시 라운드테이블

오후 3시 세미나 : 이원준 대표 발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보증서〉

오후 4시 프레젠테이션 : 김해인 작가, 김승영 작가

11월 25일(화) 오후 2시 라운드테이블

오후 3시 프레젠테이션 : 김범수 작가, 전승일 감독

오후 4시 세미나 : 이경호 작가 발표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

11월 26일(수) 오후 2시 라운드테이블

오후 3시 프레젠테이션 : 김보슬 작가, 김효수 작가

오후 4시 세미나 : 방우송 총감독 발표 〈광양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

11월 27일(목) 오후 2시 라운드테이블

오후 3시 세미나 : 김창겸 기획자 발표 〈기획자, 예술행정가로서의 경험〉

오후 4시 프레젠테이션 : 구태사 작가, 남명옥 작가

11월 28일(금) 오후 2시 라운드테이블

오후 3시 세미나 : 김창겸 작가 발표 〈대리석의 역사〉

오후 4시 프레젠테이션 : 최종갑 작가, 채진숙 작가

11월 29일(토) 오후 2시 라운드테이블

오후 3시 세미나 : 김창겸 이사장 발표 〈앞으로의 계획〉

오후 4시 프레젠테이션 : 이현정 작가, 두눈 작가

2025 한국미디어아트협회 정기전 2025 KMAA-Reloaded전

전 시 총 감 독 김창겸

기 획 위 원 객인상, 두눈, 이돈아, 조세민

전시진행위원 김길웅, 두눈, 최석영, 한선현

재 무 위 원 윤무현

사 회 및 홍 보 이광기

촬 영 두눈

디 자 인 두눈(리플렛), 이지윤(작품집), 이현정(포스터)

주 최 · 주 관 (사)한국미디어아트협회

협 찬 답십리아트랩

서울 동대문구 고미술로 43 답십리고미술상가 지하1층
(5호선 답십리역 2번 출구)